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다.
남에게 상처 주어선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3월 17일) 2018년 5월 2일 수요일





"남북정상회담 성공"… 불교계 '한마음' 기원 불교계의 지난 한주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한마음으로 기원한 주간이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정상회담 당일까지 1주일 동안 소속 종단 사찰 1만 5천여 곳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렸으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6일에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범종을 33번 타종했다. 한반도 평화의 신호탄인 판문점 선언이 이뤄진 4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 2만여 불자대중이 광화문을 가득 메운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내빈들이 부처님 탄생성지서 채화한 평화의불을 점화하기도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재완 기자

한반도 평화 · 번영 새 길 올랐다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판문점 선언 발표

"올해 안에 정전선언 · 비핵화"
일체 적대행위 금지 등 약속
조계종 등 환영 논평 잇달아

회담 성공위해 불교계도 동참
2만여 불자들 광화문 광장서
평화 기원 금강경 독송 '장관'
종단협 소속 사찰 33번 타종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 역사가 열렸다. 65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연내 종전선언 · 비핵화 추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은 종전선언 추진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 북 · 미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목표를 확인했으며,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 협력을 구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면 단계적인 군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8 · 15 이산가족 상봉 추진 △동해선 · 경의선 철도 · 도로 개통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남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며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하고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선언했다"고 공표했다.

불교계 "선언 환영한다" 발표

남북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 불교계 각 종단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놨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4월 27일 환영 논평을 통해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것에 대해 2천만 불자들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오늘의 남북정상회담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 왔던 어둠과 아픔을 걷어내는 당당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들을 잘 가꾸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안정과 국론의 통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정 스님은 '판문점 선언'의 성공을 위해 불교계도 동참할 뜻을 밝혔다. 스님은 "우리 불교계는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새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오늘의 성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일심으로 성원할 것"이라며 "남북 불교계 또한 오늘의 소중한 성과를 남북불교교류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길 서원했다.

회성 정사는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낸 두 정상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연쇄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면서 "진호국가불사를 통해 민족의 공존과 공영을 서원해온 진각종은 전체 진언행자들과 함께 오늘의 역사적인 사실을 환영하며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도 선언 채택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통해 세계 평화를 확고히 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남북 양 정상의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양 정상은 보다 많은 대화와 교류 그리고 협력을 통해 평화 번영 통일로 이어져 원래대로 하나가 되는 한반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담 성공 기원… 불교 힘 모아

남북 양 정상의 성공적 회담을 위해 불교계는 지난 한주 동안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이 4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2018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전국불자 〈금강경〉 독송정진이었다. 올해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협력과 화합을 주제로 마련돼 의미를 더 했다.

2만여 불자들은 〈금강경〉 독송과 〈신묘장구대다라니〉 정근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또한 발원문을 통해 "긴 시간 이었다. 북풍으로 시작된 남북화해의 바람은 남풍이 되어 판문점 평화의 집을 향해 불어간다"면서 "희망의 광장에 함께 한 우리 불자들은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고 서원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6일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범종을 타종했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정상회담 당일까지 1주일 동안 소속 종단 사찰 1만 5천여 곳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축원을 올리기도 했다.

한중일 불교 9월 모여 평화 기원 대회 연다

한중일 대회 9월 11일 개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9월 11~13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실무자들은 4월 25일 일본 입정교성회 고베교회에서 '제21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예비회의'를 열고 일본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번 한중일불교대회에는 3국 교류위원회의와 세계평화기원법회, 학술강연회 등을 진행한다. 특히 1995년 6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고베대지진의 희생자를 추념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번 예비회의에는 한국측 대표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 스님 등 12명, 중국측 대표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생 스님 등 7명, 일본측 대표로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 카쿠쵸 스님 등이 참석했다.

한중일불교도대회는 최근 한중일 3국의 교류의 물꼬를 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난징대학살 참회를 비롯해 한중일 근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비롯해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올림픽 등의 성공개최 기원과 동북아 안정 및 세계평화 기여 등이 논의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평화통일기원
분청팔만대장경 조성
기금마련 선서화전

귀의삼보하옵고

금번 분청대장경연구소는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평화통일기원 분청팔만대장경 조성 기금마련 선서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분청기법'이라는 새로운 경판제작기법을 개발한 분청대장경연구소가 남북평화통일기원 대장경 조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시로 범주스님의 달마도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의 서예 작품 등 총 200여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기원 분청팔만대장경'의 완성은 약 15년이 걸리는 대작불사입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방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8년 5월 13일(일) 오후 3시 ~ 5월 20일(일)
장 소 : 서울 봉은사 보우당
주 최 : 분청대장경연구소 후 원 : 상주 달마선원
문 의 : ☎ 1899-9505 (분청대장경연구소)







분청기법이란 : 분청대장경연구소 소장 정우스님이 1년여 연구에 걸쳐 개발한 새로운 경판제작기법이다. 도자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분청'을 이용해 경판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기존의 목판이나 동판을 이용해 제작한 경판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관상태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東國에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

동국대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 극적으로 해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에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 지난 1월 29일부터 86일간 장기화됐던 동국대 청소노동자 파업사태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이다.

동국대와 청소노동자는 4월 24일 오후 6시 20분 본관 총장실에서 그간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 이로써 청소노동자들의 86일간의 파업과 농성 및 9일간의 단식투쟁은 마무리됐다.

앞서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8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정년퇴직하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규 채용 대신 근로장학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청소노동자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청소노동자들은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갔고, 학교는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 면학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합의 타결은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법회를 앞두고 이사장 자광 스님과 총장 보광 스님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그동안 서로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참회하고, 어려운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참회 · 화합 · 상생'을 도모하자는데 합일점이 모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동국대의 '직접 고용'이다. 동국대는 내년 2월 1일자로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며, 올해 9월 1일 '직접 고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동국대와

학교 · 노조 24일 합의 체결
내년 2월 1일부터 직접고용
함께 점등법회 참석해 화해
"어려움 있어도 대화로 풀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동국 노조,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학교는 태가비엠에 대해 4월 25일자로 용역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청소노동자들은 업무에 복귀키로 했다. 쌍방이 걸었던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향후 화해와 상생을 위한 노조활동을 하기로 했다.


동국대와 청소노동자들은 4월 24일 오후 6시 20분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 직후 열린 봉축점등법회에서 총장 보광 스님이 청소노동자를 안아주고 있다.

합의 이후 동국대와 청소노동자들은 팔정도 광장에서 열린 봉축점등법회에 참석해 서로 간의 3배를 하며 화해와 상생을 다짐했다. 3배 이후에는 서로를 안아주며 그간 미안함을 달래기도 했다.

상호 3배 이후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해야 하는 데 제공을 할 수 없어 그간 학생과 교수들께 죄송했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인내하고 대화하자"고 말했다.

오종익 서울일반노조 동국대시설관리분회장은 "이 같이 급박하게 타결될 줄 몰랐다. 총장 스님과 학내 구성원께 감사드린다. 함께한 노조원 여러분도 고생 많았다"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가 깨끗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자"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는 4월 24일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발원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평화도 기원했다.

종단불사추진위원회 기술자문위원 위촉

고건축 · 현대건축 분야 6명

조계종의 대형불사를 맡아 추진하는 종단불사추진위원회가 기술자문을 위촉하고, 세종시불교문화체험관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등 불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4월 23 · 24일 각각 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서는 고건축 분야에 △장순용 삼아성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왕직 명지대 교수 △이봉수 삼진건축사사무소 대표를, 현대건축 분야에 △승효상 이로재건축사사무소 대표 △민현식 前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민아 협동원건축사사무소 대표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추진위는 이외에도 세종시불교문화체험관 설계업체로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복수의 설계업체에 대한 5년간 실적과 회사 등급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방장 진산식의 아름다운 회향

통도사, 법회 비용 아껴 소아암 환자 치료비 기탁

영축총림 통도사가 방장 진산식에 사용할 비용을 소아암 환자 치료비로 회향해 교계 귀감이 되고 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소아암 환자 치료비 5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지정 기탁했다. 치료비는 최근 방장으로 추대된 성파 스님의 진산식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었으나 성파 스님이 진산식을 고사하면서 자연스레 기부로 이어졌다.

이 자리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설정 스님은 "통도사가 방장스님 취임식 비용을 아껴 종단에 기여했다. 그 덕성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방장스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충실하게 쓰겠다. 기금도 기금이지만 종단의 귀감이 될 것 같다. 다음에 별도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설정 스님(가운데)과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오른쪽),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

이에 영배 스님은 "방장스님께서 추대식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시며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부로 뜻을 모았다. 총무원장스님 말씀을 잘 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영배 스님은 전달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방장 추대는 10년에 1번 있는 행사이기에 추대식을 여법하게 하고 싶었지만 어른스님께서 반대의 뜻이 완강하셨다. 승가적인 정신으로 소임을 살아야 하니 사회처럼 알릴 일이 아니라고 하셨다"면서 "대신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동량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아암 환자를 돕기로 했다"고 기금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사성제 苦 벗어나 행복해지는 진리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신 후 49일간 선정에 드시어 깨달음을 사유하셨습니다. 이때 범천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달라"고 권청합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발견한 인연 연기의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을 아시고 망설이시다가 연기법을 알기쉽게 체계화하여 사성제(四聖諦) 교설을 정리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녹야원으로 가서 도반이었던 다섯 수행자에게 사성제와 팔정도(八正道)를 설명하셨어요. 며칠 후 교진여가 가르침을 이해했을 때 부처님은 "교진여가 깨달았다! 교진여가 깨달았다"고 외쳤습니다. 기쁨의 외침이었죠. 다섯 수행자들은 모두 수다원(須陀洹)이 되어 부처님의 첫 제자 '5비구'가 되었습니다.

사성제를 설한 최초의 설법 초전법륜은 불법승 삼보가 갖추어져 불교가 탄생한 인류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진리를 최초로 설법한 사성제는 괴로움의 발생 원인과 소멸에 대한 실천적 교설입니다.

불교는 일체중생의 이고득락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성제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네가지 거룩한 진리 사성제의 제(諦)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사성제는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의 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사의 고(苦)를 멸하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사성제라 합니다.

*첫째 **고제(苦諦)**는 이 세상이 고(苦)라는 실상을 아는 진리입니다. 세상을 왜 고해(苦海)라고 할까요. 경전에서는 세간의 괴로움을 여덟가지(八苦)로 보고 있습니다.

생노병사의 4고(四苦)와 미운 것과 만나고(怨憎會)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愛別離)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求不得)은 괴로움입니다. 이처럼 오온(색수상행식)에 집착해서 생기는 일체의 괴로움(五蘊盛苦)을 통찰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일체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을 설하시면서 단언하


제목 · 소멸-생성 그림 · 조향숙

갈애 집착이 苦의 원인
팔정도와 함께 최초설법
불교교설 사성제로 집약

셨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제행이 영구불변하길 바라면서 늙기 싫어하고 명예와 재물에 집착하니 괴롭습니다. 그 집착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자상(壽者相)입니다.

둘째 **집제(集諦)**는 괴로움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갈애와 집착 그리고 욕망이 원인인데 갈애는 가장 심한 번뇌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셋째 **멸제(滅諦)**는 갈애와 집착을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해탈 열반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넷째 **도제(道諦)**는 열반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수행방법으로 8정도(八正道) 실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성제는 12연기, 열반, 8정도를 포괄하며, 사홍서원도 사성제에 대비해서 구성됐습니다.

"뭇교설은 사성제로 집약된다" 〈중아함 권7 象跡喩經〉

사성제는 불교교리의 핵심사상입니다. 불자는 사성제를 반드시 이해하고 8정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8정도는 다음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불기 2562(2018)년

빛고을관등회

일시 2018년 5월 12일(토) 오후 5시 장소 5·18민주광장 (아시아문화전당 앞)

점등식
일시 : 5월 3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5.18민주광장
미륵사지 석탑 모형의 높이 20m의 한지등(燈)

어울림마당
일시 : 5월 12일(토) 오후 5시
장소 : 5.18민주광장
전체 참여자와 연희단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

관등법회(봉축법회)
일시 : 5월 12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 5.18민주광장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법회

제등행진
일시 : 5월 12일(토) 오후 7시
장소 : 5.18민주광장-광주천-금남공원-문화전당
등(燈)과 음악이 어우러진 전통등 행진

대동한마당(가수 박현빈, 강강수월래)
일시 : 5월 12일(토) 오후 8시 10분
장소 : 5.18민주광장
인기가수 박현빈, 놀이패 신명이 함께 하는 난장 음악회

전통등(燈)전시회
일시 : 5월 3일(목) ~ 5월 24(목)
장소 : 광주공원 앞 광주천
광주천이 문화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을 발원하는 전문작가들의 한지등 전시

전통등(燈)전시회 작은음악회
일시 : 5월 9일(수) 오후 6시 30분,
5월 22(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광주공원 앞 광주천
전통등전시회를 기념하여 음악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음악회 개최

전통문화체험부스
일시 : 5월 12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 5.18민주공원
한지등, 연꽃등만들기 등 전래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

주최 빛고을관등회 봉행위원회 주관 광주불교연합회 빛고을나눔나무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연등회 '평화' 꿈꾸다… 北전통등 19점 선두 장엄

봉축위원회 5월 11~13일
한반도 평화 · 화합 의미 담아 거행

북한 문헌 통해 고증한 전통등
10만 연등 종로 밤거리 수놓고
각종 전시와 체험부스 운영 예정
생명 · 환경관련 프로그램도 눈길

청계천 전통등 전시회 비롯해
조계사 앞 문화공연도 다채로워



지혜 · 자비 光明 세상 비추길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맑히자는 염원을 담은 봉축탑에 불이 켜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설정)는 4월 25일 광화문 북측광장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국민의 행복과 남북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광장에는 국보 제21호인 불국사삼층석탑(석가탑)을 원형으로 만든 석가탑등(燈)이 설치됐으며, 탑 사방에는 지혜의 상징인 코끼리등을 장엄했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2018 연등회 주요일정

- **5월 11~22일** 전통등 전시회
- **5월 12일** 어울림마당 연등행렬 회향한마당
- **5월 13일** 전통문화마당 공연마당 외국인 등만들기 연등놀이
- **5월 22일** 봉축법요식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올해 '평화'의 의미를 담아 거행된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음에 따라 전 세계에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5월 11~1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2018 연등회 본행사를 개최한다. 4월 25일 광화문 봉축탑 점등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린 이번 연등회는 국가공휴일 명칭이 석가탄신일에서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된 후 처음 열려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문헌 고증을 통해 복원한 '북한등' 19점이 14일 저녁 진행되는 연등행렬에 대거 등장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불교계 염원을 엿볼 수 있다. 북한등은 과거 전시회서 공개됐으나 연등행렬에 다수 등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뿐만 아니라 2개의 연등을 다는 'T'자 개인행렬등에 하나는 개인의 서원을, 다른 하나에는 나라와 사회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도록 했다. 메시지는 연등회 참여 개인과 사찰이 직접 정한다.

또한 세대전승을 위해 어린이들이 만든 캐릭터 장엄등과 각 사찰 연등공방서 제작한 대형등 150점이 종로거리를 밝힌다.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를 후원하는 서울 수국사의 '스키점프등' '스노보드등', 화계사의 '숭산스님설법등', 한마음선원의 '관하는 부엉이등' 등은 해당 사찰의 특색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앞서 동국대 운동장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에는 어린이청소년 단체 48곳 1000여 명의 연희단과 각 사찰 성인연희단이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봉축율동을 선보인다. 올해는 연등회 노래를 랩과 뮤지컬, 가요풍으로 새롭게 작곡해 이에 맞춘 율동이 기대를 모은다. 2016년 성철 스님의 봉축법어를 랩으로 만든 '당신의 생일입니다'도 올해 연등회 노래에 포함됐다.

5월 13일 조계사 앞길서 열리는 '전통문화마당'에는 70여개 단체가 부스를 마련, 전통문화체험을 비롯해 사찰음식, 명상, 세계불교문화, 도예, 힐링아트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40%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멸종위기종 종이모형 만들기 △경허선사 나투시다 △강과 풀과 생명의 노래 △청소년 표현명상 상담 △평화통일은 부처님의 자비로 등이 있다. 아울러 공평동과 안국동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는 낮 12시부터 △플래시 몹 △선무도 △북청사자놀이 △승무 △남사당놀이 △각국 민속공연 △어린이 공연 △청소년음악놀이 페스티벌 등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계사와 봉은사, 청계천서 전통등전시회가 5월 22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이어진다. 조계사는 등 기둥과 연등행렬 참여 등을 전시하고, 봉은사는 민속과 동물에 얽힌 불교이야기를 주제로 한다. 또한 청계천서는 '영원한 동심, 빛으로 만나는 불심의 세계'라는 주제로 선재동자등과 별주부전등이 불을 밝힌다.

한편 주최 측은 최근 종로구간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라 설치된 버스정류소가 행사에 지장 없도록 정류소를 분리해 양쪽 인도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로 통제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주최 측은 "시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안전점검이 우선이다. 서울시와 교통통제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홍보국장 효신 스님은 "간혹 연등회를 불교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연등회는 무형문화재이자 범국민적인 축제다. 더불어 전 세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페스티벌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비롯해 국민들이 더 쉽게 연등회에 다가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자승도 한반도 평화 기원, JSA간다

5월 8일 판문점 및 도라산전망대 방문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자들의 결집이 이뤄지는 가운데, 천진불들이 공동경비구역(JSA)를 찾아 분단현실을 체험하고, 평화를 기원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8일 동자승들과 함께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JSA법당을 참배한다. 조계사 동자승들은 이날 '화합과 평화의 발원문'을 봉독하며 인근 도라산 전망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계사는 5월 2일 경내에서 '동자승 단기출가 삭발 수계식'을 열고 적응 교육을 마친 동자승들을 맞이한다. 조계사는 2차례 면접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단기출가 적응력을 높였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선근선연을 심어주기 위한 동자승 단기출가 및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된다.

속초 신흥사도 5월 3일 동자승 단기출가법회를 열고 5월 22일까지 경찰서를 비롯한 각 지역기관 및 복지시설을 함께 방문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산 내원정사도 5월 15일 동자승 단기출가 행사를 개최한다.

단기출가 외에 유아법회도 다채롭게 열린다. 서울 조계사는 4월 15일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연합 수계법회를 개최했으며, 서울 봉은사는 4월 28일 제7회 유아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서는 해인사와 통도사, 송광사 등 사찰에서 가져온 청정수로 마정수기가 이뤄졌다.

사단법인 동련 또한 5월 26일 제34회 전국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연꽃문화제는 글짓기와 그리기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올해 시제는 '나의 행복', '칭찬', '기도' 등 3가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문화콘텐츠 활성화 위한 템플스테이 열린다

포교원, 웹툰작가 및 만화가와 일러스트작가 초청행사

제2의 '신과 함께'가 나오는 토대가 될까. 조계종 포교원이 웹툰작가와 일러스트 작가를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만화가와 일러스트 작가 등을 초청한 가운데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생산에 있어 불교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템플스테이는 7월 13일과 14일 양양 낙산사에서 웹툰작가 30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2차 템플스테이는 보은 법주사에서 일러스트 작가 30명을 초청해 진행된다.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는 작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6월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02)2011-1918

노덕현 기자

3급 승가고시 수석 성선 · 도원 스님 포상

조계종 고시위 25일 시상… 중덕 · 정덕 법계 품수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4월 25일 교육원장실에서 3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인 성선 스님(비구)과 도원 스님(비구니)를 시상했다.

이날 자리에서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은 "승가고시에서 수석을 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수행의 모범이 되는 종단 일원으로 살아달라"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이날 3급 승가고시 합격자 259명(비구 162명, 비구니 97명)을 대상으로 중덕 · 정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초심을 다시 다져 각자 수행과 중생구제에 진력해 불조의 혜명을 잇고 불법홍포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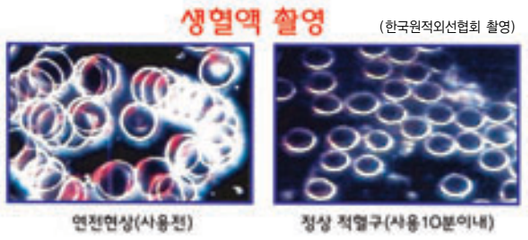
〈알립니다〉 본지 1194호(4월 25일자) 참불선원 육조단경 법회 기사 중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은 참여하지 않았음을 참불선원이 알려왔습니다.

"BLOOD MATE로 손 한번, 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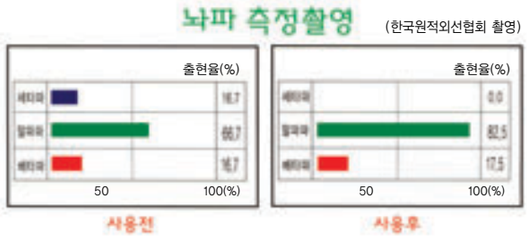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로 한번 씻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혈액 촬영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사용전

발모촉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6개월 후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구강 건강에 별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ORAL MATE를 개발한 41년생 남자인 본인은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 않고 삼키면 구강 건강(모든 잇몸질환) 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 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변이 뜨는, 4년간의 체험담을 공개 합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의 기능 효과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매끄럽고 탄력 있는 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 산소를 발산하며 물 분자를 활성화 하여 청결한 구강
- 각종 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 악취 제거 탁월. 충치 예방과 입냄새 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조계종 첫 불교명상지도사 배출

포교원, 4월 25일
제1회 불교명상지도사 201명 품수

1월 민간자격증 과정 개설
3개월간 명상심화교육 진행
"신심 쌓아 올리는 계기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4월 25일 제1회 불교명상지도사를 취득한 대중들과 관계자, 스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며 손하트를 그리고 있다.

조계종 최초의 종단 인가 불교명상 지도사가 배출됐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 조계종 포교부장)은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회 불교명상지도사 및 제11회 불교상담심리사 품수식'을 봉행했다.

이날 품수식에서는 종단 최초로 인가된 불교명상지도사 201명이 자격을 품수 받아 눈길을 끌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했다.

1급과 2급 과정으로 나뉘어진 불교명상지도사는 다양한 명상 교육에서 강사 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력'이다. 원력을 갖고 꾸준히 정진하다보면 어떤 일이든 이뤄낼 수 있다"며 "불교명상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활동해달라. 또 전법가로서의 사명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도 "건물을 짓는 불사보다 신심을 쌓아올리는 불사가 더욱 중요하다. 신행혁신운동 '붓다로살자'를 마음에 품고 항상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조계종이 발급한 불교명상지도사 자격증은 최근 불교계가 확대하고 있는 민간자격증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명상분야가 일반인들의 관심에 있어 불교수행 분야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활용하는 불교명상 지도자 양성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글트렌드에서도 2014년부터 명상 관련 검색빈도가 불교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불교와 명상의 검색빈도가 비등해진 상태다.

불교 관련 민간자격증은 2013년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상담심리사'를 등록한데 이어 '불교심리상담사', '찬불가 지도사' '불교명상지도사', '불교문화포교사' 등 다양하다. 여기에 더 나아가 명상분야에서는 '방과후학교명상지도사' '자비명상지도자' '차명상지도사' '청소년 마음명상지도사' 등 불교와 접목 가능한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날 불교명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청진행 전영희 씨는 "불교명상에 관심이 있었던 차에 종단에서 인증과정이 생겨 수강하게 됐다. 이렇게 명상과 관련된 자격증까지 따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주변 도반들에게도 불교명상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선미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도 "향후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하는 것과 함께 심화과정도 개설해 전문가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5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되는 1급 불교명상지도사 과정을 모집한다. 불교상담개발원 이메일(jabi7378@naver.com)이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울 도심 숲서 '명상치유' 하세요

명상심리학회, 4~6월 · 9~11월 치유여행 개최

도심에 조성된 숲에서 명상을 통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인경)는 4월 28일~11월 10일 6회에 걸쳐 '명상치유여행 숲, 숲으로 가자! 명상하러!'를 진행한다.

서울 전역에 조성된 5곳의 숲에서 열리는 명상치유여행은 불교명상을 대중에 알리고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수업은 4월 28일 북서울 꿈의 숲에서 '분노 표현하기'를 주제로 열렸다. 그림명상, 오감명상, 동작명상, 호흡명상 등이 실시되며 동진스님, 김광호, 윤미숙, 김다현 강사가 진행했다.

5월 26일은 남산 소나무 숲에서 '애코메디테이션'을 주제로 열리며, 6월 30일은 양재시민의숲에서 '스트레스와 친해지기'를 주제로 열린다. 혹서기인 7~8월에는 휴강하며 9월 15일 뚝섬 서울 숲서 재개된다. 10월 13일에는 북서울 꿈의 숲에서 '나를 찾는 여행'을 주제로 열리며, 마지막 수업은 11월 10일 하늘공원에서 '내 감정 조절하기'를 주제로 개최된다.

6회 참석 시 명상상담 평생교육원 명상심리상담사 자격과정연수 10시간이 인정되며, 우천 등 기상 악화시 서울 삼청동 법련사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medicoun.com)에서 가능하다. 선착순 100명. (02)2236-5306

신성민 기자

"윤이상선생 극락왕생 하시길"

조계종 사회노동위, 5월 2일 추모재

조계종이 나서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5월 2일 오후 2시 경남 통영 윤이상 선생의 묘역에서 추모재를 봉행한다. 이번 추모재는 타계 23년 만에 고향 통영에 안장된 윤 선생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통영 · 고성사암연합회가 주최한다. 부인 이숙자 여사, 딸 윤정씨, 지역 음악인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불교는 윤이상 선생과 인연이 깊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995년 독일서 윤이상 선생의 49재 추모법회를 봉행해준 바 있다. 또한 설정 스님은 당시 49재를 진행하며 고인의 묘비에 '처염상정(處染常淨, 진흙탕 속에 피어나도 결코 더러운 흙탕물이 묻지 않는 연꽃)'이라는 경구를 직접 써줬다. 이는 현재 통영에 있는 묘역에도 새겨져있다.

베를린을 근거지로 음악 활동을 한 윤 선생은 1967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 · 과장된 동백림(東伯林 · East Berlin)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고초를 겪었다.

1995년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타계해 가토우 공원묘지에 묻혔으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3월 고향인 경남 통영 통영국제음악당 인근 묘역으로 옮겨져 안장됐다.

박진형 기자

"종로에 구수한 장 냄새 가득"

4월 24일 종로노인福 장 가르는 날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4월 24일 복지관 5층 장마당에서 지난 3월 담근 장을 된장 · 간장으로 가르는 '우리 동네 장醬 가르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

비구니 스님들이 문화1번지 혜화동에서 우리 고유 풍습인 '장(醬) 담그기'를 알리기 위해 나섰다. 스님들은 물론, 지역민들과 다문화 가정도 한데 모여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보존, 계승하는 자리였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4월 24일 복지관 5층 장마당에서 지난 3월 담근 장을 가르는 '우리 동네 장醬 가르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당사찰음식문화원장 대안 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부단장스님들, 한국비구니복지실천가회스님들 등 비구니 스님들과 장독분양을 신청한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종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도 참여해 종교와 지역을 아울렀다는 평이다.

정관 스님은 "다문화가정과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해 더욱 뜻 깊다. 어르신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젊은 세대가 전통장을 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전통장 문화를 알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 가르기는 60일간 숙성된 메주와 소금물을 분리해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 과정이다. 항아리에서 메주를 꺼내 치대고 소금물은 체에 거른 뒤 각기 다른 항아리에 넣어 된장과 간장을 만든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3월 7일 같은 장소에서 메주 200개로 직접 장을 담근바 있다.

박진형 기자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 서울 종로 이전

접근성 좋아져 내외국인 참여증가 예상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가 서울 목동에서 종로구로 이전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그동안 목동에 있던 향적세계가 5월 종로구 견지동으로 이전한다. 접근성이 좋아져 내외국인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사찰음식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을 배울 수 있는 특별강좌 개설과 사찰음식전문가 스님들의 특강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된다"고 4월 20일 밝혔다. 향적세계가 새로 이전하는 곳은 조계사 맞은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2층이다.

이에 따라 향적세계는 사찰음식전문가 스님들에게 사찰음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2018년 2차 정규강좌 수강생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강좌기간은 5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매주 1회씩 총 12회로 진행된다.

강사진으로는 사찰음식 대가 홍승 스님을 비롯해 도림 · 동원 · 동희 스님 등이 나서며, 여름철 대표 식재료인 오이를 조리하는 방법과 부각 · 만두 · 발효 · 김치류 등 사찰음식을 배울 수 있다.

한편 초 · 중 · 고급강좌 수료자는 '사찰음식전문조리사' 자격증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02)2655-2776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18 머리 빗기. 櫛髮。

○眞人曰, 髮多櫛, 去風明目, 不死之道也。又曰, 頭髮梳百度。

진인(眞人)이 말하기를, "머리를 자주 빗으면 풍(風)이 없어지고 눈이 밝아지니 죽지 않는 도술(道術)이다." 또한 말하기를, "머리에 빗질을 백번 하라."

○陶隱居云, 飽則入浴, 饑則梳櫛多, 浴少益心目。故道家晨梳, 常以百二十爲數。

도은거(陶隱居)가 말하기를, "배부를 때 목욕하고 배고플 때 머리를 많이 빗어라. 목욕을 덜하면 마음과 눈에 유익하다.① **그러므로 도가(道家)에서는 새벽에 일어나 항상 머리를 120번 빗는다.**

○眞人曰, 髮宜多櫛, 手宜在面, 齒宜數叩, 津宜常嚥, 氣宜精煉。此五者, 所謂子欲不死, 修崑崙耳。

진인(眞人)이 말하기를, "머리는 자주 빗어야 좋고, 손은 마땅히 얼굴을 자주 문질러야 하며, 치아는 의당히 자주 부딪쳐야 하고 입안의 침은 마땅히 항상 삼켜야 하고, 기(氣)는 정성껏 수련해야 한다. **이 다섯 방법에 대해, 불사(不死)하기 위해 곤륜(崑崙)을 수련한다고 이른다.②)**

○安樂詩云, 髮是血之餘, 一日一次梳, 通血脈, 散風濕。鎖碎錄云, 亂髮藏臥房壁中, 久招不祥。

안락시(安樂詩)에 이르기를, 머리털은 혈(血)의 나머지 이므로 하루 한 차례 여러 번 빗으면 혈맥(血脈)이 통하고 풍습(風濕)이 흩어진다.

《쇄쇄록(鎖碎錄)》에 이르기를, 빠진 머리카락을 뭉쳐 누워 자는 방의 벽장 속에 간직하여 오래되면 상서롭지 못한 일을 부르게 된다.

○書云, 髮落飮食中, 食之成瘕。宋明帝, 官人腰痛引心, 發則氣絶。徐文宿曰, 髮瘕也。以油灌之, 吐物長二尺, 頭以成蛇, 懸柱上水瀝盡, 惟餘一髮。唐, 甄立言爲太常丞, 有人病心腹滿煩。彌童診曰, 誤食髮而然。令餌雄黃, 吐一蛇如拇指無目。燒之有髮氣, 若頭尾全。誤食必然。

머리카락이 음식 중에 떨어졌는데도 함께 먹으면 가병(瘕病)③)을 이룬다.

송대(宋代)의 명제(明帝)때에 한 관리가 있었는데 요통이 있으면서 심부(心部)까지 잡아당기는 것 같아 발병하면 기절(氣絶)하곤 하였다. 서문숙(徐文宿)이 말하기를, "이는 발가(髮瘕)이다." 관리의 입속에 기름을 부어 넣으니 잠시 후 한 물건을 토하였는데 머리는 뱀 모양으로 길이는 2척(二尺)④)이었다. 기둥에 걸어놓으니 물이 뚝뚝 떨어져 다 마른 뒤에 보니 오직 머리카락 한 올뿐이었다.
당대(唐代)의 진립언(甄立言)이 태상경(太常卿)으로 재직할 때 한 사람이 심부(心部)와 복부가 가득 찬 것 같으면서 답답해하며 고통스러워하였다. 진립언이 진단 후 말하기를, "잘못하여 머리카락을 먹어서 생긴 병이다." 그런 후 웅황(雄黃)⑤)을 먹게 하니 한 마리 뱀 같은 물건을 토했는데 엄지손가락크기에 눈이 없었다. 불태우니 머리와 꼴이 완전한 머리카락이었다. 잘못 먹으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19 대변과 소변. 大小便。

○書云, 忍尿不便, 成五淋, 膝冷成痺。忍大便, 成五痔。

소변을 참고서 배설하지 않으면 5림(五淋)⑥)을 이루고 무릎이 차가워지며 쑤시게 된다. 대변을 참으면 5치(五痔)⑦)가 된다.

○書云, 弩小便, 足膝冷。呼氣弩大便, 腰疼目澁。

소변을 참으면 무릎과 발이 차갑게 된다. 숨을 내뿜을 정도까지 대변을 참으면 요통이 생기고 눈이 따갑고 잘 보이지 않으며 눈물이 흐른다.

○書云, 或飮食, 或走馬, 或疾走, 或爲寒熱所迫, 令胞轉, 臍下痛。胞屈辟, 不小便致死。

소변을 참은 채 음식을 먹거나 걷거나 달리거나 말 타거나 추위나 더위를 겪으면 전포(轉胞)가 되어 배꼽아래가 아프다. 포(胞)가 구부러져 위축되어 있는데도 소변을 보지 않으면 죽는다.

○書云, 大小二事, 勿强閉抑忍, 又勿矢度。或澁或滑, 皆傷氣害生, 爲禍甚速。劉惟簡至乾寧軍, 有人獻金花丸以縮小便, 藥把砒蠟。服三日, 小便極少。至覇州肢體通腫。蓋被閉却水道, 水溢妄行。不遇盧昧, 幾爲所誤°蓋水泉小止者, 膀胱不藏也。宜服暖劑以攝水, 其可强止之耳。

대소변을 보는 일을 억지로 참으면 안 되고 또한, 절도를 잃어서도 안 된다. 대소변이 조금씩 새거나 자주 조금씩 배설하는 경우에는 모두 기(氣)가 상하여 생명에 해가 되었으니 그 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

유유간(劉惟簡)이 건녕군(乾寧軍)의 진영에 갔을 때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어 어떤 자가 이를 치료하라고 금화환(金花丸)을 바쳤는데 실은 제련(制煉)한 비상(砒霜)⑧)을 밀랍에 버무린 알약이었다. 먹은 지 3일이 되니 소변 양이 극히 감소되더니 패주(覇州)에 이르렀을 때는 팔다리와 온몸이 부었다. 이는 도리어 수도(水道)를 막아 그 물길이 다른 곳으로 넘쳐 망령되게 행하여 올바르게 통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제대로 추스르는 약을 먹지 못해 잘못된 것이다. 대저 소변을 자주 보는 자는 방광에서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온난(溫暖)한 약을 먹어 몸을 추슬러야 하는데 억지로 그치게 하면 되겠는가?

○鎖碎錄云, 對三光便溺, 及向西北, 並損人年壽。

《쇄쇄록(鎖碎錄)》에 이르기를, 해 · 달 · 별 · 서쪽 · 북쪽을 향하고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수명이 깎인다.⑨)

※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198-5351

전국 수놓는 오색 연등물결… “어디서나 만나요”

2018 연등회 지방봉축행사 일정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국가공휴일 공식명칭이 석가탄신일에서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된 이후 처음 맞는 봉축이어서 한층 환희 넘치는 연등회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앙 서울 연등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해서 아쉬워하진 말자. 지혜와 자비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연등행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우선 불도 **부산**의 연등축제는 5월 1일부터 13일까지 총 13일간 펼쳐진다. 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점등식은 1일 저녁 송상현 광장 야외특설무대서 열렸다. 이와 함께 총 장엄등을 비롯한 전시등이 터널과 거리를 환하게 밝혔다. 전통문화체험과 공연, 무차만발공양 등도 예정돼 있다. 행사의 백미인 봉축대법회와 연등행렬은 12일 부산시민공원서 거행된다.

울산은 12~13일 태화강 둔치 일원서 연등축제를 개최한다. 12일 저녁 야외특설무대에서 봉축점등식을 실시하고, 13일 부처님 이운행렬을 비롯해 봉축법요식과 제등행렬이 펼쳐진다. 특히 부처님 이운행렬 재연에 참가할 시민들의 신청도 접수해 눈길을 끈다. 이운행렬 재연은 오후 5시 태화루를 출발해 봉축법요식 행사장에서 마무리된다.

대구는 청소년 문화축제와 관등놀이, 연등행렬 등은 6일부터 19일까지 이어간다. 먼저 6일에는 수성못 상화동산서 청소년 문화축제를, 16~18일에는 코오롱 야외음악당서 달구벌 관등놀이를, 19일에는 두류야구장서 연등회 및 연등행렬을 선보인다.

인천은 7일 ‘인천시민을 위한 행복나눔 미추홀 연등축제’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서 개최한다. 각종 문화체험부스를 비롯해 인천시민들의 재능기부로 꾸민 ‘재능기부 축제한마당’도 진행된다. 이후 수륙영산대재와 연합합창단 공연, 봉축법요식, 제등행렬이 펼쳐지며 힐링음악회로 막을 내린다.

광주는 3일 5.18민주광장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석탑을 본떠 만든 봉축탑을 점등한다. 이후 24일까지 광주천에서 빛고을관등회 전통등 전시회를 실시하며, 12일 본행사를 통해 어울림마당 · 관등법회 · 제등행진 · 대동한마당 등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서 문화체험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열린 연등회에서 참가자들이 수박등 · 팔모등 등을 들고 연등행렬을 즐기며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모습. 사진제공=연등회보존위

〈지방 봉축위원회 행사 일정표〉

지역	봉축위원회	행사명	일 시	장 소
광역시	부산	부산연등문화제	5월 1~13일	부산시민공원
		부산연등회	5월 12일	
	부산(기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5월 22일	기장중학교
		문화체험행사 · 문화공연		
	대구	청소년 문화축제	5월 6일	수성못 상화동산
		달구벌 관등놀이	5월 16~18일	코오롱 야외음악당
		연등회 및 연등행렬	5월 19일	두류야구장
	인천	미추홀 연등축제	5월 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강화)	강화연등축제	5월 12일	강화문예회관
	광주	봉축탑 점등식	5월 3일	5.18민주광장
		전통등전시회	5월 3~24일	광주천
		관등법회 · 연등행렬	5월 12일	아시아문화전당
강원	속초	점등탑 점등식	5월 4일	소방서앞 전광탑
		신흥사배 축구대회	5월 19~20일	속초시종합경기장
	진부	진부연등법회	5월 12일	진부 일원
경기	고양	고양연등문화축제	5월 17일	화정중앙공원
	군포	봉축 댄스경연대회	5월 13일	로데오거리
		봉축법요식		
	김포	경기서부권 연등축제	5월 12일	한옥 아트빌리지
	남양주	봉축법요식	5월 15일	남양주시청 다산홀
	동두천	108산사음악회	5월 13일	자재암
	부천	경찰서 점등식	5월 9일	각 경찰서
		택시 제등행렬	5월 22일	석왕사
	수원	연등축제	5월 19일	수원화성행궁
	안산	한마당어울림	5월 13일	문화광장
		제등행렬		안산시내

지역	봉축위원회	행사명	일 시	장 소
경기	안양	봉축점등식 · 연등축제	5월 5일	평촌중앙공원
	오산	연등축제	5월 22일	오산시청광장
	용인	시민연등축제	5월 13일	용인실내체육관
	이천	불교봉축행사	5월 13일	설봉공원
	포천	연등축제	5월 15일	체육공원
	하남	공연문화 · 제등축제	5월 13일	하남문화예술회관
		군법당 공양	5월 20일	군법당 비천사
		봉축맞이 공양		하남문화예술회관
	화성	경기도연등축제	5월 13일	동탄 센트럴파크
경남	거창	봉축대법회 · 연등행렬	5월 12~13일	로터리 · 강변
		1004 성금전달		
		점등식 · 봉축공연		
	고성	봉축점등식	5월 4일	강병원 앞 사거리
	김해	연등회	5월 12일	대성동 고분군
	밀양	봉축법요식	5월 12일	강변둔치
	통영	연합 봉축대법회	5월 17일	문화마당
	합천	봉축법요식	5월 22일	연호사
경북	군위	봉축점등식	5월 13일	군위광장
	문경	연등축제	5월 12일	모정공원
		어르신 나들이	6월	충청도
	성주	법요식 · 연등행렬	5월 4일	삼산1길
	안동	봉축법요식 · 연등행사	5월 22일	웅부공원
	영주	연등축제	5월 19일	영주초등학교
	영천	연등축제	5월 12일	금호강변 분수광장
	예천	개심사지연등회	5월 12일	개심사지 5층석탑
	청송	봉축점등식	5월 10일	소헌공원

지역	봉축위원회	행사명	일 시	장 소
경북	경산	전통문화 연등축제	5월 11일	경산시민체육관
	의성	봉축법회	5월 15일	의성문화회관
전남	구례	봉축법요식	5월 12일	국립공원 주차장
	나주	연등문화축제	5월 19일	풍물시장 주무대
	순천	전통등 콘테스트	5월 12~13일	조례호수공원
		봉축법요식	5월 13일	
	여수	봉축점등식	5월 2일	시청 앞 광장
		의승수군출전식	5월 4일	여수시내
		수륙대재	5월 5일	해양공원
전북	군산	연등축제	5월 12일	수송체육공원 축구장
	김제	거리연등축제	5월 18일	시청 쌈지공원
	익산	연등축제	5월 20일	중앙체육공원
	전주	전북불교합창제	5월 13일	수현사
		연등축제	5월 19일	시청광장
		청소년 모악축제	5월 26일	금산사
충남	당진	봉축법요식	5월 13일	문예의전당
		청소년 문화예술경연		
	서산	해미읍성 연등축제	5월 6일	해미읍성
	예산	예산군 법요식	5월 12일	예산역 광장
	태안	태안군 점등식	5월 10일	태안여고 앞 로터리
	홍성	연등문화축제	5월 11일	북개주차장
충북	옥천	향수공원 법요식	5월 13일	향수공원
제주	서귀포	제등행렬	5월 12일	서귀포시 일원
	제주	제주낙화놀이	5월 11일	제주시내
		봉축대법회 · 제등행렬	5월 12일	제주 종합운동장
		니르바나 문화축제	5월 21일	관음사 대웅전 앞

홈페이지 www.maumtour.com 문의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조계종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
인증번호 : 대불교연인 2018-030호

2018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접수마감 ※ 선착순 모집
6월 30일 까지

법회일정 2018년 9월 4일 ~ 9월 7일(4일간)
법회장소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 관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8월 28일(화) ~ 9월 9일(일)
A팀 달라이라마 법문 & 스리랑카 순례 13일
35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8일(화) ~ 9월 9일(일)
B팀 달라이라마 법문 & 부탄 성지순례 13일
41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9월 02일(일) ~ 9월 9일(일)
C팀 불교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법문 8일
1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7일(월) ~ 9월 9일(일)
D팀 달라이라마 법문 & 인도 성지순례 14일
2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문화교실

미술작품을 연구할 때 문헌사료는 매우 중요하다. 고대 미술작품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작품은 감상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 불교미술사서 불교미술의 기준작으로 확고히 정착한 석굴암을 삼국유사를 근간해 분석하는 강연이 펼쳐졌다. 한정호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4월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역사문화교실에서 '〈삼국유사〉와 석굴암'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진형 기자

"〈삼국유사〉알면 석굴암을 알 수 있다"

주제 : 〈삼국유사〉와 석굴암

한정호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한정호 교수는… 동국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했으며 전공은 불교미술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수석학예사, 동국대학교 박물관 전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백제사찰연구〉〈유물로 본 신라 황룡사〉등이 있다.

미술사 연구에는 사료가 가장 중요해…
석굴암은 〈삼국유사〉통해 시기 밝혀져
역사적 '기준작'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한국 불교미술사에서 석굴암은 8세기 중엽 신라 불교미술의 기준작으로 확고하게 정착됐습니다. 따라서 절대연대가 확인되지 않은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품은 석굴암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제작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석굴암이 8세기 중엽의 기준작으로 설정된 근본적인 원인은 13세기 말에 편찬된 〈삼국유사〉권 제5 효선 제9 '대성효이세부모조(大城孝二世父母條)'의 천보(天寶)10년(751) 불국사 창건기록에 근거합니다.

〈삼국유사〉의 석굴암 창건기록 분석

〈삼국유사〉 권5 효선편에 실려 있는 '대성효이세부모조'는 석굴암 창건에 관한 최고의 기록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석굴암 창건배경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 기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대성효이세부모조'는 〈향전(鄕傳)〉과 불국사에 전래되던 〈사중기(寺中記)〉를 바탕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내용의 많은 부분은 〈향전〉을 인용한 듯 보입니다.

모량리의 가난한 여인 경조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머리는 크고 이마가 평하여 성과 같으므로 대성(大城)이라 이름했다. 집이 가난하여 생활할 수 없었으므로 부자 복안(福安)의 집에 고용살이를 해 그 집에서 약간의 밭을 받아 의식의 비용으로 삼았다. 그때 개사(開士) 점개(漸開)가 육륜회(六輪會)를 흥륜사에서 베풀려고 하여 시주를 얻고자 복안의 집에 왔다. 복안이 베 50필을 보시하니, 점개가 축원하여 말하기를 "단월이 보시를 좋아하니 천신이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며 하나를 보시하여 만 배를 얻고 안락하여 장수하소서"라고 했다. 대성이 이를 듣고 뛰어 들어가 어머니에게 "제가 문간에 온 스님이 외우는 소리를 들으니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우리는 분명히 전생에 선업이 없어 지금 이렇게 곤궁한 것인데, 지금 또 보시하지 않으면 내세에는 더욱 곤란할 것이니, 제가 고용살이로 얻은 밭을 법회에 보시해서 뒷날의 응보를 도모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다. 어머니는 허락했고 이에 그 밭을 점개에게 보시했다. 얼마 후 대성이 죽었는데, 이날 밤 국상(國相) 김문량의 집 하늘에서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지금 네 집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이에 임신해 아이를 낳으니 7일 뒤 왼손에 금간자(金簡子)가 있어 대성이란 두 글자가 새겨져 있어 이것으로 이름하고 그 어머니를 집에 모셔와 함께 봉양했다.

이야기 속의 인물로 대성의 어머니인 경조와 부자 복안, 승려 점개를 등장시켰는데 '경사스러운 조상', '복 많고 평안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조와 복안은 실존인물이라기 보다는 설화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작위적인 작명으로 보입니다. 흥륜사의 승려로 그려진 점개 또한 승려의 법명으로는 생경한 이름으로 대성을 보시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이야기의 발단을 제시하는 역할에 맞게 설정된 이름으로 볼 수 있죠.

등장인물 가운데 실존 인물은 김대성과 김문량인데, 이들은 각 경덕왕대 중시(中侍)를 역임한 김대정과 성덕왕 때 중시였던 김문량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료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설화가 형성된 시점과 기저에 깔려있는 설화의 형성배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위의 기사에서 등장인물을 제외하고 설화의 형성시기와 배경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는 승려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된 개사(開士)와 육륜회(六輪會)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개사는 원래 불교경전에서 보살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개사가 보살에 대한 지칭에서 고승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된 용례를 검토한 결과 모두 고려시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야기는 점개가 흥륜사 육륜회에 시주를 권선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점개가 말한 보시에 대한 공덕으로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 배를 얻게 된다"는 '만 배 이익' 역시 〈석가여래행적송〉의 "봄에 한 알의 씨를 뿌리면, 가을에 만 알의 열매를 거둔다"와 같이 고려후기 불교계에서 주로 등장합니다.

한편 육륜회는 '점찰참회법'의 일종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육륜회라는 용례는 본 자료가 유일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육륜법의 점괘에만 중심을 둬 점찰법회가 육륜회로 격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륜회는 세 종류의 점찰법 가운데 6륜상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6륜상법은 숫자가 기입된 6개의 목륜을 던져 나오는 숫자에 따라 삼세(三世) 중 받아야 할 선악을 점찰하는 것으로 전세와 현세로 이어지는 김대성의 윤회와 연결됩니다. 대성이 흥륜사의 육륜회에 보시한 결과 국상 김문량의 집에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가 대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등장시킨 7일이라는 기한과 금간자(金簡子)는 고려시대에 유행한 점찰신앙과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토함산에서 행했던 살생에 대한 참회와 회향의 의미를 담은 장수사, 불국사, 석불사의 창건 역시 점찰신앙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향전〉에서 인용한 김대성 설화는 고려시대 점찰신앙을 배경으로 형성된 설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장성하자 사냥을 좋아했는데, 하루는 토함산에 올라가서 곰 한 마리를 잡고 산 밑 마을에서 잤다.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하여 책망하여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내가 도리어 너를 잡아먹겠다"고 하니, 대성이 두려워서 용서해주기를 청했다. 귀신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절을 짓겠느냐?"고 하니 대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깨어보니 땀이 흘러 요를 적셨다. 그 뒤로는 사냥을 금하고 곰을 위하여 장수사(長壽寺)를 곰 잡았던 곳에 세웠다. 이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되는 바 있어 자비의 원력이 더욱 두터워 이승의 양친을 위하여 불국사를 세우고, 전세 부모를 위하여 석불사(석굴암)를 세워 신림(神琳), 표훈(表訓) 두 성사를 청하여 각 거주하게 했다. 불상의 설비를 크게 펴서 양육한 수고를 갚았으니 한 몸으로 두 세상의 부모에게 효도한 것은 옛적에도 듣기 드문 일이다. 착한 보시의 영험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장차 석불을 조각하려고 큰 돌 하나를 다듬어 감실의 뚜껑을 만들다가 돌이 갑자기 세 쪽으로 깨졌다. 대성이 분해하다가 잠들었더니, 밤중에 천신이 내려와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 대성이 막 일어나 남쪽 고개로 쫓아가 향나무를 태워 천신을 공양하였다. 이로써 그곳을 향령(香嶺)이라고 하였다. 불국사의 운제와 석탑은 돌과 나무를 조각한 기공이 동도의 여러 절 가운데 이보다 나은 것은 없다.

이어지는 장수사, 불국사, 석불사의 창건은 신앙적으로 회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인물에 의해 세 사찰이 동시기에 건립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동일 발원자에 의해 인근에 창건된 사찰이라면 세 사찰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앞서는 석가탑 발견 중수문서 가운데 1024년에 작성된 〈무구정광탑중수기〉에는 여러 사찰의 승려들이 동참하지만 장수사와 석불사에 승려들이 관여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1038년에 작성된 〈서석탑중수기〉에 여러 사찰의 시주품목을 거명하는 가운데 석불사의 승려 언응(彦應)이 콩 4두를 시주했다는 정도로 기록되어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는 사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기록대로면 김대성이 창건한 세 사찰 가운데 가장 먼저 건립된 사찰은 장수사입니다. 불국사 다보탑 중수기록에 해당하는 〈무구정광탑중수기〉에 석탑을 중수하기 위해 필요한 석재를 장수사 근처에서 옮겨왔다는 기록으로 볼 때, 장수사가 불국사 인근에 위치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장수사지로 추정되는 마동사지에는 9세기 전반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석탑이 남아있습니다. 이 절터가 장수사지인지 불분명하고, 석탑이 후대에 건립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세 사찰이 동시기에 건립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석굴암 건립 당시 세 조각으로 파손된 천개석을 천신의 도움으로 완성했다는 내용은 김대성이 석굴암을 창건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지엽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장차 석불을 조각하고자 하여(將彫石佛也)'라는 대목은 석굴암 축조과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석굴암은 본존불을 먼저 봉안한 상태에서 석실 축조가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천개석이 세 조각으로 쪼개진 상태로 시설되었다는 점도 엄정한 불교의 장엄법식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천개는 불상의 하부를 장엄하는 대좌와 배경을 장엄하는 광배와 더불어 불상의 상부를 장엄하는 중요한 장엄구이죠. 더구나 석굴암의 천개석은 석실장엄의 정점이기 때문에 만약 천개석이 설치되기 전에 깨졌다면 다시 만드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석굴암 수리 당시 전면해체공사였음에도 천개석만은 철테를 둘러 고정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죠. 조각난 상태의 천개석을 올려놓는 작업이 석실의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천개석과 관련된 설화는 석굴암 창건이후 어느 시점에서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개석에 금이 간 상태에서 파생된 설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1세기에 공룡이?… 생명 탐욕 경계해야

⑨ 합성생물학과 생명의 인연


영화 〈쥬라기공원〉의 한장면. 합성 생물학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혹은 이것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대표적인 기술이 생명공학 분야이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의 등장으로 유전공학은 응용 분야를 넓히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생명 창조에 도전하는 합성생물학은 논란을 일으키며 성장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면 대중들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영화 〈쥬라기공원〉에서 6천만 년의 시간을 거슬러 되살아난 공룡들과 영화 〈아바타〉에서 판도라 행성 자원탐사대의 비밀병기로 탄생한 아바타를 떠올리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공룡들을 살려내고 아바타는 만든 기술이 합성생물학이다.

합성생물학이란 무엇인가?

〈쥬라기공원〉에서는 공룡의 피를 빨고 호박 속에 갇혀 있는 모기들로부터 채취한 공룡의 DNA로 공룡을 복원했지만, 2005년에 과학자들은 실제로 1918년에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다 사라진 스페인독감 바이러스를 알래스카 영구 동토층에 매장된 90년 전 독감 피해자의 시신에서 채취한 바이러스 DNA로 스페인독감 바이러스를 복원해냈다.

합성생물학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생명의 구성요소들을 재설계하거나 재구성하는 생명공학적 연구 영역이다. 합성생물학 분야의 첨단 연구자들 가운데는 자연의 재구성이나 재설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연 속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학적 구성요소들로 생명을 창조하려고 시도하거나 자연 속의 생명체를 모방하여 독자적으로 완전한 생명체를 창조하려고 시도하는 이들도 있다.

합성생물학은 전통적인 생물학과 같은 영역의 대상을 다루고 있지만 그 대상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 현상을 관찰하고 그 바탕에 깔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학적 처치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성격상 합성생물학은 생물학에 다양한 공학, 즉 유전공학,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이 융합된 학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근까지 생명은 초월적인 존재의 영역이었다. 과학적으로 생명 현상에 접근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명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이론은 없다. 특히, 서양의 기독교 전통은 생명을 유일신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합성생물학은 기독교 전통의 종교와 문화로부터 공포와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합성생물학에 어떤 위험이 잠재해 있는가?

기독교 전통에서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합성생물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 유행한 용어 가운데 'DIY 생물학'이라는 것이 있다. 합성생물학은 비교적 적은 비용과 시설을 활용해서 실행할 수 있다. 예컨대,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미국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은 바이오테러에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 국가나 테러집단이 합성생명체를 이용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예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터커와 질린카스는 이런 상상보다 고독한 연구자 시나리오와 바이오해커 시나리오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독한 연구자는 고도로 훈련된 합성생물학 전문가가 원한으로 인해 합성생명체를 유포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바이오해커는 합성생명체 제조가 큰 비용과 설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자신의 능력 과시를 위해 합성생명체를 만들고 유포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합성생명학은 생물안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연적인 생명체가 아닌,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합성생명체가 자연에 방출될 경우에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또한 자연적 유전자풀을 오염시킬 것이다. 자연 유기체와 인공 유기체 사이에 유전자 교환이 일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 자연종의 유전체가 훼손될 것이다. 더욱이 합성생명체 폭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나노기술에서 말하는 잿빛 덩어리 지구 시나리오의 생물학 버전이다. 합성생명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지구 생태계가 합성생명체로 뒤덮이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합성생명체자 자연에 대량 방출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다.

> **생물안정성에 부정적 역할**
>
> **자연흐름깨고 악업 쌓는 것**
>
> **악용 방지 위한 공동 노력 필요**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합성생물학 연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합성생물학이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합성생물학은 의료,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다. 불치의 유전질환 치료법 개발이나 약물 개발, 박테리아를 통한 바이오연료를 생산 등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적 이득을 산출할 것이며, 다른 공학 기술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로 합성생물학을 꼽는 것은 당연하다.

인공 생명체도 인연의 결과일까?

생명 현상이나 생명체에 해당하는 불교 용어는 중생(sattva)이다. 그리고 중생은 범부, 유정, 중연화합생으로 구분된다. 범부가 인간에 해당하고, 유정이 생물에, 중연화합생이 생태계를 비롯한 존재자 일반에 해당한다. 세계의 존재와 생명 현상은 연기의 개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일체의 존재는 인연화합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존재하는 것들과 생명 현상에서 그 결과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 혹은 내재적 원인이 인(因)이고, 부수적인 원인 혹은 외재적 간접조건이 연(緣)이다. 인간을 비롯한 일체 존재와 생명 현상의 변화과정은 어려 가지 원인이나 요소들의 이합집산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연기란 이런 수많은 요소들의 상호 관련성 혹은 상호 의존관계를 가리킨다.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단 하나도 홀로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만은 독자적으로 실재한다고 믿는 것으로 자아가 있다. 특히 서양의 근대적 사고방식은 자아의 독립성과 절대성을 주장한다. 불교는 무아를 주장한다. 자아 또한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실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만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온갖 인연이지 물(物)이 아니다. 고정된 어떤 것으로서의 물(物)은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본래적 실재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한 사물도 인연을 통하지 않고는 현존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생명이 인연 없이 생겨날 수는 없다.

합성생명체도 수많은 인연들로부터 생겨난 것일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합성생명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그에 앞선 인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합성생명체 자체도 인연의 결과라고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불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수용적이어야 하고, 비판적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합성생명체를 인연 없이 만들어진 생명이라고 보고 싶다. 인연의 결가라기보다는 탐욕의 소안이 아닐까? 생명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다. 생명을 실체적 현상으로 보는 이들이 생명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생명을 합성해내기까지 하는 오늘날에도 생명에 대해 엄밀한 정의를 얻지 못했다. 그건 아마도 생명이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생명을 인공적으로 창조하려는 것은 흘러가는 것인 생명을 붙잡으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명체나 생명 현상은 수많은 요소들의 관계의 산물이다. 일체 존재는 복잡다단한 인연의 그물 속에 있으며, 인연 관계를 이루는 조건들은 모두 관계의 한 항으로 있을 뿐이고 어느 하나도 그 관계를 벗어나서 실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태아가 형성되는 것도 중유를 포함한 삼사(三事)가 화합하여 일어나는 일이다. 실체적 요소로서 중유나 식(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합이라는 과정적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다. 불교적 관점의 핵심은 인연의 관계이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조건적인 요소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 조건적 요소들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항으로서만 존재한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을 생명의 요소들을 통해 이해한다. DNA나 유전자, 세포 등이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런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생명체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이런 이해 방식을 통상 환원주의라고 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환원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존재하는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이 없으며, 설령 현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을 몇 가지 필수 구성 요소들로 소급해 설명하지 않는다. 특히, 생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생명 현상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필수 구성 요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생명 현상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들과 외부 요인들의 관계를 통해서만 설명된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와 생명 현상은 그러한 인연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합성생물학은 인류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첨단 기술이다. 하지만 합성생물학에 잠재된 위험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성생명체의 생산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고 탐욕으로 인해 화를 악업을 쌓는 일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합성생물학의 선용을 위해 연구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헌(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감사의 인사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4월 18일(음 3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혜안스님
큰 오빠이신 김우경님의 장(葬)을 여법하게 봉행하였습니다.

먼길까지 찾아와 주신 대덕스님들,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 조전 등으로 조의를 표해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지면으로나마 인사 올림을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62(2018)년 5월 2일

49재 일정

일 시	2018년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울산 한마음선원

문의 : ☎ 052)295-2335

아들 : 김효진, 김진해, 김진선, 김진규 며느리 : 장숙화, 박선기, 장숙진 딸 : 김진순 사위 : 김흥석 유족 일동

사부대중 관심, 성보 환수의 시작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⑧ 고흥 수도사의 도난 성보

스님들의 수행처인 암자(庵子)는 사찰 주변에 인적이 드문 곳에 주로 세워졌다. 대부분의 사찰은 3~4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암주(庵主)를 임명해서 운영해왔다. 암자의 성보문화재 도난은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에 여러 번 보도됐다.

1917년 1월 21일자 〈매일신보〉에 "충남 공주군 계룡면 하대리 김춘학(金春學, 35)은 김호준, 이덕진과 공모하고 1912년 4월 29일 밤 각각 방망이를 가지고 거촌면 사자암에 침입하여 승려 몇 명을 난타하고 불단 위에 있는 도금아미타불 일체를 강탈…"이나 1932년 2월 7일자 〈동아일보〉에 "경남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정취암에 지난 음력 12월 19일 밤 강도 2명이 침입하여 그때 마침 절을 지키고 있던 강강업(姜康業)을 무수히 난타한 후, 금불(金佛)을 강탈 도주하였다"라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산 속 암자들 좋은 도굴 대상
일제~현대 도굴꾼 침범 이어져

칠성도 · 아미타삼존도 · 불상 등
고흥 수도사도 3점 성보 도난
도난 유사 불화 미술전에 출품

암자 성보, 조사 내용 · 사진 적어
연구 · 관심만이 환수하는 지름길





고흥 수도암에서 도난된 칠성성군도(사진 왼쪽)과 2009년 열린 한국고미술대전-진짜와 가짜의 세계에 출품된 '주천열요무량성군중도'(사진 오른쪽). 수도암 칠성성군도의 방제 역시 '주천열요무량성군중도'였으며, 도상의 배치가 출품된 작품과 같다.



고흥 수도암 목조여래좌상(도난, 문화재청 제공)



고흥 수도암 아미타삼존도(도난, 문화재청 제공)

일제강점기 사찰에서는 주로 고려시대에 금속제로 만들어진 불상이 도난당했고, 중개상을 거쳐 일본인 수집가 등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러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 후기 불상과 불화가 도난당했다.

전남 고흥 수도암은 능가사와 금탑사와 더불어 전남 고흥을 대표하는 불교사찰이다. 조계종이 지난 2016년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에 따르면 현재 수도암에서 도난당한 성보문화재는 칠성성군도(1990.9.27), 아미타여래좌상과 아미타삼존도(1990.10.30.)이다.

수도암은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41번지 운암산에 위치한 암자로, 조계종 제21교구의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이다. 창건에 관한 기록은 정확하지 않지만, 1699년에 작성된 〈흥양모악산중흥사수도암불량기(興陽慕岳山中興寺修道庵佛糧記)〉에 의하며 수도암은 중흥사(中興寺)로, 해잠영허(海岑映虛)가 모악산(운암산의 옛 이름) 중턱에 있던 은적사(隱蹟寺)를 옮겨 중흥사로 사찰 명칭을 바꾸었다.

1735년에 작성된 〈수도암중건상량문(修道庵重建上梁文)〉에 의하면 '1732년 봄에 퇴락한 암자를 계연(戒演)스님 등이 뜻을 세우고 권선하여서 수십 석재와 곡식을 모았으나, 소나무는 벌채가 금지되어 본사의 전각을 옮겨 수도암을 중건하였다' 고 했다. 19세기 중엽에 수도암은 칠성각을 짓고 1860년에 7점의 칠성도를 조성하였다.

근대 수도암에서 소장한 성보문화재는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재산대장과 1933년 4월에 게재된 재산대장이 남아있어 시기별 소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1990년 9월에 칠원성군도 중 방제가 '주천열요무량성군중(周天列曜無量星君衆)'이라 붙은 불화가 도난당했다. 칠성도는 밤하늘의 별자리에 대한 신앙을 불교회화로 표현한 것으로, 북두칠성과 성군에 대한 신앙은 〈운수단(雲水壇)〉과 〈예참문(禮懺文)〉 등 17세기 간행된 불교 의식집에서 '칠성청(七星請)'이라는 절차로 정비됐다.

칠성에 대한 의례에는 주존으로 '금륜보계치성광여래불(金輪寶界熾盛光如來佛)'을 청하고 좌보처로는 소재보살(消災菩薩)을, 우보처로는 식재보살(息災菩薩)을 청한다.

수도암 칠성도 화면 외곽에 그려진 붉은 방제에 기입된 명문은 '칠성청'에서 봉청되는 칠불의 명호를 따른 것이다. 전각의 중앙에는 치성광여래,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북두칠성과 자미대제가 도해된 치성광여래도를 두고, 좌측과 우측으로 각 3폭씩이 걸려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불화는 기연(錡衍)을 수화승으로 영담(影潭), 선종(善宗) 등 12명의 화승이 그린 작품으로, 기연은 19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걸쳐 활동한 스님이다. 그런데 도난당했던 '주천열요무량성군중도(周天列曜無量星君衆圖)'가 2009년에 개최한 '한국고미술대전-진짜와 가짜의 세계'에 출품되었다.

이 두 작품은 12명의 성중들의 배치와 자세가 동일하고, 배경의 구름 처리와 채색도 같다. 도난 이후 화단 중앙의 성중이 입은 옷에 칠한 청색 안료가 박락되어 떨어진 면적이 더 넓어졌다.

1990년 10월 30일 도난당한 아미타삼존도는 앉아있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서 있는 구도이다. 1990년에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대웅전 향좌측에는 1860년 3월에 조성된 아미타삼존도가, 향우측에는 지장시왕도가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고흥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 1991). 이 두 불화는 같은 해 정월에 고흥현감 박영찬(朴永贊)의 시주로 7폭으로 구성된 칠성도를 완성한 이후에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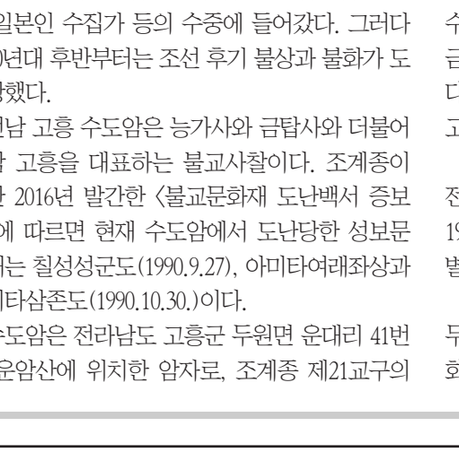
아미타삼존도와 같이 도난당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머리에는 뾰족한 나발(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肉)가 표현되고, 이마 위에 주판알 같은 중앙계주(中央 珠)와 정수리 부위에 낮은 정상계주(頂上 珠)가 있다. 오른손은 무릎 밑으로 내려 촉지인(觸地印)을, 왼손은 무릎 위에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수인은 조선후기 석가불의 수인으로 일제강점기에 존명을 다르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바깥쪽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 대의자락이 완만하게 펼쳐져 있고, 편삼을 두르지 않은 변형통견으로 입고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몇 가닥으로 완만하게 펼쳐져 있다. 이 불상은 인상이라 착의법 등에서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색난 스님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수도암이 중건된 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가 도난되기 이전 큰 사찰에 비하여 암자에 봉안된 문화재는 사진이나 조사 내용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연구가 깊어지면서 유물의 제작에 관련된 추론이 가능하여 조성 시기와 작가를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사찰의 소임을 맡은 스님이나 신자들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도난문화재의 현황 파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 · 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저자 직강)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하심, 스님 리더십을 형성한다

〈下心〉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⑧ 불교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우리말로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불린다. 교회에서 통용되던 이 말은 기업체의 리더십 교육에서 인용되더니, 어느 순간부터 일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교회에서 섬김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우선 생각할 수 있으나 서번트 리더십에서의 섬김은 목회자가 신도를 섬기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서번트 리더십은 미국의 통신회사 AT&T에서 경영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했던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가 1977년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소설 〈동방순례(Die Morgenlandfahrt)〉를 읽으면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그린리프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불현듯 '지도자로서의 서번트'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추종자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섬기는 마음과 자세에서 리더십을 찾은 것이다.

〈동방순례〉는 신비로운 순례길에 나선 여행단의 이야기이다. 주인공 레오(Leo)는 여행단의 잡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서번트(servant, 시종)로서 여행단의 일원이 되지만, 여행단이 지치고 힘들어 할 때에는 노래를 불러 활기를 불어 넣어준다. 덕분에 여행길은 순조로웠다. 그러나 레오가 사라지면서 여행단은 혼란에 빠지고 결국 여행 자체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서번트 레오가 없이는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 평범하였지만 그의 평범함은 평범함이 아니었던 것이다.

여행단의 일원이자 이 소설의 화자(話者)는 몇 년을 방랑한 끝에 마침내 다시 레오를 재회하게 되고, 그 여행을 후원한 교단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서번트로만 알던 레오가 실제로는 그 교단의 우두머리이자, 정신적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레오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도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섬기고 스스로를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서번트'였던 것이다. 그린리프는 이러한 레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섬기는 리더의 모습을 찾고 그 리더십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1977년, 그 내용을 담은 〈Servant-Leadership〉을 출간하였다.

일명 '섬김의 리더십'으로 불리는 서번트 리더십은 기존까지 리더십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손꼽히는 '보스(boss)형 리더'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동방순례〉의 레오를 통해서 지도자 혹은 리더란 '이끄는 사람'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먼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변한 것이다. 그린리프에 의하면, 서번트 리더는 처음에는 서번트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진정으로 상대를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 섬김은 이내 상대를 감화시켜 추종하게 만든다. 서번트가 리더가 되는 것이다. 권위와 이익을 우선시 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섬기는 자세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섬김은 절집의 하심(下心)과 다르지 않다. 하심이란 '자신을 낮추어 남을 존경한다'는 뜻이다. 나를 낮추는 하심(下心)은 스스로를 비우기 때문에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남을 우러르고 존경하기 때문에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다. 하심은 자신과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

하심을 갖추기 위해선 상(相)이 없어야 한다.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상이 없으면 부처요. 상이 있으면 중생이다(無相卽佛 有相卽衆生)'라고 하였다. 어리석은 중생은 늘 상에 얽매인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라는 자만심, 그리고 '나는 부자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감 등이 바로 아상(我相)이다. 어리석은 중생은 늘 이런 아상에 얽매인다. 아

우월감 · 자만심이 '아상' 형성
'권위' 버리고 '위엄' 찾아야
상하주종 틀 바꿀때 신심 증장

상이 강하면 나 중심으로 살기에 남을 배려할 줄 모르게 된다.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선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화를 내면서도, 내가 남을 무시하는 일에 대해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아상이 강하면 하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상을 없애기 위해선 하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와 내 것, 그리고 내 생각에 대한 자만심과 교만감, 우월감 등이 아상이기에 이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을 우선 가져야 한다. 내세우지 않는 마음이 곧 하심의 출발이다. 내세우지 없으면 집착할 것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게 되면 걸릴 것이 없고, 걸릴 것이 없으면 나와 네가 자유롭게 되고, 나와 네가 자유로우면 모두가 행복하게 된다. 하심은 이러한 것이다.

섬김 혹은 서번트를 목회자들이 중시하는 것 이상으로 하심은 스님들의 일상에서 강조되는 생활 자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찰 생활에서는 '스님들이 권위적이다.'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스님은 '권위(權威)'는 있어야 하나 그 행동이 '권위적(權威的)'이어서는 안 된다. 권위란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지만 권위적이란 지위나 권력을 내세우며 상대를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님의 권위는 격식을 갖춘 태도에서 나오는 위엄과 엄숙한 몸가짐인 위의(威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권위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권위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한 이론이 있다. 만일 스님이 신도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 혹여 자신이 권위적인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음향강도의 이론(the decibel theory)이다. 스님의 지위와 권한을 믿고 큰 소리를 쳐 신도를 굴복시키는 행위이다. 둘째는 주입식 이론(the sell theory)이다. 신도는 사찰 일에 대해 무지하다고 간주하고 주입식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행위이다. 셋째는 최소 정보제공의 이론(the minimal information theory)이다. 스님들이 지시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소임을 다하는 것이 신도의 자세라고 여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이다.



조계사 장애인법회서 장애인 휠체어 이동을 돕는 스님들.

만일 어떤 스님이 신도에게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신도에게 주입식으로 지시하거나, 신도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권위적이었고 하심하지 못했나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이 목소리를 크게 하고, 주입식으로 지시하고, 충분히 가르쳐 주지 않는 행동은 모두 자만심, 교만감, 우월감 등과 같은 아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스님은 신도보다 본래 우위에 있고, 스님의 생각은 신도보다 옳다는 인식 등이 그러하다.

한국불교에서 스님과 신도 사이에는 상하 주종의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하심은 스님과 스님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스님과 신도 간에도 필요한 마음이며 자세이다. 스님의 하심은 신도를 감화시킨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상대방은 오히려 큰 감동을 받는다. 그것이 스님의 하심의 리더십이다. 스님은 보스(boss)가 아니라 리더(leader)가 되어야 한다. 보스는 권력과 위력으로 상대방의 강제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우두머리이지만 리더는 선의와 열의로 상대방의 자발적 추종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이다. 강제적 복종이 아닌 자발적 추종의 전제는 감화와 감동이며, 스님의 하심은 신도의 감화와 감동을 이끌어낸다.

그렇다면 스님의 신도에 대한 하심은 어떠해야 하는가. 사섭법(四攝法)은 하심의 실천방법이 될 수 있다. 남에게 무엇을 베푸는 보시섭(布施攝), 남에게 온화한 말을 해주는 애어섭(愛語攝), 남을 이롭게 해주는 이행섭(利行攝), 남과 고락을 함께 하는 동사섭(同事攝)이 곧 하심의 실천이다.

보시섭, 스님은 신도를 위해 베풀어야 한다. 신도가 무언가를 구할 때 힘닿는 대로 베풀어주는 것이다. 베푸는 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스님이 재물을 자신이 우선 취하지 않고 신도를 먼저 배려한다면, 신도는 감동받고 감화되며 스님에게 자발적 추종을 하게 된다. 또한 신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신적으로 이끌어주는 것도 스님의 리더십을 발현하는 것이다. 이에 스님은 물질적 · 정신적으로 얻은 바를 독점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신도의 이익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 모든 인간이 행복해야한다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보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애어섭, 스님은 신도에게 부드럽고 고운 말을 써야 한다. 신도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교화하기 위해 유익한 가르침을 온화하게 말해 친근한 정을 일으키는 실천법이다. 온화한 말이라고 해서 아첨하여 꾸미는 말이 아니다. 스님이 말과 표정을 부드럽게 하여 신도가 그 말에 귀 기울이게 함으로써 의사를 소통하고 나아가 교화를 하는 것이다. 비판과 충고의 말도 포함된다. 스님이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 여겨 신도를 권위적이고 무시하는 말투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만 할 뿐 결코 지도할 수 없다. 그럼으로 스님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말씨로 쉽고 친근하게 신도를 대해야 한다.

이행섭, 스님은 신도를 이롭게 해야 한다. 신도에게 이익 되도록 행동, 언어, 의식 속에 선행을 담아 베푸는 일을 말한다. 스님은 항상 신도를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행동해야 한다. 재정 소요가 큰 불사(佛事)를 하기 전에 신도에게 참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그러하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항상 신도를 이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높여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교만과 다르지 않기에 스님의 이행섭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신도를 높여 이롭게 할 때에야 가능하다.

동사섭, 스님은 신도와 고락을 함께 해야 한다. 신도의 상황을 배려하여 고락(苦樂)과 화복(禍福)을 같이 하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실천행위다. 스님은 신도와 같은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를 위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자신은 비를 피하고 다른 사람은 낮다고 비를 맞게 하는 것은 스님이 할 행동이 아니다. 스님은 신도들 속으로 들어가 고락을 함께 해야 한다. 스님 자신은 높여 궂은일을 피하고 신도는 궂은일을 겪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섭법은 아상이 있어서는 절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상대방보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도[布施攝], 친절한 말을 할 수도[愛語攝], 이롭게 할 수도[利行攝], 그리고 고락을 함께 할 수도[同事攝] 없다. 사섭법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마음을 없애고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어 하심할 때 비로소 실천 가능하다. 그러하기에 스님은 신도를 대함에 있어 '나는 스님이고 너는 속인인데'라는 아상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이러한 스님의 하심은 스님을 보스가 아닌 리더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소녀를 위한 사랑스런 가르침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⑯ 대보적경 정신동녀회

며칠 전, 엄마 따라 법회에 나온 아이가 물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부처님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니 신보다 낮은 인간인 부처를 믿지 말라며 교회다니자 해서 속상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렴, 하늘 천, 사람 인, 스승 사. 천인사(天人師), 너희 천인사가 뭔 줄 아니? 그럼 분명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늘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분은 오직 우리 부처님 한 분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 종교는 행복하기 위해 믿는 것이다. 그러니 터치(touch)하지 마."

곁에서 듣던 보살들은 웃었지만 아이는 그렇게 하겠노라며 떠났다.

어린이날이 가까워오면 항상 부처님은 어린이들을 위한 설법을 찾아본다. 라훌라가 어린 나이에 출가해 승단에서 함께 살았고, 법문을 들으려는 부모를 따라 온 어린이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가르침이 곳곳에 등장한다. 한글대장경 〈대보적경〉 119권에 제 40품의 정신동녀회(淨信童女會)의 정신동녀는 파세다닉왕의 어린 딸이다. 큰 딸이 바로 〈대보적경〉119권에 제 49품에 등장하는 〈승만경〉의 주인공인 승만이다. 부모가 항상 부처님을 의지하여 매일 법문을 들으러 기원정사로 갈 때 아들과 딸들도 함께 했었다고 한다. 정신동녀는 나이는 어렸지만 모습이 단정하니 매우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한 번 본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여 다시 보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정신은 아름다운 황금빛의 자스민꽃을 한 아름 안고서 친구들 500명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 공양 올리며 발아래 엎드려 예배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올바른 수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힘든 이야기를 하면 때려주고 싶은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친구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법, 모든 이들을 의젓하게 만드는 법,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다 사랑하는 법, 지혜로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법, 극락세계 연꽃 위에 태어나는 법,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법, 누구를 만나도 지금처럼 행복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든 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처님은 정신동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종알종알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14가지로 질문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대답해주셨다.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부른다. 그들은 언제나 자비심으로 중생을 아껴야 한다. 아까 말한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좋다, 나쁘다는 마음 없이 동등하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8가지 법을 배우고 익히거라. 첫째는 인자한 생각을 지닌다. 둘째는 가엾이 여겨야 한다. 셋째는 항상 이익하게 하라. 넷째는 세상의 나쁜 법에 물들지 말거라. 다섯째는 이기심을 버려라. 여섯째는 고요한 마음, 선정을 닦아라. 일곱째는 몸과 목숨에 집착하지 마라. 여덟째는 나쁜 생각(번뇌)이 일어나면 무엇이 행복을 방해하는지 관찰하고 행동하거라. 이렇게 하면 미움과 사랑이 생기지 않아 자유로운 마음으로 모두 행복하게 만날 수 있다. 또 모든 부처님 앞의 연화대에 태어나려면 8가지를 잘 지켜야 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다른 이의 허물을 말하지 말며, 많은 이들을 삼보를 만나도록 교화하고, 지혜의 마음으로 살며, 언제나 청정하게 수행하며, 부처님을 조성하여 연꽃자리에 모시며, 괴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달래주고, 잘난 척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어라."

이 말을 들은 정신동녀와 친구들은 자신들을 위해 법을 설해준 부처님께 재롱잔치하듯 춤추고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탄하고 물러갔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난에게 부처님은 저 아이는 훗날 전광세계에서 광명장엄왕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하시며 즐거워 하셨다고 한다.

〈서울 반야사 주지〉

부정적인 마음도 소원 이룬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⑮ 금강경 16분의 응용 2

어째서 바람이니 소원이니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됐을까? 무엇을 하려 할 때 뜻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잘 이루어 진다면 바랄 일도 바랄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등학교 이후 학창시절 내내 나에게는 세 가지 바람 즉 소원이 있었다. 첫 번째의 소원은 공부를 잘하고 싶었다는 소원이었고 다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기를 바라는 것과 산만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은 소원이었다. 공부 잘함, 대인관계원함, 마음의 안정 등 세 가지 소원은, 나의 행복과도 직결될 뿐 아니라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소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실력이 뒤떨어지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한데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안정될 때 각종 능력이 나오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세상 살아나가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 아닐까?

내 뜻이 잘 이루어 지기를 바랐던 대학생이던 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내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기를 기대하였다.

내가 아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생사해탈의 거창한 가르침도 있지만,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소박한 가르침도 있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불교를 하되 마음만 닦는 불교를 추구한 것이 아닌 세상에서 성공하는 불교를 원했다. 내가 추구하는 불교는 엄밀히 말해 기복불교라 할 것이다.

당시 불교계 큰 스승으로 알려진 선생님께,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적용하면 나의 세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여쭈어 본 적이 있었다.

"불교는 소원을 이룩하는데 도구로 쓰는 가르침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일세." 선생님께서는 내가 예상한대로 이렇게 엄숙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불교란 무엇을 바라거나 구하는 가르침이 아닐세. 깨달음을 얻고 생사를 해탈하는 가르침이야!"

내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방황하고 있을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었다. 선지식께도 똑같이 질문하였다.

"불교는 소원을 이룩하는데 도구로 쓰는 가르침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입니까? 제가 수년 전 불교계 큰 스승으로 알려진 선생님께,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적용하면 나의 이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여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제 소원을 이루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몇 년 전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자 마자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빠져들어가, 각종 불경을 독송하고 할 수 있는 수행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관심의 초점은 늘 세 가지 소원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장경, 관음경을 공부하며 지장보살, 관음보살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의 세 가지 소원을 이루는 데는 별효과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지식께서는 정색을 하시며 "불가능하지 않음은 물론 너는 시시각각으로 세 가지 소원을 지금 당장 다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가지 소원이 안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네 마음속에는 세가지 소원을 바라는 마음도 존재할 뿐 아니라 소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긍정적 마음은 물론 부정적 마음도 다 소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 부정적 마음이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보고 너의 긍정적 소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부정적 마음이 소원을 이룸을 분명히 알고, 이 '안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만 제거하면 당장이라도 네 소원은 모두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깨달음은 망심의 함정서 벗어나는 것

깨친자는 자유자재하여 중생처럼 업식(業識)에 끄달리지 아니한다.

〈전등록〉에 온조상서가 규봉 스님에게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수명이 다하면 어디에 의탁하는가"하고 물었다. 이에 규봉 스님은 "일체 중생이 모두 신령스럽게 밝은 각성을 갖추고 있어 부처와 다름이 없으므로, 그 바탕이 곧 법신불임을 굳게 믿고 깨달으면 본래 스스로 생(生)이 없는데 무슨 의탁할 때가 있겠는가"하고 답했다.

각성은 신령스럽게 밝고 어둡지 않아 항상 분명히 알며, 생불생(生不生) 사불사(死不死)라는 말처럼 태어나도 태어난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며, 어디서 오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지도 않는다.

다만 공적(空寂)으로서 자체를 삼고 육신을 인정하지 말며, 신령스런 앎, 영지(靈智)로서 자기 마음을 삼고 망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혹 망념이 일어난다고 해도 찰라에 '이 뭣고' 로 그 뿌리를 잘라 버리고 전혀 따르지 않으면 죽을때도 저절로 그 업이 얽어 맬 수 없고, 중음(中陰)에 있더라도 가는 곳이 자유로워 천상이나 인간의 마음대로 의탁한다. 이것이 곧 진심(眞心)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 생각된다.

각성을 '이 뭣고' 로 관(觀)하고 보아 깨닫고 일상 생활속에서 행하는 것이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하는 일법(一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의 망심을 쥐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묶여져 있는 것일까?

깨달음은 이러한 망심이 만든 관념의 함정서 벗어나는 것이다. 누구나 망심을 철저하게 실감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만든 관념에 구속돼 있다는 것을

각성을 '이 뭣고' 로 관하고 보아 깨닫고 일상 생활속에서 행하는 것이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하는 一法이 되는 것이다.

모른다. 깨달음은 우리가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구불만, 공포, 불안, 짜증, 괴로움 등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물속에 스스로 갇혀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하고 신통묘용한 한 물건을 깨닫지 못해서 생사윤회를 거듭 하는 것이다. 그 정확한 답은 오직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즉 '이 뭣고' 이다.

사자교인(獅子咬人) 한로축괴(漢盧逐塊)이라는 말이 있다.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그 흙덩이를 쫓아 밖으로 가지만, 사자는 던진 사람한테 달려든다"는 의미이다.

온갖 망념을 쫓아 경계에 끄달려 가지 말고, 생각의 뿌리인 마음을 '이 뭣고' 로 회광반조(廻光返照)하라는 말이다. 한 몸속에 있으면서도 머리로 헤아리는 분별심서 내 가슴속의 본각(本覺)자리에 이르는 가장 길고 먼 여행을 금생에 '이 뭣고' 로 끝내야 생사고(生死苦)인 육도윤회의 바다서 벗어나게 된다.

부설거사의 사부송(四浮頌)에 첫째는 처자권속이 아무리 많고, 금은보화가 산더미 같이 쌓였더라도 임종시에는 고혼만 홀로 가니 모두 다 허망한 것이고, 둘째로는 날마다 분주하게 출세길에 바쁘다가 벼슬이 겨우 높아지면 이미 인생은 백발이다. 그래서 황혼길이 가까운데 염라대왕이 사람의 벼슬 높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생각하면 역시 다 허망한 것이다.

셋째로는 마음씨가 곱고, 감정이 풍부한 시(詩)와 문장으로 천하 사람을 웃기고 울려서 가볍게 보더라도 아만심만 더할 뿐 자기의 생명을 자유로이 못하니 생각하면 또 허망하다.

마지막으로는 설법을 잘해서 구름과 비와 같이 막힘이 없고 거룩해 하늘서 꽃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능히 생사를 면치 못하니 생각하면 허망해서 뜨고 뜬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우리 중생은 무상한 것에 목숨 걸고 귀중한 생명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 뭣고' 수행을 시작하자.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5월 31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우주 생명 光(빛)의 기둥을 가슴에 세워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이나 기도, 명상, 참선중에 눈 앞에서 다양한 영적인 빛 기둥의 가피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문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빛의 체험)

❶ 업장소멸, 한과 집착, 끝없는 고통의 소멸을 몸으로 체험(몸의 환골탈퇴) 눈물, 기침, 트림, 하품, 진동, 전율, 코물, 구역질, 담음, 하품, 빛의변화, 몸, 마음, 영혼의 진동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삶의 대전환
❷ 인간의 3가지 고통 (1) 인간관계 (2) 금전의고통 (3) 몸의 질병의 고통 해결 기도문과 기도법제시
❸ 영적인 질환,빙의,영가장애,무속병 원인없는 질병,그 자리에서 확인
❹ 돈,사업,이혼,사별,별거,자식,취업 등의 마음상처치유 기도문
❺ 내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마음, 몸을 쓰는 원리수행
❻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수행에 진전이 없는 모든분(수십년기도하신분)
❼ **의통(심의과정)업장소멸후 의로움으로 재산환원 하실분** (심의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조성,몸,마음,영혼을치유하는 의사 양성)
❽ **상단전(지성)+중단전(감성)+영성(단전) = 깨달음의 경지 수행**

매월 3주, 4주 토요일 2시에 공개유료강연회 (10명에 한함 2만) 업장소멸, 고통소멸 원리, 가슴이 변해야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다. (강연후 체험 빛의 기둥)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66-8

043-296-5258 010-9242-5259

자각선원 (부설 뇌파 마음수련원) **자각선원장 자각** 합장

신화 불사 종합 안내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 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 합니다.
■ 9평 산신각, 신축,특 A급 가격저렴
■ 10평 정자, 18평 법당 증축 가능 A급
■ 17평 요사채, 21평 증축가능
■ 31평 재실, 38평 법당 증축가능 A급
■ 60평 한옥 2층 증축가능 (신축)
■ 80평 요사채, 40평씩 분할가능
■ 석탑 5~7층 다수있음.(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매매 21억 (2억, 월 1천만원 세 있음)
■ 강원도 6천평 삼성각, 대웅전, 명부전, 요사채, 한옥 펜션 등 다용도 전환가능. 양도가 16억
■ 이동식 스틸하우스 30평. 설치까지 3천만원
■ 그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

일 주 문



제11회 희망걷기대회

일면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스님은 4월 28일 동국대 만해광장 일원서 '제11회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애기단풍 새싹축제

토진 장성 백양사 주지 스님은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백양사 일원서 '2018 백양사 애기단풍 새싹축제'를 개최한다.



마곡사 신록축제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5월 12~13일 마곡사 경내서 한국 승지산원 세계유산등재를 기원하는 '제15회 신록축제'를 개최한다.



대전불교중흥위 창립

무원 대전불교총연합회장 스님은 4월 29일 대전 선샤인호텔 그랜드볼룸서 '대전불교중흥위원회 발족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어버이날 종로마을 축제

정관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스님은 5월 3일 관내에서 어버이날 행사 '바운스바운스 시즌4-종로마을 대축제'를 개최한다.

나정 동국대 교수 알버트넬슨 공로상



나정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의 '2018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나 교수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로 부임하기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개혁위원회 ·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유아교육정책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대학 평가와 교육청 평가단으로도 참여했다. 동국대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로 부임한 후에는 우수 및 최우수 강의상, 명강의 교수상 등을 수상하고 SSCI급 국제저널과 국내 학술지에도 다수의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나 교수는 "OECD유아교육보육정책 국가조정관과 유네스코 유아교육정책 아시아3국 과제책임자 등을 오랫동안 역임하고, 독일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평가단 등으로 참여했던 국제적인 활동부터 최근의 연구 실적과 대학 강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와 함께 전현모 동국대 경주캠퍼스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도 같은 상을 함께 수상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인명연구소(ABI),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1899년부터 해마다 각 분야의 우수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엄선해 소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개인 수행정진으로 사회 화합 이끌자"

Interview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매월 조계사서 정기법회 추진

각 부처 공부모임 구성 과제로

"公心으로 살 때 사회도 발전"

"남북관계 개선, 교류에 불교 역할이 지대합니다. 공무원 불자들을 비롯해 모든 불자들이 수행정진하며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4월 24일 서울 인사동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관계 정상화 국면에서 불자들이 수행정진을 바탕으로 한 신심으로 국론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불련의 정기법회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다. 공불련은 4월 28~29일 평창 월정사에서 제26차 성지순례 및 제19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김상규 회장은 "지금까지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특히 불자들이 수행과 나눔 실천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치유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데 힘을 보탰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불련은 지난해 최초로 대구 동화사에서 종정 진제 스님을 법사로 간화선 철야정진을 실시했으며, 올해 2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법사로 염불철야정진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서울 조계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김 회장은 "처음에는 모이기 어려웠던 공무원불자들이 점차 한 자리에 모여 수행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수행은 혼자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원력을 만든다"며 "이러한 원력이 모이면 힘든 일도 이뤄낼 수 있다. 정기법회에 모인 공무원불자들도 함께 정보를 나누고 도반이 되면서 직장생활과 신행활동에도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느슨한 신심을 자극하고 다시 열성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공불련 내 공부모임도 만들고 공연과 강연이 함께 진행되는 법회를 통해 참여인원도 늘리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불련 내 신행모임 조직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 회장이 처음부터 독실한 불자였던 것은 아니었다. 김상규 회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서울대 행정학석사, 영국 버밍엄대학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불교와의 인연은 군 제대 후 우연히 읽게 된 〈알기 쉬운 반야심경〉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회장은 "고시 합격 후 허전한 마음에 불교서적을 탐독했는데, 추천을 받은 〈반야심경〉을 보며 불교와 가까워졌다"고 소개했다.

이후 김 회장은 기획예산처와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통령실 정책실 정책기획관, 조달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김 회장은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을 비롯해 감사원 내에서도 불자들과 함께 불경공부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주 진행하는 〈법화경〉 공부모임을 구성한 상태다.

김 회장은 "경전 중에는 공무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 말씀이 많다"며 "공무원 불자들이 경전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공심(公心)이 바로 수행의 근본 목적이며 공무원불자는 공심으로 임해야 하는 이들"이라며 "공복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철저히 하고 불자로서 수행에도 매진하다 보면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박 치료 공익템플스테이 확대

고양 흥국사 · 제주 관음사 도박문제관리센터 MOU

한국불교 전통문화콘텐츠인 템플스테이가 도박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공익적 목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나눔 템플스테이' 일환으로 2014년부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템플스테이 지원을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는 일선 사찰과 공공단체를 이어주는 연계활동을 강화하면서 성과가 늘고 있다.

먼저 고양 흥국사(주지 정수)는 4월 22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센터장 전수미)와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서 정수 스님은 "흥국사가 도박문제관리센터와 템플스테이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중독자들의 치료에 템플스테이가 도움 되길 바라며, 흥국사에서도 그들에게 맞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흥국사 주지 정수 스님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 전수미 센터장이 업무협약을 맺는 모습.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는 4월 24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센터장 김보경),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지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보경 센터장은 "소외받는 대상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얻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관음사 지도법사 명현 스님은 "공익목적의 나눔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템플스테이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익 템플스테이가 점차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나눔 템플스테이가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와 문화향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해안 대종사 가르침 선양하며"

내소사, 해안 스님 44주기 추모재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4월 22일 해안대종사 열반 44주기를 맞아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 조계종 어산장 동희 스님. 선운사 원로 법현 · 범여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문도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재와 추모재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BS · 군종교구, 군포교 MOU

군승파송 50주년 등 기념사업 협력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와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4월 20일 BBS사무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군포교 진흥을 위해 양 기관이 군승 파송 50주년 기념사업과 자료집 제작 등에 적극 협력키로 결의했다.

신성민 기자

영산작법보존회 이수자 심사

작법부 10명, 범패부 4명 참가해



전라북도 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는 4월 25일 전주 태고종 전북종무원 영산작법보존회 전수관 공연장서 '전북무형문화재 제18호 영산작법보존회 이수자 선발 심사'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에는 작법부 10명, 범패부 4명의 전수자 스님이 참여했으며, 문화재 전문위원 등의 요청에 따라 전수자 스님들은 직접 작법과 범패를 시연하며 이수자격 여부 등을 평가 받았다. 심사 결과는 추후 전북도청을 통해 발표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진각국사 가르침 재조명되길”

진각국사 선양회, 화순문화원서 추모다례재



한국 간화선 중흥조인 진각국사 혜심 스님(1178~1234)을 추모하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진각국사 선양회(대표 도균)는 4월 20일 화순문화원에서 ‘진각국사 탄신 제840주년 기념 제12회 추모다례재 및 경로위안잔치’를 열고 혜심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지역 불교계 스님들과 손금주 국회의원, 구충곤 군수, 강순팔 군의회의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공연, 개회사에 이어 전통불교식 범패의식과 육법공양이 봉행됐다.

도균 스님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무한 경쟁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불교의 참선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가르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혜심 스님의 간화선 사상과 삶이 다시 조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각국사 선양회는 10여 년에 걸쳐 진각국사의 사상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매년 추모다례제와 경로위안잔치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불자경찰 신행도량 문 열어

부안경찰서 경승실 개원



포교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부안경찰서에 경승실이 마련돼 전북서부지역 경찰불자들의 신행생활이 한결 원활해졌다.

부안경찰서 경승실(실장 진성, 내소사 주지)은 4월 23일 부안경찰서 별관 2층에 약 10평 규모의 경승실을 마련하고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진성 스님, 개암사 주지 무등 스님, 혜원사 주지 정원 스님, 성화사 주지 시견 스님 등 경승실 소속 스님들과 이동민 부안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및 부안지역 불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경승실 개원에 힘을 보태준 이동민 서장을 비롯한 부안경찰서 관계자들께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새로 개원한 경승실에서 노고에 지친 경찰관들이 부처님 품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민 서장은 “경찰이라는 직업은 매우 외롭고 힘든 직업이다. 경승실에서 잡다한 감정을 해소하고 힐링공간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안경찰서에는 전의경을 포함해 약 180명의 경찰관들이 재직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까까머리 동자승도 봉축 즐겨요”

대구 대관음사, 봉축 앞서 동자승 삭발 수계식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가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3일 경내 4층 대웅전 대법당에서 동자승 삭발 수계식을 봉행했다.〈사진〉

삭발 수계식은 어린 아이들이 동자승 단기출가에 동참해 계를 받고, 스님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자리로, 올해는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부설 참좋은유치원 소속 10명 부처님 품에 안겼다. 이들은 삭발식에 이어 가사 장삼을 수하고 연비, 계첩을 받아 어엿한 동자승으로 거듭났다. 한편 10명의 동자승은 달구벌 점등식을 시작으로 대구에서 거행되는 봉축행사에 참석해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시민에 한 발 다가간 봉축燈”

부산 중구 · 기장군 등 지역구서 장엄등 밝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구 · 군을 대표하는 불교연합회가 각 지역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등을 밝힌다. 사진은 지난해 중구 광복동에서 불 밝힌 장엄등 모습.

지역대표 문화 접근 ‘발돋움’
봉축 외 나눔의 장 활용 눈길
자체 역량으로 새로운 기획도
“앞으로 더 색다른 모습 기대”

부산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도로 불리며 금정구, 동래구, 기장군 등 16개 구 · 군이 모여 있다. 서구를 제외한 총 15개의 불교연합회가 조직돼 있으며, 각 연합회는 각종 나눔 봉사활동으로 지역민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포교활동을 펼쳐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구 · 군 불교연합회가 지역 특징을 살린 축제를 기획하고 다채롭게 행사를 꾸며 눈길을 끈다.

중구불교연합회(회장 종호)는 ‘2018년 광복로연등문화제’를 5월 11~30일 광복로 거리 일대에서 개최한다. 11일 오후 7시 개막점등식 및 연등행렬을 펼쳐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할 예정이다. 축제기간 동안 중구불교연합회는 7m60㎝ 크기의 대형 미륵불 장엄등과 감은사지 3층 석탑등을 중심 거리에 설치하고, 거리등을 용두산공원 및 부산근대역사관 등 광복로 일대에 확대 설치한다. 또 부산을 상징하는 용두산 공원 부산타워에 포토존과 장엄등을 설치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을 맞는다. 19일에는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전통문화체험이 진행되며 수영노인복지관 실버밴드(비상)와 청소년문화의집 밴드가 공연 무대도 꾸밀 예정이다.

회장 종호 스님은 “지난해 중구불교연합회를 창립하고 처음 주최하는 연등문화제”라며 “불교를 알리기 위한 체험부스와 청소년 포교를 위해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모습 기대해달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는 ‘기장군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를 13일 오후 6시 기장중학교 운동장 및 강당에서 개최한다. 연등문화축제는 △문화체험 및 풍물패 한마당 △성타 스님의 달마 퍼포먼스 △봉축법요식 △열린음악회를 진행하고 경품 추천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기장불교연합회는 1년 동안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TV, 자전거 외 가전제품 등 고가의 선물을 마련해 지역민에게 선물해왔다.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도 지난 4월 7일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영도구불교합창제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에는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한마음부산선법합창단, 대원사 대원선재어린이합창단 등 실력을 인정받은 합창단의 역량을 활용해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색다른 기획으로 선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는 4월 28일 부산서부터미널 애플아울렛 앞에서 점등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여는 사상구봉축연등점등식에서 연합회 스님들은 9m 높이의 대형 석가탑모형등을 밝혔다. 사상구는 광역교통 거점도시로 공항 · 항만 · 육로가 연결된 서부산의 관문으로 불려 하루 교통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이다. 가장 많은 차량 밀집 지역인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불을 밝힌 석가탑모형등은 부처님오신날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폐사 아픔, 불사로 달랜 보천사

군천 보천사, 삼존불 · 후불탱화 봉안 점안법회

일제강점기 폐사의 아픔을 겪은 군산 보천사가 삼존불 및 후불탱화 조성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전법도량으로서 새 도약을 다짐했다.

군산 보천사(주지 의종)는 4월 21일 극락전 앞마당에서 ‘삼존불 및 후불탱화 봉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김관영 국회의원 등 25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보천사가 자리 잡은 취성산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영취산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며 “의종 스님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여법한 불사를 회향해 전법도량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치하했다.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보천사는 일제강점기 폐사되는 아픔을 극복하고 대규모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의 원력과 뛰어난 신심을 바탕으로 대작불사를 완성한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의종 스님은 “불교의 생명은 포교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며 전법과 포교,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보천사는 조선시대에는 이웃 상주사와 함께 600여 스님이 주석할 정도의 대규모 사찰이었으나 일제강점기 가람이 뜯겨져 나가고 성보가 유출돼 폐사되는 아픔을 겪었다.

현 주지 의종 스님을 중심으로 불자들이 협력해 가람을 일신하고 꾸준히 정비하면서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가불자 공부 돕는 〈능엄경〉 강의 열린다

부산불교아카데미 6기 개강

도심에서 경전 공부로 다양한 강의를 이끌고 있는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가 〈능엄경〉 강의를 마련한다.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지도법사 원순)는 제6기 원순 스님의 〈능엄경〉 강의를 개설한다. 개강은 5월 14일이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월 5만원. 〈능엄경〉 강의는 가을 학기에도 연이어 진행된다.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는 “〈능엄경〉은 내용이 방대하고 다른 경전에 비해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재가불자들이 도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그동안 강의 개설이 드물었는데 이번 강의에 동참해 감로법을 얻기를 바란다”고 동참을 권유했다.

한편 지도법사 원순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조계종 교재편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안거 중이다. (051)244-0263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덕여왕을 숭모하며”

선덕여왕 숭모회, 문화대축제

선덕여왕 숭모회(회잘 배길순)는 4월 21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특별무대에서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제32회 선덕여왕 숭모 문화대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선덕여왕 숭모회가 주최한 축제는 여왕의 행렬을 재연하는 ‘여왕어가행차’를 시작으로막을 올렸다.

배길순 선덕여왕 숭모회 제8대 회장은 “선덕여왕의 삶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시공을 초월해 표상이 되고 있다”며 “오늘 문화대축제가 시민들과 하나 되는 행복한 축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환영인사를 했다.

이어서 호국불교 정신 축제로 승화시킨 선덕여왕을 추모하는 제례의식이 봉행됐으며, 인기가수와 대취타 공연, 황룡사 9층 목탑 쌓기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악한 짓을 했어도 착하고 건전한 일로 갚으면, 그는 구름에서 벗어난 달과 같이 이 세상을 비춘다.

– 법구경 –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신묘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 속히 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명리,육효,주역,작명 (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불광(佛光)에너지 체험

관세음보살 · 약왕보살 가피받는 비법전수, 건강회복, 운명(팔자)바뀜
블로그에서 묘진사 검색
053-652-2714
010-9616-2477
묘진사 (대구 내당동 소재)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뜨고 양택명당은 꿈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010-4413-3377

불교인 배우자를 구합니다

초혼남, 만48세, 키180cm
5층 상가건물 주인
직업 : 임대사업자
동양철학에 관심 있는 분, 사찰운영 전수 가능함
보호자 010-9376-2082

오래된 산소, 유골 화장, 산소 사초 작업

(원형 납골묘)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010-6257-67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비구니 보살 모십니다

(포항)
010-3376-6601

이매망량을 내 마음대로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투자자 초빙

약 5천평내에 불교식 석조물을 조성코저 하오니 투자 하실 분 2인을 초빙
투자금은 기존 부동산을 설정해 드림
투자금액은 1인 2억 (상세한내용 전화 문의)
010-2873-3446

스님이 필요한 절을 찾습니다. 무보시로 끝까지 도와 드립니다

(60대 비구)
010-4882-383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010-6266-4669

경상도가 고향인 참신한 30대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경남 함안군)
010-6893-5040

조용한 암자입니다. 절에서 살고 싶은 보살님 이나 수행처를 찾는 비구니 스님은 연락 바랍니다

(충청도)
010-7423-3333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사 찰 행 사 전 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수륙대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영남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화청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3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사 찰 화 재 보 험

이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010-7344-1881
010-4510-3663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삼나 효모 밥죽순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1.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2.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3.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4.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준비하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할 일을
해야 할 때 당황하지 않는다.

- 본생경 -



논산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한옥 법당. 산신각. 요사채 토지 400㎡
- 논산 IC 부근. 운영 잘되고 교통 편리
- 양도 : 1억 2천만원 (타지방 불사로 양도함)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강릉시사찰(급)안내
- 멀리 바다 보이는 사찰
- 토지 3.300㎡. 목조 단청 법당 요사채. 목조산신각
- 정리가 잘된사찰. 교통편리함.
- 현재 운영 잘 됨.
- 양도가액 : 15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3700-1893
02)911-9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수도권
◎ 대지 : 14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40평
◎ 양도가 : 12억 3천
◎ 위치 : 서울북한산,
◎ 부지 : 100평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무허가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부산 구서동에 있는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위치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약100평(산신각포함)
- 양도 또는 전월세도 가능

010-7121-3030
010-3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지내동 전철역 5분거리
- 3층 건물 80평 중
- 법당 40평, 공양간 4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세금 60만원 시설비 : 5천만원
- 법당 전체 단청 공양간
- 시설완벽(몸만 오시면 됨)

010-8500-00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공양주방, 다용도방, 창고1 실내화장실2, 실외화장실2
-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 가액:대출 8천안고 2억 2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 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시 용전전화국 옆
- 제반시설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개, 60평
- 2층건물 2층,옥상 60평 사용가능
- 교통요지,터미털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보증금 1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3452-1123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 동불:약왕보살님 높이 75㎝
- 동불:지장보살님 높이 70㎝ 관세음보살님 높이 90㎝
- 후불탱화 높이 120 넓이 240㎝
- 신중탱화 높이 130 넓이 121㎝
- 산신탱화 높이 130 넓이 130㎝
- 용왕탱화 높이 120 넓이 120㎝

010-6321-12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 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별장같은 토굴
- 위치: 김해 선암다리에서 5분거리
- 새 인연을 찾습니다
- 창건 20년 모든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뒤에는 산, 앞에는 1,500세대 아파트
- 대지 : 270평
- 가액 : 평당 300만원 (은행 2억천 안고) 6억

010-9906-363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안심뉴타운지역
- 4년째 운영중인 포교원
- 4층 70평과 옥상사용
- 주차장 및 내부시설 최상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5,000만원
010-9805-0345

포교원 안내
- 위치 :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옆
- 2층 (법당), 4층 (거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전세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600만원
-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

010-6473-1569

토 지 안 내
- 위치: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
- 864평, 평당 170만, 2차선 인접
- 주택 복지사업, 종교시설 가능함
- 연락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540-7739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 찰 안 내
- 위치:밀양IC 얼음골 방향 15분거리
- 잣나무 숲속의 계곡과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에 대지 328평 1층 60평 중 30평은 명상홀 다음 30평은
- 요사채 2층 법당 25평 삼성각 4.5평
- 별도 요사채 30평과 창고 20평
- 농지에는 사과나무와 호두나무
- 석물 수월관음, 연화탑, 원통문 포대화상 - 가액 : 6억

010-4895-20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산하
- 전체부지 1,100평 주택 1동 심야전기 보일러
- 임법당 24평, 산신각
- 종교부지 300평포함 700평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5억 5천만원 (은행융자 2억 포함)

010-9113-001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로 145-10
- 법당 : 30평 3층 건물 중 2층
- 방 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7257-4242

전망 좋은 암자 안내 및 전세 놓습니다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 방사, 산신각
- 가액 : 1억 1천 5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포교원 안내
인수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 서울 불암산 아래
- 총평수 70여평(법당30평,종무소(사무실)20평, 주지실 및 공양간10평,세면장,보일러실,창고10평
- 별도 옥탑방 있음
- 보증금 : 2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조정가능)
- 법당 및 모든 시설물 설치되어 있으니, 몸만 오셔도 됩니다.

010-3659-70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가액: 12억
- 확인후 절충가능

주지직010-7918-732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 부근
- 150년된 암자 3,000평
- 인법당, 요사채, 산신각
- 예당 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아름다운 곳
- 가액 : 6억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29평반(단청완료)
- 화장실3평, 기와집, 산신각5평 요사채 25평, 종무소 18평 요사채 공양실 20평, 기타 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동)
- 가액 : 3억

010-2591-4736

양평 불교 동호인 마을분양
- 위치 : 양평
- 평수 : 396㎡(120평)
- 불교공부와 참선 정진하고 싶으신 분
- 제일 저렴한 땅
- 선착순 : 8명
- 양도가 : 3,700만원

010-2215-3657
(주인 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연지암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포함 80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종무보살님)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약 25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공양간 : 약 35평
- 요사채슬라브 공양간 판넬-대지 총면적 : 약 43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약간의 절충가능)

연락처 0505-308-2111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 염치읍 (시내 자차 10분거리)
- 크기 : 건물만 30평
- 구조 : 방 3개, 법당 10평, 임법당(평생토굴)
- 조용히 수행하실분만
- 가 액 : 3,500만원

010-8811-263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전철역에서 5분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기타 약초 아로니아, 블루베리 등
- 몽땅 1억 1천만원

010-8861-1785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사찰 포교원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약간있음
010-6208-5555
055)747-98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천변
- 신축 건물 2층 40여평 트인 전망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010-5438-01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서동 부산은행 맞은편 농협 앞
- 보증금 : 천만원, 시설비 1500, 월세 30만원
- 평수 : 약 3층 45평
- 친견실 및 룸 4개, 신중, 삼존불 및 지장보살,칠성,산신
- 준비할 것 없음

010-3590-575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 불화 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연락처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 격 : ~~10만원~~ ▶ 90,000원
주 문 : 02)2004-8216
입 금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연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성소수자도 절에서 편히 쉬다 가세요”

〈LGBT〉

日 트렌스젠더 스님, 성소수자 위한 사찰 건립 나서

박영빈 객원기자

‘산케이 신문’ 4월 20일 보도
건축비용 1400만엔 모금 계획
2018년 봄, 1차로 완공될 예정
“고민 상담·경조사 도와줄 것”

성소수자에 대한 담론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일본 트렌스젠더 스님이 성소수자를 위한 사찰을 건립한다.

‘산케이신문’은 4월 20일 오사카 네야카와시에 성소수자들을 위한 사찰 ‘쇼센지(性善寺)’ 건립을 준비하는 트렌스젠더 시바타니 소슈쿠(柴谷宗叔, 63) 스님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이 절은 2018년 봄에 1차 완공 예정이다. 스님은 예전의 자신과 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이런 사찰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2017년 8월 이 사찰을 건립하겠다고 정식 발표하며 “성소수자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찰,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찰, 성소수자들의 경조사를 맡아줄 수 있는 사찰을 취지로 사찰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성소수자들의 이해와 권익을 위한 활동에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쇼센지 건립은 이 활동의 연장선이다. 절의 이름은 ‘다양한 젠더(性)는 선한 것(善)’이라는 신념에서 따왔다. 쇼센지는 네야카와시 본가의 별채를 개축하여 지어질 예정이다. 시바타니 스님은 “큰 사찰을 새로 지을 생각은 없다. 어디까지나 민가를 개축한 절로써 사람들이 보다 가볍게 들렀다 갈 수 있는 절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절의 설계는 시코쿠 순례에서 인연이 된 우타 이지요(歌一洋, 70) 前긴키대학 교수가 담당했다.

일본의 전통적인 사찰건축을 모티프로 철골 콘크리트, 120㎡(약 36평)로 지어질 쇼센지는 내년 봄경에 1차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비용 1,400만엔(약 1억 4천만원)은 모금한다는 계획이다. 그 뜻에 동참하여 본존불로 모실 대일여래(大日如來)상과 여타 불상들을 시작으로 법당 장엄에 필요한 법구들은 도반스님들과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보시해줬다.



성소수자 페스티벌에서 연설하는 시바타니 스님.



쇼센지 본당 완공모형. 시바타니 스님 제공

시바타니 스님은 “성소수자 커플들은 대부분 사실혼 관계임에도 여러 문제로 결혼식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 자손이 없다보니 죽고 나서 납골을 하거나 장례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쇼센지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해주는 절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며 “성소수자뿐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절, 종파나 사상을 불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찰이 되길 바란다”고 포부를 전했다.

시바타니 스님은 스스로 성소수자이기에, 성소수자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성의 몸을 가졌지만, 성적 정체성은 여성이었다고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를 강요한 아버지와는 항상 불화가 있었고, 집을 떠나기 위해 집과 거리가 먼 와세다 대학에 진학했다.

스님은 “본가에서 나오자마자 여성복을 사고 화장을 했다. 그리고 도쿄의 게이 바 등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졸업 후에는 ‘요미우리 신문’에 취직, 경제부 기자와 편집부 위원을 거쳐 나름의 출세 가도를 달렸지만 양복과 넥타이는 언제나 불편한 존재였다고 한다. 오히려 집에서 여장을 하고 같은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했다고 한다.

불교와 인연이 시작된 것은 1991년 회사에서 간 단체 여행이었다. 회사에서 관음성지인 세이간토지를 방문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스님은 일본 각지의 성지를 순례하며 개인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스님은 “당시에는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아서 관광차원에서 순례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1995년 한신대지진으로 고베에 있던 스님의 자택이 완전히 붕괴되는 일이 일어났다. 다행히 스님은 당시 부모님이 계신 네야카와시에 있었기에 무사했다.

지진 이후, 무너진 집을 수습하러 간 스님은 폐허 속 너덜너덜해진 〈납경장〉을 발견했다. 〈납경장〉은 일본사찰에서 순례자들에게 순례 온 것을 인증해주며 절 본존불의 명호와 절의 직인을 찍어주는 책을 말한다. 스님은 “폐허 속에서 〈납경장〉을 주워들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지진 속에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 부처님 은혜에 큰 감사를 느꼈다”며 관광이 아닌 순례로써 시코쿠의 88개소 순례를 나선 계기를 설명했다.

순례자의 복장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같은 것을 본 스님은 ‘남자답지 않아도, 여자답지 않아도, 순례자는 모두 같은 순례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 일로 출가를 결심, 진언종의 총본산인 고야산의 고야산대학 대학원에 진학, 2005년 신문사 조기퇴직 후 출가하여 소슈쿠라는 법명을 받았다.

한편 스님은 이후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하고 2010년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호적의 성별도 여성으로 변경했다. 당시 진언종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성소수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총무원장의 배려로 승적의 성별도 여성으로 변경, 진언종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스님이 됐다.

불교 유적 파괴 시름 던다

온전한 불교 유적, 가상현실에 ‘저장’

‘싸이아크’서 만들어 ‘구글’에 제공
PC, 스마트폰 등으로 감상 가능해

빈번히 일어나는 불상 파괴, 사찰 전소 등의 문제에 포털사이트 ‘구글(Google)’이 ‘싸이아크(Cyark)’와 합작해 가상현실에 불교 유적을 그대로 구현해 냈다.

‘라이언스로어(Lion’s Roar)’와 ‘NBC뉴스’는 4월 24일 ‘구글’과 ‘싸이아크’가 합작해 가상현실서 유적들의 모습을 새로 구현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는 누구나 PC와 스마트폰, 가상현실(VR) 헤드셋 등으로 볼 수 있다.

구글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비영리기관인 싸이아크와 협력해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싸이아크는 실제 그대로 정확하게 사찰들과 세계 문화 유적지를 3D 그래픽으로 구현해 냈으며, 구글은 이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싸이아크가 만든 이 3D 그래픽 데이터는 3D 스캔 장비와 드론, 수천 장의 사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 유적지의 실제 모양을 정확하게 재현해 냈다. 그 중에서도 26개의 문화유적은 VR헤드셋으로 360도 감상할 수 있다. 싸이아크는 몇 달 내로 열 개의 문화유산이 VR헤드셋 연동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싸이아크는 지속적으로 불교 유적을 3D 그래픽으로 구현해 왔다. 현재 싸이아크는 200개 이상의 불교 문화유산을 구현해 낸다. 싸이아크의 CEO인 존 리체브스키는 “이 유적들의 구현을 위해 2003년부터 15년간 불교 유적을 찾아다녔다”고 ‘NBC뉴스’와의 인터뷰서 밝혔다.

싸이아크의 설립자인 벤 카시라는 캘리포니아서 사는 이라크출신 엔지니어였다. 카시라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유적인 바미얀 불상들을 파손했다는 것을 알고 회사 설립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당시 1500년 된 불상들이 탈레반 군인들에 의해 파괴되고 유적이 있던 자리엔 폭발에 의한 거대한 구멍만이 남았다.



가상현실에서 3D그래픽으로 구현된 사원유적.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카시라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불교 유적이 입을 피해나 파괴가 겁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 세계 유적의 모습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저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태국의 아유타야 사원 등 사찰 뿐 아니라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문 등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를 3D그래픽으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박진형 기자

“조계사 좋아요, 불교 좋아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발언
한국불교 대한 관심도↑



사진출처=Variety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내한 프로모션차 한국을 찾은 베네딕트 컴버배치〈오른쪽 사진〉가 출국 전 조계사와 경복궁을 찾았다. 이에 외신들은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비바’ ‘메트로’ 등 외신은 영국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4월 13일 오전 스태프, 통역사와 함께 서울 조계사 등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닥터 스트레인지’ 촬영 이후 불교에 심취해 불교 신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합장인사를 한 것도 언급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이런 행보에 외신들은 한국불교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도 “불교 문화재가 잘 보존된 곳”이라고 덧붙였다.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아시아 투어를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절과 궁에 들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머물고 있던 숙소와 가까운 조계사와 경복궁을 안내받아 관광했다. 이후 조계사, 경복궁 투어에 큰 만족감을 전하며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감동과 놀라움 그 자체다. 아마 이번 내한이 절대 마지막 방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완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2018년 4월 24일, 용산 백범기념관 대연회장

佛敎正法을 수호하며 세계속에 불교의 위상과 정법포교를 위한

불교 최고의 고승 및 지도자들이 초발심으로 재발심하는 자정의례 대법회

(인간방생과 중생구제에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한국불교 400여 종단 동참)

집전 : 자광스님 / 사회 : 백련스님, 봉암법사 / 합창단 : BBS 가릉빈가 합창단

정법수호연대와 대한불교대종사, 종사연합회가 주관하고 세계불교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연합회가 주최하는 '불교 고승 및 최고지도자들이 초발심으로 재발심하는 자정의례 대법회'가 24일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봉행됐다. 도성 스님(태종사 조실), 금산 스님(범종단최고원로회의장), 목탁 스님(세계불교법왕청 비서실장 대승정), 뚜라땃우마웅 미얀마대사를 비롯하여 한국불교 각 종단 최고지도자 80여 명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1부 정법수호 대법회와 2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정법수호연대는 2017년 11월경 세계불교법왕청 소속 혜정 스님과 법운 스님의 발족 제안을 시작으로 '세계불교도 정법수호연대'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이번 자정의례 대법회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정법수호연대는 출재가자를 막론하고 정법을 의지해 지켜나가자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법을 지키는 것이 불교도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로 '세계불교도 정법수호연대'의 구성이 그 출발점이 된다는 합의 하에 이 자정의례 대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이다. 자정의례 대법회는 BBS 가릉빈가 합창단의 축가를 시작으로 정법수호연대 김재은 이사의 경과보고, 봉행위원장 혜정 스님의 봉행사, 대회장 인경(천불사) 스님의 대회사, 총재 목탁 스님의 내빈 소개에 이어 뚜라땃우마웅 미얀마대사의 축사와 도성 스님과 금산 스님의 격려 법어, 목탁 스님의 총재 법어, 운영위원장 법운 스님의 '승가에게 고하는 글'로 마무리 되었다. 2부 행사에 앞서 한국불교지도자협의회 소속 국제붓다평화봉사단의 장학금 전달행사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주호영 정각회장 등 각 정당 정치지도자들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긴박한 현안 정세에 따라 지면 축사로 대신했다.

정법을 지키는 것이 불교도의 우선 과제
자정의례 대법회가 그 출발점

명예총재 도성 스님 격려 법어



바르게 산다는 것은 생로병사의 바른길을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바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답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이 고요하게 조금씩 덜어가며 삽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며 실천하는 것이 우리 불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정법수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명예총재 금산 스님 격려 법어



불종자, 불제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이웃 모두의 말들이 곧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심하는 사람 곧 시님입니다. 스승님에서 나온 스님이 아니라 시님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심하여 계를 의지하여 정법수호의 연대에 함께합시다. 바른 법과 바른 의례로 수행자의 본분을 다합시다. 우리가 오늘 모인 그 의미를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 갑시다.

총재 목탁 스님 인사말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승은 인간방생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참회 정진의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불제자들이 화합을 저버리고 나누어 반목하는 현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새롭게 정신 개혁하는 마음으로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큰 뜻을 추구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후대의 평가를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불교 지도자분들께서 모든 명예와 자만과 아상을 모두 버려야만 가능한 일이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됨이요 곧 자비가 가득한 부처님 세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제2의 10대 제자, 보살마하살, 성자, 아라한이 되시고 팔부신중이 되어 주시어 마음을 모아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함께 해주신 한분 한분 모두 저의 가슴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행사
봉행위원장 혜정 스님

한국불교 최고 지도자들이 종단을 초월하여 대의를 위해 서로 협조하여 세계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정법을 수호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자정의례 대법회를 봉행하는 이 시간부터 그 어느 누구도 불교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세계불교법왕청 전 종도들이 앞장서서 중생과 더불어 민족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불교운동의 선구자적 전통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일치단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 모두 용맹정진에 전념하여 호국불교가 대한민국을 지켜왔듯이 이제 우리 스스로 정법수호를 통해 불교도들의 단결된 의지를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불국정토를 이룩해 나갑시다.

대회사
대회장 인경 스님

불교최고 지도자들의 야단법석을 통해 세계도 하나, 인류도 하나, 종교도 하나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의 산실이요 웅비의 장소인 바로 이곳 백범기념관에서 불교지도자 여러분의 상견례와 함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한국 대종사 종사님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것은 신선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제 400여 종단의 지도자 여러분의 총지를 모을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의 원력을 모아 정법수호 협의체를 잘 이끌어 나갑시다. 이를 통해 세계종교의 근원이 하나인 것을 밝히고 갈등과 분열, 대립을 치유하고 세계평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와 봉사문화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축사
미얀마대사 뚜라왓우마웅

저와 주한미얀마대사관에서 양국 관계에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미얀마친선교류협의회 목탁스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가깝고 서로 돕는 우애를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인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며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오신 한국의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존경합니다. 저와 미얀마대사관도 한국과 미얀마의 우호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법수호연대 발족 제안문

(1)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법을 수호하려는 불교계의 출가와 재가의 모임들을 결집하여 '정법수호연대'을 발족하고자 제안합니다.
(2) '정법수호연대'는 수행과 교육 중심의 포교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아울러서 사방승가의 통합적 이념을 구현하려는 세계불교법왕청의 주요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정법수호연대'는 출가자 단체로서 '원로승가회' '대중승가회' '국제교류승가회'를 결집하여 통합단체로서 출범하고자 합니다.
(4) '정법수호연대'는 세계불교법왕청의 사방승가의 통합적 이념에 공감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서 '법왕 추대' '법왕청 설립 유지' '법왕궁 불사' 등의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 정법수호연대'는 '정법에 근거한 교육 수행 프로그램 연구 개발' '정법에 근거한 법요집 및 교재 발간' '정법에 근거한 수행모임과 수행공간의 확대' 등의 고유 활동을 통하여 흐트러진 정법의 체계를 다시 결집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목적을 둡니다.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세계불교법왕청을 중심으로 사방승가의 결집과 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한국불교지도자협의회 소속 국제붓다평화봉사단 (총재 목탁, 회장 이정희)의 장학금 전달

이번 장학금 수여는 국제붓다평화봉사단의 주요 사업의 하나로 한국불교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계속되어 온 행사로 이번 수여는 일면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최상균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학생4명(안진영, 김기현 장민석, 윤준호 학생),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1명(박수정 학생), 양주고등학교 1명(김은서 학생), 동국대부속여자고등학교 1명(최현수 학생) 총 7명에 대해 국제평화봉사단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금 수여는 수업 중인 시간을 고려해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직접 전달됐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잘못되고 잘되고, 좋고 나쁜 걸 아는 거는 다 놔라!



그림 · 최주현

자성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고, 자성이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누구나 다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드넓은 세상 속에서 한 조각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자성이 진짜로 있다면 그 자성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본래 주어진 자성의 힘을 참답게 믿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답변 우리는 일면 생각하고 뛰면서, 뛰면서 생각하면서 집어먹고, 집어먹으면서 뛰고 이러는 세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뜻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물질로서의 과학도 문화도 모든 게 발전이 돼서 우리 머리는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요 대낮에 잠시 잠깐 빛이 비추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어저께 밤에 또 주무셨죠. 매사 다 건건이 아시면서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그 아시고 계신 그 자체가 자성(自性)입니다. 그래도 모르신다고 하시겠습니까? 불성이 어딨느냐고, 내놔 보라고 막 이러겠습니까?

이 점에 뒷받침이 될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조 홍인 선사가 육조 스님이 행자일 때 삼경(三更)에 들라고 해서 금강경을 설하시니 그 끄트머리에 대답한 육조 스님의 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 여러분이 나보다도 아마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뜻이 있습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말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래! "자성은 본래 생멸(生滅)이 없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그 '본래'가 참 중요합니다. "자성이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은 움죽거림이 없이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아마 내가 틀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예전에 들은 얘깁니다마는 그걸 듣고서 참…. 여러분도 모두 감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직껏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알고 있는 자성이 누군 줄을 모르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본래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들이고 내는데 말입니다. 손색이 없고 여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잘못되고 잘된 걸 다 놔라 이랬습니다. '잘못되고 잘되고, 좋고 나쁜 걸 아는 거는 다 놔라.' 잘못되는 것도 나오고 잘되는 것도 나오고, 잘하는 것도 나오고 못하는 것도 나오고, 높은 것도 나오고 얕은 것도 나오고, 일체 평등하게 거기에서 그르고 옳은 게 다 거기서 나오니, 나오면은 바로 나오는 대로 재깍 자기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또.

나오는 것도 알고 들이는 것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성이. 그 자성(自性)의 원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싼다 해도 두루 할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자리다 이겁니다, 자성자리가. 일체제불이 같이하고 있고, 일체제불이 있는 자리에는 일체 중생이 다 같이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이 말을 20년, 30년 이렇게 되풀이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되풀이를 하되 그 되풀이하는 말이 끝이 없군요. 그 뜻을 아시란 말입니다, 뜻!

본래 청정하다. 자성은 본래 청정한 걸 알고 있는 거죠. 청정한 걸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고정됨이 없이, 청정한 거는 깨끗한 게 청정한 게 아니라 구정물, 더러운 물, 고름물, 핏물 다 한데 합치는 것이 청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고정됨이 없이 한 찰나에 나투면서, 즉 윤회라고 해도 되죠. 반복하면서 제자리걸음 하면서 그저 찰나찰나 바꾸어 돌아간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고정됨이 없어.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고 가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그걸 청정이라 한다. 그걸 거름 삼아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청정이라고 한다.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자성이다. 밝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 밝음을 깨닫는다. 이런 말을 나뿐만 아니라 수차에 거듭거듭 선조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성인도 말을 했고요.

지금 등이 여기 있습니다. 등이 있는데 등대 자체가, 예전에 선조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등대라고. 지금은 등잔이 아니라 전구가 있어서 불이 들어오죠. 이런 것도 바로 저 등대를 내놓을 자리가 있어야 내놓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몸뚱이는 등대에 비유했고, 마음은 등불에 비유했고, 또 믿음은 심지에 비유했고, 즉 말하자면 계행(戒行)은 기름으로 비유했고….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죠. 지혜는 밝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등대가 없었더라면 등잔을 어찌 매달아 놓느냐? 그러면 이 등대 자체, 몸뚱이가 화두인 것입니다, 화두! 그대로 전구도 저렇게 걸어 놓아지고 그 속에 선도 있고 밝음도 있고 전력도 있고, 기름을 계행이라고 했으니 전력을 말한 거죠,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그런데 얘기를 하면은 말만 듣지 마시고요. 다섯 가지고 네 가지고 한데 합쳐서 공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따로따로 이름은 있으되 공존하고 있다. 눈과 귀가 따로따로 있고, 이름도 따로따로 있으나, 눈 간 데 귀가 가고 귀 간 데 눈이 속해 가더라. 또 무슨 시각이니 청각이니 감각이니 촉각이니 하는 말들도 말일 뿐이지 같이 혼합해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척 보면 척 돌아가, 벌써. 안 그렇습니까? 남이 우는 걸 보면 '아, 슬프구나.' 이렇게 척 돌아가니까, 시각이다 감각이다 할 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죠. 그 말은 벌써 뒤돌아 가 버려요. 생각하고 난 뒤에 말은 돌아가니 그 말이 무슨 필요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또 말을 하자 하면, 시각을 통해 거쳐서, 감각을 통해 거쳐서, 청각을 통해 거쳐서, 촉각을 통해 거쳐서 두각을 통해서 심장으로 깊이 들어서 불성으로 규합이 돼서 '타파가 된다, 돌아간다, 회전이 된다, 발끝까지 회전이 된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허나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은 우는 걸 봤으면 '어이구, 저거 왜 울까?' 하다가 벌써 주위의 환경을 보면 슬퍼서 우는지, 기가 막혀서 우는지, 또 반가워서 우는지가 척 들어온단 말입니다, 벌써. 그렇게 척 들어와 알고 있는데 구태여 그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을 하기 이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체의 자성, 그 자성은 묘각이라고 할까요? 아주 묘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마음을 좋게 가져라. 생각을 좋게 해라. 꿈을 꿔서 언짢더라도 좋게 생각하고 놓으면은 그대로 회전이 돼서 보이지 않는 50%에서 보이는 50%로 나온다.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말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말 이 공부를, 공부랄 것도 없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언제나 나 자신 부족함이 자꾸 느껴집니다. 또 자유스럽다 하고 껄껄껄껄 웃고 나서는 언제나 또 부족합니다.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오늘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겁니다. '야, 참 이렇게 자유스럽고 떳떳하고 훌륭하고 참 좋은 법인데 왜 내가 자꾸 부족함을 느낄까? 아! 그러면 떳떳하고 자유스럽고 그렇게 좋은 법에 의해서 내가 어떡하면 전달을, 또 어떡하면 길잡이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엔 부족함으로 그냥 느껴지고는 탈락이 됩니다. 이거는 도대체 버선목이니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한마디로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당신네들이 모두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간다는 그 자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만법을 스스로 갖춰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내고 들이고 자유자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자재하고 있는 그 자체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볕이 나고 지금 낮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종했더니 배신한 느낌이 들어요

질문 저는 남편이 다니자고 해서 절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낯설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절에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 좋기는 한데 어려서부터 함께 교회를 다녔던 분들에게 꼭 배신을 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가르침을 바랍니다.

답변 우리가 항상 차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로 비유하자면 시발점에서만 버스를 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탈 때 내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내릴 때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시에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이, 내리는 데 걸리지 않으면 타는 데 걸리고, 타는 데 걸리지 않으면 내리는 데 걸린다고들 하는데 모두 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내리고 타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 마음으로 통해서 갑니다

☞ A17면에서 계속

다. 상대성 원리라고도 하고요. 정맥, 동맥이 없으면 이어서 돌아갈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내리고 타고 하는 그 가운데에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느냐는 얘깁니다. 그 마음은 어디까지나 자유스럽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했고, 자유를 자유대로 행하고 삶을 살 수 있기에 사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체가 없는 마음을 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유스럽게 못 쓰고 있습니다. 관습에 매달리고 안 된다는데 매달리니 괴롭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차를 타는 데도 끄달리고 내리는 데도 습관적으로 끄달리는 겁니다. 왜 끄달립니까? 내가 갈 데가 있으면 묵묵히 차를 타는 거고 또 내려야 할 때 묵묵히 내리면 되는 거지, 남이 내리는 거 오르는 거 다 참섭하면서 온통 걸리고 돌아가니 그 노릇을 어떡하겠습니까. 내 육체를 여래의 집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도는 한마음의 그 심봉은 자유스러운 겁니다. 그런데도 생각하는 대로 여기 매달리고 저기 끄달립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끄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나오는 일체의 생각을 나의 근본 자리에 되돌려 놓으십시오. 나의 관습과 사량으로 '이건 맞다 그르다, 이건 부족하다 적합하다' 하고 판단하고 따지다가 보면 마음의 길에 한 발자국도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양심에 걸린다, 배신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마음 씀씀이와 올바른 행동 그런 겁니다. 마음을 잘 써야 행동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야 진실한 말을 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여여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게 하면 화가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요, 화가 안 나게 하는 것도 그 자리이니 그 자리에다가 즉시 돌려서 화가 안 나게끔 하는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화나는 거 하나로 표현을 했지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기를 "구정물을 새 물로 갈아서 먹고 써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체의 모든 것을 근본에 진실로 맡길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불교를 믿어야만 구원의 길 가는지

질문 저는 천주교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절에도 한 번씩 가 보고 그러는 편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선원의 법회에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불교를 믿어야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저희같이 이렇게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잘했어요. 외국으로 다니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종교를 볼 때 티베트 불교든지 알라신교든지 또 가톨릭교, 기독교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만나서 토론도 해 보고 또 이렇게 봤어요. 내가 볼 때는 불교(佛敎)라는 단어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일체, 이 하다못해 풀 한 포기의 생명도 전체 생명은 불이에요, 불!

그리고 말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뜻과 뜻으로 통하고 통신으로 통하고 그러는 거를 통해서 만나서 우리가 서로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이 교(敎)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그 단어는 방편 아닌 방편으로써 그것은 이름이자 진리예요, 그대로.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만큼 우리는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그 그릇을 다르게 하고 가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주처에 근본이 있는 거지 바깥에 근본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 뭐, 기독교든지 가톨릭교든지, 외국에도 가 보면 많이 이렇게 토론하러 오셔요. 그런데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왜? 불교고 기독교고 가톨릭교고 다른 게 없이 선지식은 전부 "딴 타의의 사람을 믿으면 마구니 소굴에 드느니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부터 알라. 주처는 바로 너한테 있느니라. 네 이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고 나가는 선장, 바로 그 자체가 주인이니라. 그 주인부터 알아야 이 전 우주의 섭리, 하나로 돌아가는 이 이치가 바로 거기에 직결이 돼 있으니깐 알 수 있느니라." 한 거거든.

그런데 기독교나 불교를 막론해 놓고 '아이고! 잘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부처님!' 하고 찾거든. 이거는 기독교든 불교든 가톨릭교든 간에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 너부터 알라 이 소리예요. 허허. 틀립니까? 어떤 종교를 막론해 놓고 그 이름을 떠나서 '너부터 알라' 이 소립니다. 못났든지 잘났든지 네가 이 세상에 형성됐으니까 상대가 있고 종교도 있고 세상도 있는 거지, 네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부터 알아라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리석은지 모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속에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의식들이 많고 모습들이 많아요, 천차만별로.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서 다스리는 주인이 있어요, 자주 내가 얘기했듯이. 모두 이것을 들이고 내는 물질세계, 정신세계와 더불어 같이 중용을 할 수 있는, 그 들이고 내고 하는 그런 선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을 바깥에서 찾으니까 내 하는 소리죠. 부처님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데, 만날 바깥으로 찾고 하니깐 그런 것이지 내가 왜 그러겠어요?

나는 이거고 저거고 이 종교 저 종교를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르게 찾으니까 내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아, 자기부터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있고 그 이름이 모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어머니의 이름이 있고 할머니의 이름이 있듯이 그렇게 이름만 달랐다 뿐이지 근본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를 믿고 나를 찾아라." 이런 거지, 자기 몸뚱이를, 그 고깃덩어리를 찾고 믿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본래는. 각자 너를, 진짜로 네 주인을 믿어라 이런 거지. 그런 건데 편집을 잘못했든가 뭐가 잘못된 게 있었겠죠.

> **내가 정신세계 50%를 왕창 간파하려면 딱따구리가 나무 뚫듯이 언제나 자문자답하면서 생각 하나하나, 움죽거리는 하나하나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팔만대장경을 해 놨는데도 그렇게 모두 기복적으로 하는 데는 이런 이치가 있었죠. 물론 불교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다 그렇죠, 뭐. 이조 때에 탄압을 받고 유교를 숭상을 시키고 불교를 해산시키고 이러는 바람에 스님네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방편을 쓰고 이랬던 그 습이 아직까지도 그냥 내려오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고쳐야 될 거고 개선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할 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능력이 주어져 있는지요

질문 제 짧은 생각으로는 큰스님께서 직접 점안해 주신 선원의 부처님들은 눈 아닌 눈이 트였고, 귀 아닌 귀가 열려서 오고 가는 중생들의 마음을 둘 아니게 이끌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께서는 부처님을 점안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주어져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부처님께 예를 올려야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을는지 가르침을 구합니다.

답변 속 눈이 있고 겉 눈이 있습니다. 속 귀가 있고 겉 귀가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살던 나의 자성 부(父), 즉 지금 나를 끌고 다니는 부가 있습니다. 그 자성 부와 현실에 사는 자(子)가 둘이 아니게 눈이 밝아져야 속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세계 50%를 왕창 간파하려면 딱따구리가 나무 뚫듯이 언제나 자문자답하면서 생각 하나하나, 움죽거리는 하나하나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체 의식들이 먹는 것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것도 혼자 만나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것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것도 혼자 버는 게 아니고, 전체가 혼자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생이면서 공심이에요. 그리고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병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나에게 병고가 있는 게 아니며 업이 있다고 해도 내게 업이 있는 게 아니다. 붙을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공동 분담으로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이래야 그게 붙을 자리가 있는데, 쉴 사이 없이 돌아가거든요. 한 찰나에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너그럽고 넓고 크게, 좀 더 지혜롭게 마음을 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오던 습과 착에 매달리고 애정, 사랑, 욕심, 악의적인 애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한데 안고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거기에 그만 막히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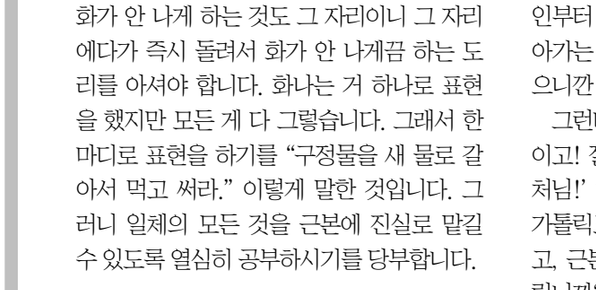
더군다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복으로만 이끌어 가고 따라가니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은 많지만 그 사찰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느니라.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다가는 넘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지만 눈 뜬 사람이 장님을 끌고 갈 때는 절대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침착하게 잘 생각하셔서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만이 납득이 될 것 같아서 얘길 했습니다. 부처님 점안식을 함으로써 그 속 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체 부처님의 마음과 항상 통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 마음으로 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통하는 줄 모르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릇도 없고 그래서 받아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일체제불과 우리 스님네들의 마음이 첨보되고 종합돼서 한마음으로 눈, 귀, 발, 손 없는 손, 몸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자체를,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놓은 겁니다. 꽃에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면 아주 이쁘게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휴! 저건 별로 보기 싫어.' 하면 그것도 빨리 시듭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 밝고 귀 뜨게 해서 발 없는 발, 손 없는 손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발전시키고 창조력을 기르게끔 스님네들이 환희심을 가지고서 이끌어 주는 그 마음이 저 부처님한테 다 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저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둘이 아니게 끌어 잡아당겨서 내 마음의 뿌리, 주인공에다 놓고 삼배를 올리든지 일배를 올린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급하면 일배를 올려도 삼배가 되는 것이고 급하지 않으면 삼정례를 그냥 하시고, 칠정례나 팔정례나 삼정례나 일정례나 다 똑같습니다. 급하면 일정례를, 급하지 않으면 칠정례를 해도 되고 삼정례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못 박아 놓은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이 세상 모두가 그래요. 먹고 사는 것도 모두 고정되게 못 박아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때에는 이거를 해 먹기도 하고 저 때에는 저걸 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국수도 먹고 어떤 때는 밥도 먹고 어떤 때는 잡곡도 먹고, 고정되게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마음도 역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씀씀이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점안식 얘기 하다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간편하죠. 저 부처님 한마음을 끌어 잡아당겨서 내 마음으로 통하게끔 하나로 놓고 절을 하고,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일배를 하더라도 그렇게 친근히 하신다면 아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자기가 생각하고 움죽거리고 행을 하셔서 체험을 하시고 그 맛을 본다면 '부처님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저렇게 베푸시니 이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정말 한나절 울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그렇게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요사채,산신각,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 현불 논단 |

'갑질 사회' 벗어나기 위해선…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 논란
여론 뭇매 · 당국 조사까지 이어져
권력층 윤리의식 미성숙함 확인

갑질 비판 · 문제제기 있어야 극복
을의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용기내서 자신의 권리 주장해야

평등한 대우받는 사회가 '불국토'
당신 이웃이 '부처' 임을 상기하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가 심한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던져 재벌일가의 갑질논란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사건' 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현아 부사장의 친동생이다. 보도에 의하면 조씨 집안의 갑질행태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장남인 조원태 사장은 2005년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손녀를 안고 가던 70대 할머니를 폭행해 말썽을 빚었고,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운전기사와 가정부, 직원 등에게 일상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면서 말 그대로 '갑질 가문'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에 공개된 녹음파일을 들어본 사람들은 괴성에 가까운 쇳소리에 소름이 돋을 것이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과 각종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기위해 개설된 사내 카톡방에 9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는 그동안 대한항공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불법과 탈법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당국의 조사가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일이다.

필자는 갑질과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씁쓸한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윤리적 시민의식이 그만큼 미성숙했다는 한국 특유의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는 이와 같은 갑질을 가리켜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력자인 대기업 오너 가족이 보이는 매너 없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덧붙여서 그는 "그렇다고 이를 노예들의 합창처럼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끊임없는 비판과 문제제기를 해야 비로소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질을 '을' 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주인과 노예의 주종관계로 전락하게 되어 감히 주인을 극복할 용기를 갖지 못하는 노예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새겨들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2030세대들이 힘 있는 자들의 부당한 갑질에 분노하고 이를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정의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취업절벽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나의 권리' 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당찬 젊은이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같은 시민적 각성을 갖춘 2030세대야말로 기성세대의 볼썽사나운 갑질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더 나아가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미래의 희망임에 틀림없다.

사실 '미투 운동' 과 '갑질 근절 운동' 은 본질상 같은 속성을 갖는다. '갑' 의 행동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참고 견뎌보겠다는 '을' 의 인식만으로는 부정의한 '갑을관계' 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낸다면 시대착오적인 갑질 문화를 추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평등하게 대하는 사회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시민사회이자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국정토' 에 다름 아닐 것이다. 불교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과 정확하게 같은 말이다. 갑질을 예사로 여기는 사람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당신과 나는 똑같이 불성을 가진 예비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社 說

한반도 평화, 불교가 이끌자

2018년 4월 27일 9시 29분.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손을 맞잡았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한 두 정상은 오후 5시 40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을 내놨다.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정전 체제 확립이 주요 기조로 담겼으며,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일체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남 · 북 · 미 3자 혹은 남 · 북 · 미 · 중 4차회담 개최 등을 세부 사항으로 내놨다.

이번 ' 선언' 으로 70년의 냉전이 종식되는 시작점에 남한과 북한은 섰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봐야하지만, 이번 선언으로 남 · 북한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결과를 내기까지 불교계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6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소임자들이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조계사 범종을 타종했다. 회담 당일 아침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사찰 1만 5천 곳에서 범종 타종이 이뤄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개최한 행복바라미 축전에서는 2만여 불자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금강경〉을 독송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한반도 정세는 이제 갈등에서 '평화' 모드로 전환됐다. 불교계는 문화 교류 등을 통한 통일 불사에 나서야 한다. 진정성과 신뢰로 남북 불교계가 교류를 이뤄가면 언젠가는 통일과 한반도 평화라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불교가 이끌어야 한다.

자비 등불 밝힐 연등회를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이 머지않았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는 환희의 물결이 일고 있다. 또한 5월 11~13일간 대한민국 문화1번지 종로 일대에서 펼쳐질 2018 연등회에서는 10만 개에 달하는 연등과 장엄등이 거리를 수놓고, 전 국민의 화합을 이끌 노랫말과 선율이 울려 퍼질 전망이다.

부처님오신날즈음 불자들은 으레 사찰을 찾아가 개인의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적어 등을 단다. 단순히 불보살의 가피를 바라는 이와 스스로 성취하기 위한 결심의 방편으로 삼는 이 모두 생각은 다르지만 자신만의 연등에 많은 것을 담는다. 이처럼 내 손으로 직접 등을 달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힐 때다.

연등 불빛은 흔히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무명(無明)을 걷어내는 지혜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그렇기에 연등은 곧 수행의 의미를 갖고, 불을 밝혀 어둠을 밀어내는 과정을 상구보리(上求菩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명과 생명 간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 하화중생(下化衆生)으로 거듭난다. 올해 연등회 표어인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 바로 이 과정을 축약해 보여준다.

사회 전반적으로 마음치유와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곤 하지만 삶이 과거보다 더 팍팍해졌음을 의미한다. 부디 연등회를 이끄는 한국불교가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정신을 사회에 보다 널리 전하길 바란다. 불자 개개인 모두 눈에 보이는 등만이 아닌 마음의 등불을 밝혀 어둠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네자.

특별기고

② 페트라 · 예루살렘서 보내는 편지

조계종 교육원은 4월 1~11일까지 승려해외연수 '혜국 스님과 함께하는 이집트 · 이스라엘 · 요르단 해외문명기행' 을 진행했다. 당시 연수 진행을 담당한 교육부장 진광 스님이 서간문 형식의 기행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스님의 기행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화해 · 관용의 세상을 기원합니다



진광 스님
조계종 교육부장

여기는 세계문화유산인 고대 대상무역로의 중심이었던 페트라 유적지입니다. 페트라 유적은 드라마 '미생(未生)' 의 마지막 장면의 무대로, 세계인에게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성배의 진실' 의 배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미생' 의 마지막 장면에 페트라의 알 카즈네 신전을 배경으로 중국 대문호인 루쉰(魯迅)의 소설 '고향' 중의 한 대목이 나레이션으로 흘러나오던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희망(希望)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이 나 또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감으로써 최초(最初)이자 최고(最高)의 길을 창조하고 싶습니다. 내 삶과 수행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희망의 지표(指標)로 남고 싶습니다.

페트라 유적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경이로웠습니다. 페트라의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역시 장밋빛 사암을 깍아 만든 신전이자 무덤인 알 카즈네 피라움(파라오의 보물)입니다. 높이 40m, 너비 28m의 정면 모습은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入城)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먼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참배했습니다. 나치에 의한 600만 명의 대학살의 참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인지라 눈물을 짓게 됩니다. 연기(緣起)와 공성(空性)에 대한 이해를 통한 화해와 관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통곡의 벽' 을 참배하니 저 멀리 황금돔 사원과 대비되어 통곡의 벽에 모인 유대인의 아픔과 한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도 갔습니다. 예수탄생교회를 참배하며 말구유간에서 태어난 예수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베들레헴서 돌아오는 길에는 이스라엘에 의해 설치된 그 말로만 듣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우리 DMZ 휴전선 장벽이 떠올라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의 전경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위에서 지도법사 혜국 스님을 모시고 회향식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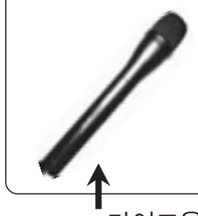
한국에서 준비해온 노란 리본을 매달고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를 함께 하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리본 사이로 눈물과 한이 서린 예루살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통곡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언제쯤 이곳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하루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 (USB 내장)』 셋트로
단 160만원 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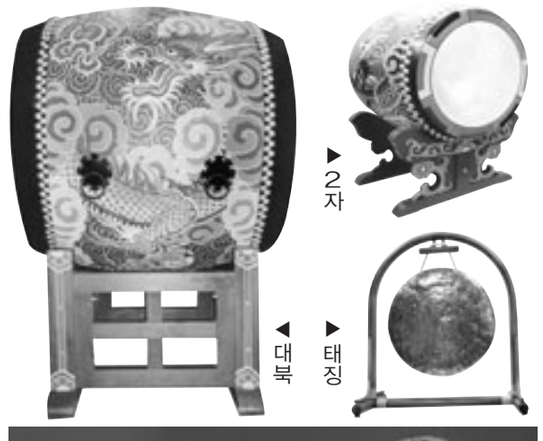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다르마킹 칼리지
⊙깨달은 절수행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 알아차림 고마움의 감사 만트라 사마타 위빠사나 알아차림의 완벽한 절. 인류 최고 최상의 건강법
절교육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30분
⊙깨달은 염불禪수행
4박자 1분 15회 60박자 리듬 운율 호흡법 완벽해야 잡생각 딱 끊어지는 알파파 행복 홀몬 세로토닌 쏟아진다.(염불 독경하며 가슴 어깨로 역호흡, 입으로 들숨은 병 불행의 원인)
⊙깨달은 호흡법
누구나 저절로 자동 단전 공명호흡이 되어지는 7가지 특수동작(머리의 불을 끄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심신 건강과 수행의 핵심)
⊙깨달은 감사예경 명상
번뇌 망상 딱 끊어진 참마음 참나 불성 홀깃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전 11시~12:30
⊙깨달은 와선 수행
요지부동 삼매체험, 심신 이완의 최고 경지 몸 숨 맘 사라짐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 저녁 7시~8시
⊙깨달은 참 행선 수행
황토마사길에서 맨발 11자, 오금 펴고, 손 악고, 가슴 들고, 입꼬리 올리고 미간 펴고, 미소 지으며, 시선 180도 몸 맘 지켜봄 알아차림
⊙깨달은 힐링 치유법회
7시간 쉬지 않고 화끈하게 웃으며 행복한 환희의 축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깨달은 삼천배 웰빙 힐링법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6시
※템플스테이 20대 출가 예정자, 대학생, 군인, 재수생은 무료
(재)깨달은 공동체 법왕정사
한불 몸숨맘 사띠 연구소 청견
www.법왕정사.net ☎ 010.3487.003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2자
◀대북
▶태징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정견(正見, 바른안목)이
대작불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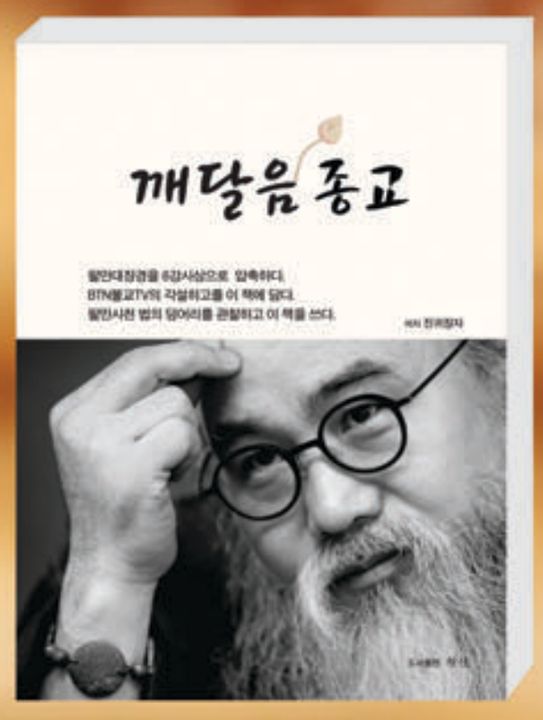
정견(正見)의 씨앗에는
고통과 병통의 싹이 돋을 수가 없다

정견(正見)을 증득한 선지식이 아니고선
지독하고 질긴 고통과 병통을
벗어 날 길은 없음이로다

요즘같은 말법시대에
지구를 열 바퀴 도는 여행은 할 수 있으나
〈깨달음 종교〉와 인연짓기는
참으로 어렵고 어렵도다

붓다의 법은?
마음 밖 유위법으로 해결하려는
외도들의 도움없이
홀로이 스스로 정견(正見)이 깨어남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이를 참된
대작불사(大作佛事)라 함이로다.....



NAVER 깨달음 종교 검색
Daum 진귀장자 검색
Google 진귀장자
문 의 : 1899-9532

※ 전국서점 및 인테넷서점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성보에 담긴 佛心을 전하다



경주 남산 삼릉계곡의 '선각육존불' 앞에 선 김춘식 불교문화 전문 해설사가 환하게 웃고 있다.

그대는 자비보살 김춘식 불교문화 전문 해설사 (63 ·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수)

뒤 늦은 불연, 단단한 불심

사업체 부도 겪으며 불교 만나
38세, 부산불교산악회 첫 인연
집행부 이사 맡고 모임 이끌어
불교산악인 모임 붐 조성 시초
산악회 활동으로 불심 자라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이 땅의 유적과 문화재는 대부분 불교의 흔적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적과 문화재의 이해는 곧 불교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불교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불교의 이해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론인 것이다. 그래서 불교와 불교문화재를 제대로 알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20여 년 사찰과 사지, 그 밖의 도량에서 불교문화를 해설하며 전법의 길을 가고 있는 이가 있다. 불교문화 전문해설사인 김춘식 교수(부산불교교육대학)를 4월 19일 불국토로 불리는 경주 남산에서 만났다.

해설사 넘어선 통역가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박물관에는 이 남산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찰과 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죠. 그것이 이 땅의 문화재인 것이죠. 그것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하죠. 그리고 우리 같은 해설사가 누구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김 교수는 단순히 해설사를 넘어 통역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해설은 단순히 외형적인 해설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안내판의 활자에서는 볼 수 없는, 해설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것은 말없이 서있는 문화재들과 나눈 이야기를 전하는, 곧 그것은 통역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 '통역'은 불심에서 온 것이며, 쉼 없는 공부에서 온 것이다.

"이 땅의 문화재는 대부분 불교의 흔적들입니다. 곧 부처님 세계와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조금 깊이 생각하면, 그것은 곧 설법인 것이고, 문화재 자체가 법문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김 교수는 이 땅의 곳곳에 남아 있는 그 흔적들에서 부처님의 법을 읽고, 아직 불법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그 법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김춘식의 '해설'이다.

국토 곳곳이 불국정토

"우리나라 가장 높은 산봉우리 이름은 비로봉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을 상징하며 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징화한 결과입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을 친견하는 마음으로 꼭대기를 오르면 어떤 심정일까요? 마음이 벅차지 않습니까?"

남산 삼릉에서 만난 김 교수는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후, 불두가 없는 '석조여래좌상'을 만났다. 김 교수는 부처님을 한참 바라보다 "한국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처님이다. 불두가 없는 모습에서 불교가 겪은 고초와 역사를 깊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을 더 오르자 '선각육존불'이 눈앞에 나타났다. 삼릉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왼쪽 편에 위치한 '선각육존불'은 큰 바위에 새겨져 있었지만 마치 종이 위에 그린 그림처럼 자유로운 솜씨가 절로 감탄을 불러 일으켰다.

"오른쪽 뒤편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이 석가모니부처님이시고 왼편 앞 바위에 있는 분이 아미타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좌우 보살상을 자세히 보면 한 쪽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 가득히 연꽃을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부처님이 뒤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이유는 그 때 당시는 중요한 순서대로 뒤편 가운데를 상석 자리로 앉았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을 보다 뒤에 새긴 이유는 아무래도 그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 추측됩니다."

김 교수는 문화재를 보자마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했는데, 쉬운 설명과 명쾌함이 돋보였다.

삼릉계곡을 따라 계속 올라가자 경주시를 내려다보는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이 나타났다. 거대한 바위벽에 새겨진 불상은 머리에서 어깨까지는 입체적으로 조각 됐고 몸체는 선각으로 조각된 특이한 모습이다. 불국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불교가 그대로 남아서 또 한 번의 불국토를 꿈꾸는 듯 그 모습이 웅장하고 여법하다.

"불교 문화재를 만나기 위해 산을 오르거나 사찰을 찾으면 그 주변 모두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장엄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곳을 보십시오. 산에 핀 꽃들은 부처님께 올리는 '꽃공양' 같지 않습니까?"

불자산악인과의 만남

김 교수가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불교산악인 모임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선배의 권유로 들어선 동호회 이름은 '부산불교산악회'였다. 부산불교산악회는 1993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세워진 불자 산악인 모임으로, 등산이라는 취미를 즐기며 아울러 수행까지 하는 모임이었다. 창립 때부터 함께 한 김 교수는 처음엔 모임의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다.

"그 때 저는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이름에 불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때 당시 제가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시절이어서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던 때라 산악회에 가입을 하게 됐고, 산과 사찰을 찾으면서 점점 마음의 힘을 얻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저는 점점 부처님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부산불교산악회에 가입하기 전인 1990년에 산업설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자살을 수도 없이 생각했고, 오랜 시간 방황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선종사원의 욕실(浴室)과 지욕(知浴)

B5
문화
분청대장경 조성 기금 마련 선서화展

B6
학술 · 문화재
청화사상연구회, 제10차 학술세미나

“문화 알리는 것이 곧 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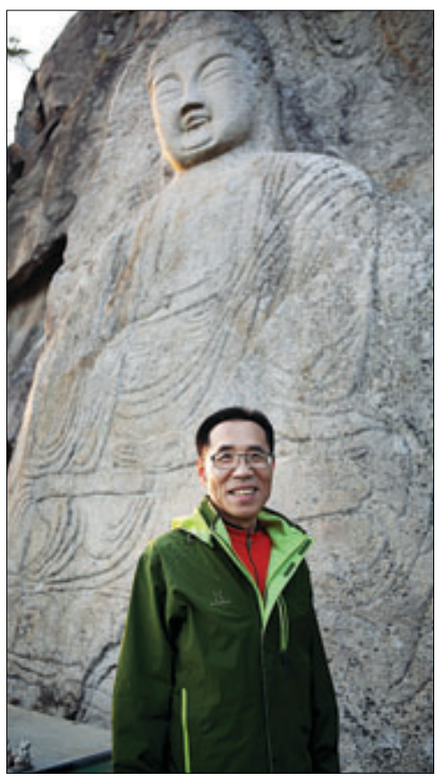
2018년 4월 15일 (사)미소원과 진행한 해남 대흥사 현장답사에서 대흥사에 대해 해설하고 있는 김춘식 교수.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불교문화학을 강의하는 김춘식 교수.

김춘식 교수는?

경북 영천에서 출생, 경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1993년 부산불교산악회에서 불교를 처음 만났으며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에서 운영이사로 활동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부단장을 역임했으며 부산불교방송 산악회를 결성했다. 현재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불교문화포교사 양성 강의를 맡고 있다. 전법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12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상과 2007년 6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춘식 교수’ B1면에서 계속

불교문화 전문 해설사 20여 년

포교사 시험 통과 해설사 시작

부산지역 ‘사찰 안내팀’ 계기로

불교 공부 문화재 공부 시작

현장·블로그로 불교문화재 해설

“문화재 대부분 불교의 흔적”

20여 년 동안 300여 사찰 방문

“문화재 해설은 불교 알리는 일, 불교 제대로 알고 해설해야”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고 ‘죽을 힘을 갖고 살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힘조차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전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은 후에는 자살한 사람에 대한 뉴스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산불교산악회에 가입했을 당시 30대였던 김 교수는 젊고 책임감이 강해 회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집행부 운영이사를 맡아 모임을 이끌었다.

“회원 100여 명이 범어사 탑전에 모여 창립법회를 열면서 부산불교산악회는 시작됐고, 전국으로 확대 발전하며 전법에 일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찰을 돌며 선수행과 및 법문을 듣고, 4시간 정도의 산행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습니다. 창립 후 15년 동안 청춘을 모두 바친 곳입니다”

부산불교산악회 창립 후, 전국 곳곳에서 불교산악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9년에 대구, 서울, 대전 등 전국의 불자산악인을 모아 힘을 집결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가 만들어지게 됐다.

“2009년에 전국불자산악인들이 부산에서 제10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금정산 고당봉을 오른 후 2000여 명의 불자 산악인들은 범어사 대웅전 마당에 모여 창립을 기념하는 법회도 여법하게 열었지요. 회원들의 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산행이라는 도구는 도반들을 만나고 사찰로 이끄는 수단이 되기에 충분했으며, 궁극으로는 산행 자체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불자가 되다

김 교수는 부산불교산악회에 가입한 후에 기본적인 사찰 예법을 배우면서 불교산악회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신행을 시작했으나 진정한 불자로서의 신심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었다. 그러다보니 불가의 전반적인 문화나 정서에 젖어들지 못했다.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대웅전 외에 다른 전각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는 불자들을 이해 할 수가 없었어요. 산신각이나 사대천왕을 보면 우락부락한 모습에 공포심이 들기까지 했지요. 불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궁금증을 해결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할 때 쯤, 부산불교교육대학을 졸업한 회원이 다가와 제게 입학 원서를 내밀었습니다.”

김 교수는 몇 차례 거절을 했지만 재차 입학을 권하는 도반의 정성에 김 교수는 마침내 부산불교교육대학에 입학한다. 부산불교교육대학에 입학한 김 교수는 처음 보는 불교 용어와 한자 등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 김 교수가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조계종포교사단 시험 소식을 듣게 되고 시험에 응시한다.

“제가 포교사 시험에 응시하게 된 이유는 자존심 문제와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대부분의 회원들은 시험에 응시하는 분위기였고, 나중에 들으니 시험을 보지 않아서 포교사가 되지 않으면 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에 불합격된 사람으로 인식되더라고요. 힘겨운 시절을 보내며 마음 붙일 곳을 찾아 온 곳인데, 될 수 있으면 회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게 됐죠.”

김 교수는 최선을 다했다. 잠을 쫓기 위해 무릎을 꿇고 공부하며 밤을 새는 날도 많았다. 무사히 시험을 치른 김 교수는 마침내 시험을 통과하고 포교사로서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에 가입한다. 그리고 ‘사찰 안내팀’ 일을 시작한다.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여전히 저에게 불교는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분야를 선정해 활동을 해야 했는데, ‘사찰 안내팀’이 수월해 보였어요. 화장실이나 종무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안내 정도를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찰 안내팀의 일은 김 교수의 생각과 많이 달랐다. 사찰 안내팀은 단순히 화장실이나 종무소를 알려주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사찰 안에 있는 문화재와 사찰의 내력 등을 방문객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는 일이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일이었고, 머리로만 하는 불교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불심이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 매번 모임마다 팀장은 공부를 미리 해 문화재에 대해 풀어 설명해야 했다. 김 교수가 불교문화 전문 해설사로서의 시작은 그 때부터였다.

“학생 때 역사 과목이 제일 싫었습니다. 연도를 외워야 하고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정말 고리타분한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외우고 공부해야 하는 일이 남은 제 삶의 이유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김 교수가 그 일을 시작했을 당시는 인터넷이 일반화된 지금처럼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다. 김 교수는 자료를 구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고, 새로운 책이라도 나오면 바로 서점을 찾았다. 김 교수는 부산불교산악회 모임뿐 아니라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부산불교방송 산악인회, 부산대 평생교육원, 부경대 한국사 공부 동호회, 사단법인 미소원 등에서 불교문화재 해설을 했고, 그 자료를 모아 정리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 ‘서백의 사찰이야기’에 글과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자료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라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최근 5년간 다녀간 방문자가 40만 명이다. 사찰답사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입소문으로 인해 매년 2000명에 달했다.

“교구본사 혹은 유명 사찰을 제외하고 작은 사찰을 방문해 글을 올린 곳만 250여 곳입니다. 전국에 숨어 있는 사찰이나 사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대부분 재능기부 형태로 일했습니다. 불교문화재는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흥미를 가지고 듣습니다. 해설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이 불교를 알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자연스럽게 전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김 교수는 그렇게 뒤 늦게 불연을 맺고 20여 년 불법을 전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문화재를 정확하게 알고 연구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교문화재 해설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불교문화재는 상징을 담고 있어 정확하게 복원해 후세에 전달해야 합니다. 정확한 복원을 위해서는 불교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문화 포교사를 양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산을 내려오는 길, 어느새 경주는 어둑해졌다. 부처님을 바라보며 미소짓는 김 교수의 얼굴에는 잔잔한 주름이 드러났다. 사랑하면 닮는다 했던가. 김 교수 얼굴의 주름이 마애불의 선각(線刻)처럼 보였다.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육신의 때는 욕실, 마음 때는 좌선당서

〈垢〉 〈煩惱〉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⑨ 선종사원의 욕실(浴室)과 지욕(知浴)

(1) 욕실(浴室 · 목욕탕)

당송시대 선종사원에는 대중 공용 목욕탕이 있었다. 당시 선원총림은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천명 이상의 대중들이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땀 냄새' '피부병' '벼룩' '이' 등이 생기고, 선당의 청결을 유지할 수 없고 대중들의 건강도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목욕탕을 장로종색의 〈선원청규〉(1103년 편찬)와 동양덕휘의 〈칙수백장청규〉(1338년 편찬)에서는 '욕실(浴室)'이라고 하고 있다. 천 년 전 당 · 송시대부터 목욕탕이 있었으니 선종사원은 문화적으로 매우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반에서는 고위층만 집안에 목욕시설이 있었고, 일반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욕실은 칠당 가람의 하나로서 생활 문화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당우(건물)이다. 욕실의 위치는 원래는 산문에서 보면 오른쪽 편 고원(庫院 · 주방, 식자재 창고, 종무소) 아래에 두었는데, 때로는 그 반대편인 승당 아래나 또는 뒤쪽에 있는 경우도 있다. 욕실의 위치가 이와 같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급수 조건 때문일 것이다. 즉 경사가 완만하여 물이 잘 흘러 들어오는 곳을 고려하여 위치를 정하다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지 않고는 물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욕실의 다른 이름

욕실을 '선명(宣明)'이라고도 한다. '선명(宣明)'이란 깨끗하고 상쾌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욕실에는 발다바라 존자상을 모신다. 우리나라 사찰 향적실(부엌 · 공양간)에서 조왕대신을 모시는 것과 같다. 그 까닭은 이렇다.

〈능엄경〉 5권에는 발다바라 존자가 16명의 보살들과 함께 욕실에 갔다가 나왔더니 몸과 마음이 아주 선명(宣明)해졌다는 법화(法話)가 나온다. 여기서 연유하여 욕실을 '선명(宣明)'이라 하게 되었고, 욕실에 발다바라 존자상을 모시게 된 것이다. 육신에 묻어 있는 때(垢)는 목욕을 통하여 선명(宣明)하게 제거했고, 마음의 때(번뇌)는 좌선당에서 제거하여 항상 내외명철(內外明徹), 안과 밖을 선명(宣明)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 욕실을 '향수해(香水海)'라고도 한다. 목욕탕의 물은 '향수(香水)의 바다'라는 뜻인데, 너무 의미가 아름답다. 항주 경산사, 영은사, 영파 천동사 욕실 편액은 향수해이고, 지금 일본 영평사 욕실 편액도 향수해(香水海)이다. 욕실의 물은 깨끗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향수(香水)'라고 미칭했으니 명작(名作)의 대가는 모두 선승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선승들은 항상 화엄의 '일체유심조' 관점에서 사물을 대했던 것 같다.



일본 영평사 욕실. 현판이 '향수해(香水海)'라고 붙어 있다.

(3) 목욕하는 날

선종사원에서 목욕은 계절에 따라 좀 다른데, 겨울에는 5일에 한번, 여름에는 '임한(淋汗 · 샤워)'이라고 하여 매일같이 했다. 〈칙수백장청규〉 '지욕(知浴)' 장(章)에는 "동절기에는 5일에 한 번(4일 · 9일 · 14일 · 19일 · 24일 · 29일) 목욕을 하고, 하절기에는 매일 목욕(사워)을 한다(〈칙수백장청규〉, '知浴'. "凡遇開浴, 齋前掛沐浴牌. 寒月五日一浴, 曙天每日淋汗." -대정장 48권, p.1131b)라고 나온다.

여름에는 매일같이 샤워를 한 것은 무덥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인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매일같이 목욕을 하지 않으면 피부병 등이 발생하게 되고, 또 피부병이 전 대중들로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일같이 목욕을 하도록 했으니, 선종사원은 번뇌[塵埃(진애)]가 잠시라도 머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목욕 시작을 '개욕(開浴 · 욕실의 문을 열다)'이라고 한다. 목욕은 점심 공양이 끝난 직후에 시작하는데, 그에 앞서 공양하기 전에 목욕패(목욕을 알리는 패)를 승당과 중료(대중방) 앞에 내다 건다. 그리곤 공양 후 종(鐘)과 판(板)을 쳐서 곧 목욕이 시작됨을 알린다.

욕실에서의 예법은 매우 까다롭다. 욕실은 삼묵당(三默堂 · 욕실, 동사-화장실, 승당)의 하나로 일절 잡담을 할 수 없다. 특히 선종사원은 무언(無言)의 세계이다. 그런 곳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승의 정신이 아니다. 또 탕(湯=鑊) 속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함부로 목욕물을 끼얹어서도 안 된다.

또 욕실에서 옷을 빨거나 이를 잡아서도 안 되고 발가벗고 욕실 안을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하고, 사용한 도구는 반드시 제자리에 두고, 벗은 승복은 잘 정리해 두고, 항상 깨끗하게 사용할 것 등 지켜야 할 규칙이 매우 많다.

당송 때부터 대중목욕탕 운영
욕실엔 발다바라 존자상 모셔
동사, 선당과 함께 삼묵당 하나

목욕을 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다. 대중을 우선시했던 당 · 송 · 원대에는 목욕의 1순위가 선당의 수행승(즉 衆僧)들이었다. 2순위는 종두(鐘頭) · 채두(菜頭) · 수두(水頭) 등 하급 소임자들과 행자들이고, 3순위가 주지와 6지사 등 상급 소임자들이었다. 그런데 명대에 와서는 순서가 주지 · 6두수 · 6지사 · 단월거사(신도) · 수행승(대중) 순으로 역전되었다.

(4) 지욕(知浴)

욕실 책임자(소임)를 당 · 북송시대에는 '욕주(浴主)'라고 했고, 남송시대 부터는 '지욕(知浴)'이라고 했다. '욕주(浴主)'나 '지욕(知浴)'은 6두수의 하나로서 상위 소임이다. '知'는 '담당' 혹은 '맡다'라는 뜻으로 고려 조선시대에도 각 부서의 상위 담당자 관직 앞에 '知'자를 많이 붙였는데, 일테면 중추부 상위직을 '지중추원사(知中樞府事)'라고 한 것과 같다. 오늘날 각 도(道)의 최고 책임자를 '道知事(도지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이들(욕주, 지욕)을 흔히 '욕두(浴頭)'라고 부르고 있는데, 욕두는 지욕 밑에서 잡일을 돕는 소임으로 주로 행자들이 맡는다. 욕두 행자는 한 두 명이 아니고 5-6명이나 된다. 목욕탕의 잡일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사찰의 욕실(목욕탕)을 볼 수가 없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있었겠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교토에 있는 임제종 총본산인 묘심사(妙心寺) 그리고 교토 오산 가운데 하나인 동복사(東福寺)에는 400년 된 전통 선종사원의 욕실(浴室)이 잘 보존되어 있다. 교토시(京都市)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데, 특히 일본에 가시는 선승들은 묘심사 욕실을 꼭 보셨으면 한다. 관람료 500엔이고 욕실 내부까지 들어가 볼 수가 있다.

묘심사 욕실 실내를 살펴보니 한 번에 약 20명 정도가 목욕할 수 있었고, 큰 확(鑊)을 설치하여 온수(溫水)를 데웠고, 몸을 씻을 때는 큰 통에 온수를 옮겨 바가지로 떠서 쓰도록 되어 있었다. 물은 밖에서 대나무 수로를 통하여 저절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확탕(鑊湯) 위에는 사우나 방이 있는데, 5~6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또 욕실 한 쪽에는 탈의실 겸 휴게실도 있었다.

일본에서 편찬된 〈선학대사전〉 흑백 도록 26쪽에는 남송시대 중국 영파 천동사의 욕실 평면도가 나오는데, 확인해 보니 확(鑊)의 위치 등이 묘심사 욕실 내부와 거의 같았다.

여담이지만 일본에는 1700년 초부터 대중목욕탕이 있었다. 대중목욕탕을 '센토(錢湯, 돈 내는 목욕탕)'라고 하는데, 일본 최초의 대중탕을 묘심사에서 운영했다. 위치는 묘심사 앞의 대로(大路) 변에 있었다. 이 대중탕은 문을 열자마자 인기 폭발이어서 날마다 장사진을 이뤘다고 한다. 고위관료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집안에 목욕탕을 두었지만, 일반인들은 여름이 아니면 목욕할 수가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 서민들도 목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복지 차원의 공간이었다고 한다.

선종사원에는 목욕하는 날은 정해져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동절기에는 5일마다 한 번씩, 하절기에는 매일 목욕을 했다(寒月五日一浴, 曙天每日淋汗). 그런데 율장 사분율에는 15일에 한 번 목욕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해인사의 경우 동(冬)하절기에 관계없이 15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한다. 필자가 70년대 초에 해인사에 있을 적에도 15일에 한번 씩 목욕을 했다(음력 14일과 29일에 함).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천 년 전에 중국 선종사원에서 '겨울에는 5일에 한 번 목욕을 한다'는 것도 율장의 규정과는 너무나 상이(相異)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하절기에는 매일같이 목욕(淋汗, 샤워)을 했다는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샤워 시설이나 목욕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그 시대에, 겨울에는 5일에 한 번, 여름에 매일 같이 목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이는 분명 청규상의 착오라고 판단했다.

그러던 차에 2008년 7월 초에 중국 영파, 항주 등에 있는 선종사원을 답사하게 되었다. 항주와 영파는 남송시대 5산인 영은사, 정자사, 경산사, 천동사, 아육왕사 등이 있는 곳이다. 7월 1일에 갔는데, 이 지역 여름은 정말 찜통이었다. 7월 초면 초여름인데도 온도는 37℃였고 습도는 80%가 되었다. 땀이 그야말로 물처럼 줄줄 흘렀다.

하루에도 러닝셔츠가 5-6번씩 젖었는데, 첫날을 답사하고 나서는 너무 더워서 답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항주까지 왔느니 체념하고 5일 동안 답사했는데, 그때 비로소 선종사원에서 여름에는 매일같이 목욕을 하게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안내자의 말은 더욱 기가 막혔다. 한 여름 8월에는 45℃까지 치솟고 1년에 약 230일 정도가 흐리거나 비가 와서 습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적어도 100명에서 많게는 천명이 수행하는 좌선당에서 매일 같이 샤워를 하지 않는다면 땀 냄새가 진동할 것이고, 또 몸이 땀으로 끈적끈적해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화두 참구가 되겠는가? 정신과 육체가 맑고 청결해야 화두참구가 되는데, 샤워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욕실에서 목욕을 할 때는 많은 규칙이 있다. 여름에는 욕실에 들어가서 10~20분 이상 있을 수 없고 겨울에도 30분 이상 있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많은 대중들이 목욕을 하자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민족사 대표〉



‘윤회’ 끊기위한 호흡 수행은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브람 지음/불광 펴냄/2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120년 역사를 자랑하며 심신의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영국의 〈왓킨스〉지는 지난 2월 ‘2018년 현존하는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스승 100인’을 발표했다. 교황 프란치스코, 달라이 라마, 데스몬드 투투 등을 비롯해 100인이 이름을 올렸고, 이 속에는 이 책의 저자인 아잔 브람의 이름도 올라 있다. 불교 승려로서는 달라이 라마와 틱낫한을 제외하고는 유일하다. 그는 해외서 법문 요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매주 금요일 호주 퍼스 시 숲속의 보디냐나서 직접 법문 한다. 이는 매번 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되는데, 공개와 동시에 회당 수만서 수십만 회 이상의 클릭수를 기록한다. 그의 불교 강의는 2018년 현재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불교 강의’다.

깨달음으로 가는 호흡 수행 16단계 강의

이 책 역시 아잔 브람의 강의를 엮은 것이다. 2017년 1월 스리랑카에서 승려들을 대상으로 열흘간 총 15회의 강의가 있었는데 강의 주제는 ‘위빠사나 수행’이었다. 아잔 브람은 강의에서 경전에 나타난 (깨달음을 얻기 위한) 호흡 수행의 16단계, 그리고 이 과정 중 나타나는 장애 그리고 수행 후 얻게 되는 도(道)와 과(果)를 차례대로 설명한다.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열다섯 번의 강의에 온전히 담은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여느 법문집이나 강의서와는 사뭇 다르다. 역자는 단순히 강의 원고를 녹취해 풀고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부분의 경전 출처를 찾아 다시 수록하는 작업을 했으며, 주요한 단어에는 한국어 설명과 함께 빨리어 원문을 병기해 실었다. 스리랑카 스님들은 대개 경전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자 역시 경전의 제목만 언급하고 설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책에는 일반인들이 해당 경전 구절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고자 별도의 작업을 거쳤다. 이런 이유로 독자는 강의를 더욱 선명히 이해할 수 있다. 역자는 당시 강의에 참석했으며 현재 스리랑카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 지나왐사 스님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기 때문에 이 책은 현재까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출판이 되었다.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수행’ 강의 엮어
호흡수행 16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각 단계 도달 위한 수행과 통과의례 소개

왜 호흡 수행인가?

이 책은 깨달음에 이르는 호흡 수행에 대한 강의다. 여기에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호흡 수행의 열여섯 단계가 그대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 호흡 수행을 지도하는 목적은 ‘윤회’를 끊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는 최근의 마음챙김 관련 서적들이 강조하는 ‘스킬’이 없다. 업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줄여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거나 더 많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마음챙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아잔 브람은 이런 것은 작은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른 목적에 기반을 둔 것도 아니고 바른 견해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 책은 수행을 통해 놓아버림을 체득하고 종국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렇다면 아잔 브람이 말하는 수행의 목적, 그리고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깨달음(想受滅)을 얻게 되면 어디로 간다거나 어떤 경지에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잔치일 수도 있으며, 오해일 수도 있으며, 착각일 수도 있다. 여하튼 ‘진실’이 아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몸이 사라지고, 의지가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감이 사라지고, 아는 대상이 사라지고, 아는 자마저 사라진다. 혹자는 이를 ‘단멸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단멸론은 무엇인가 존재해 있다가 사라진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존재하던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 원인과 결과만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원인이 소멸되어서 더 이상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잔 브람이 말하는, 그리고 경전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이 가장 쉽게 설명

이 책은 아마 지금까지 나온 위빠사나 명상 해설서 중에 가장 쉽고 명쾌한 책일 것이다. 초기불교 경전인 니까야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수행이자 깨달음(아라한과)을 얻는 방법으로 호흡 수행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모두 16단계로 나눠놓고 있다.

이 책은 1단계~16단계의 과정이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된다. 우선 각 단계에 대해 정의한 경전의 구절을 하나씩 소개하고 각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수행의 과정과 통과 의례에 대해 설명한다.

초보자에게는 호흡 수행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며, 이미 호흡 수행을 통해 일정한 궤도에 오른 사람에게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장애’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수행의 진보를 위해서는 무엇을 더 놓아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아잔 브람 특유의 유머와 더불어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은 위빠사나 수행이 처음인 사람들 그리고 전체 지도를 그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佛敎의 모든 궁금증 한번에 풀어 드려요



궁금해요, 불교

도업 지음/운주사 펴냄/1만 4천원

불교는 대체 어떤 종교일까?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뭐지? 불교는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까? 불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주변의 불교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의미는 뭘까? 등등.

일반인들이 불교에 대해 흔히 가질 수 있는 물음들이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한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종교를 말하라면 단연 불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심지어 불자들에게조차 불교는 여전히 미지와 신비의 세계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그만큼 불교의 세계가 방대하고 심오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여기서 불교에 대한 기초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정확한 입문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 특히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 내용과 역사, 그리고 불교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입문서라 할 수 있다. 저자는 대학에서 신입생에게 교양과목을 강의했는데, 불자가 아닌, 생전 처음 불교라는 것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과 접근이 필요했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내용을 불자가 아닌 학생들과 일반인들 누구라도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입문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 책은 모두 12강으로 구성됐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 1강은 이 책의 서론 격으로, 종교로서의 불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제 2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다. 제 3강은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연기법을, 제 4강은 성스러운 삶에 이르는 4가지 진리(사성제)를 다루는데, 이 두 개념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다.

제 5강은 불교의 존재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삼과설이고, 제 6강은 업과 윤회에 대한 설명이다. 제 7강은 삼독과 사종탐에 대한 이해이고, 제 8강은 부파불교와 대승불교, 그리고 대승불교의 실천수행법인 6바라밀에 대한 이해이다. 제 9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생 교화를 경전 속의 일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이 책의 큰 특징으로는, 매 주제가 끝날 때마다 ‘문제풀이’를 각 장의 말미에 배치함으로써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의 불교 실력을 확인하는 쏠쏠한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은 대학생들을 위한 교양서적의 역할을 위해 저술되었지만,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 상식과 불교문화 이해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 김주일 기자

한눈에 살펴보는 간추린 禪사상사



선사상사 강의

오가와 다카시 지음/이승연 옮김
예문서원 펴냄/2만원

인도의 달마를 초조로 삼는 선불교는 참선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는 단계적 · 점진적으로 서서히 깨달아 가는 점오와 한순간에 모든 것을 깨닫는 돈오가 있는데, 이 수행 방법에 의해 북종선과 남종선이 갈리게 되었다. 그 후 신수와 보적으로 이어진 북종선은 점차 쇠퇴했고, 혜능의 남종선이 남악-마조계와 청원-석두계로 나누어져 발전하다가 중당 이후 마조도일의 선이 주류를 형성했다. 또한 동시에 그것에 대항하여 석두희천의 선이 나타났다. 당대의 선은 송대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을 잇고 비판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송대의 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이 제도화된 시대이다. 선종이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제도 속으로 편입되었으며, 그것에 부응하여 선종 내부의 체계나 수행형태가 제도적으로 정비, 규격화되었다. 이때 깨달음을 얻기 위한 참선 수행의 방법으로 공안선(간화)이 등장하였다.

이후 송대선은 중국 본토에서는 새로운 사상적 발전을 갖지 못했지만, 고유의 언어나 문화의 벽을 넘어 동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어 나갔다. 이 시기를 계기로 고려와 일본 등지에서 선불교의 모습이 갖추어졌으며, 20세기에는 일본을 통해 서구사회로까지 확산되었다. 저자는 “내용을 최소화하면서 선종 사상사의 흐름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자들에게 강의하듯이 평이한 문장으로 쓰인 이 책은, 정밀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굵은 선으로 단 한 번에 완성한 그림처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선사상사를 그려 내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선의 흐름을 네 개의 단계로 나누어 소개한다. 1강에서 3강까지는 선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후 당대를 거쳐 송대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마지막 4강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선승의 생각을 기존의 사상과 대조시켰다.

그러나 선사상을 단순히 시대나 유파별로 분류하여 나열한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그런 여러 유형들이 왜 생겨났는지, 또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선자들의 입장이 나뉘었는지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4강에서는 일본으로 건너간 선불교가 일본만의 ‘선’으로 변형되는 모습을 그려내는데, 한국선 토착화 과정도 유추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김주일 기자

‘참선수행의 최고 안내서’이자 ‘수행 고백서’
원오심요 역주

‘불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중국 송대의 선의 중장인 원오극근 선사가 법을 묻는
이들에게 보낸, 선의 요체를 담은 가르침!
원오극근 지음/강승욱 역주/신국판 양장/976쪽/값 45,000원

참선하여 도를 깨치는 문으로 이끄는 ‘깨달음의 노래’
증도가 합주

『육조단경』과 함께 선종의 ‘이부경전二部經典’으로 불리는
『증도가』의 대표적 주석서 4가지!
남명 법천 외 저/철우 역주/신국판 양장/496쪽/값 25,000원

번뇌를 끊는다니 말이나 되는가!
번뇌를 끊는 이야기

번뇌를 끊으려는 그 생각이 또한 번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번뇌를 끊는다고 말하고 나와야 한다.
조계후학 현웅 저/신국판 양장/520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선화와 선필, 대장경 불사 동참

'평화통일기원 분청팔만대장경 조성 기금마련 선서화전'
서울 봉은사 보우당 5월13일(일)~20일(일)
설정 · 범주 스님 선필, 달마도 등 200여 점 전시
분청기법 대장경 조성, 선장 포함은 최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분청대장경연구소(소장 정우)는 5월 13일(일)부터 20일(일)까지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평화통일기원 분청팔만대장경 조성 기금마련 선서화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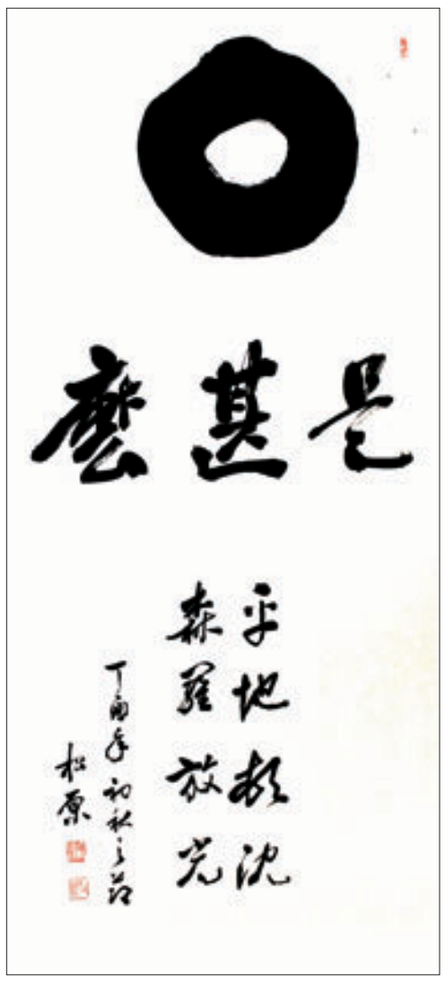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분청기법'이라는 새로운 경판제작기법을 개발한 분청대장경연구소가 남북 평화통일 기원 분청대장경조성을 위한 기금마련 전시로, 범주 스님의 달마도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서예 작품 등 총 200여 점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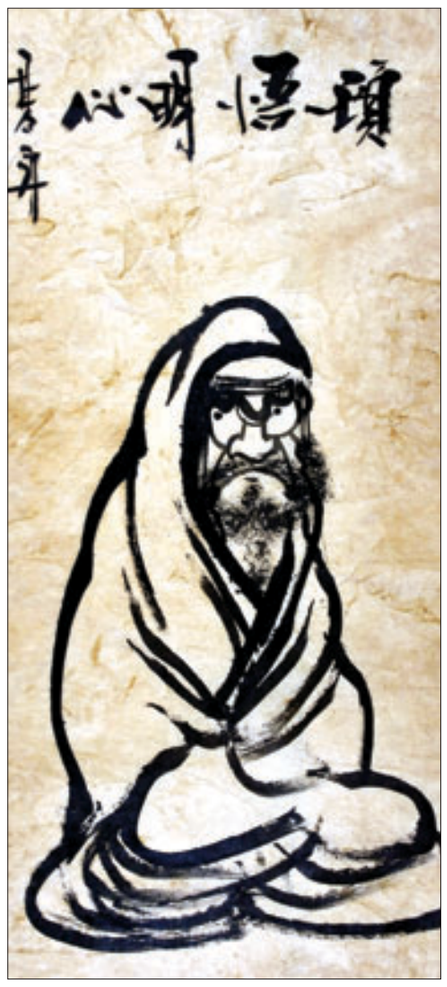
"그 옛날 국난극복을 위해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부처님 말씀을 새겼던 그 때처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염원을 담아 새롭게 개발한 분청기법으로 대장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분청기법이라는 새로운 경판제작 기법은 분청대장경연구소 소장 정우 스님이 성파 스님의 '분청'을 1년여에 걸쳐 보완해 완성한 제작기법으로, 도자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분청'을 이용해 경판을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목판이나 동판을 이용해 제작한 경판보다 보존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관 상태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새롭게 개발된 분청기법은 기존의 목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이 목판의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변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개발자인 정우 스님은 "시대가 발전하여 부처님의 말씀이 다양한 형태로 보존되고 전승되고 있지만 '경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달'의 개념을 넘어선 것으로, 불상을 모시고 탑을 조성하는 일과 같은 불사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금강같은 말씀을 새긴 경판의 한 글자 한 글자는 기도이고, 수행입니다. 대장경의 5천만여 자를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한 글자씩만 새긴다는 생각에서 국가적 염원으로 경판 조성의 원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고 원력의 동기와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고려대장경에는 없는 선장(선어록)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 시도되는 불사이며, 기존의 경 · 율 · 논장을 포함한 '평화통일 분청대장경'의 완성은 약 15년이 걸리는 대작불사이다.


설정 스님 作. '시심마'


범주 스님의 달마도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작은 통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통일은 그 작은 통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통일이란 '제 자신의 통일', '가까운 사람들과의 통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통일' 등 작은 통일이 하나 씩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평소 정우 스님의 원력불사에 동참하고자 했던 범주 스님의 유지 중 하나로, 문중에서 범주 스님의 작품을 기증했고, 설정 스님 역시 정우 스님의 원력불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작품을 기증했다. 지난 3월 25일 입적한 범주 스님은 '선묵일여'의 화두 안에서 50여 년 정진하며 달마도를 비롯한 선화(禪畵)로 출가공덕을 회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지난 4월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열린 최마리엘리사벳 수녀의 금속공예전을 통해 선필을 선보인 바 있다.

"얼마 전에 입적하신 범주 스님은 평소 대장경불사에 뜻을 같이 해주셨고, 불사에 필요하다면 작품으로 돕겠다고 하셨는데, 작품을 기증해 주신 문중에 감사하고, 설정 스님 역시 기꺼이 작품을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모두의 서원이 대장경불사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시회 개막식은 5월 13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문의 / 1899-9505(분청대장경연구소)

제3회 천태예술공모전 작품 공모

9월 5~6일 접수, 불화 · 민화 · 서예 등 7개 부문
수상작 10월 17일~23일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서 전시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 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3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대전의 공모분야는 △전통 · 현대 불화 △조각 △공예 △서예 · 문인화 △민화 △사진 등 총 7개 분야다.

응모 방법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작품을 출품원서(소정양식)와 작품설명서(소정양식)를 첨부해 서울 우면동 관문사로 보내면 된다. 사진 부문은 6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ct-gongmo@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전통 · 현대 불화와 조각분야는 1인당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규격은 200호(300cm) 미만이며, 표구된 완성 작품만 접수할 수 있다. 조각 분야는 높이 250cm 미만의 완성품을 제출해야 한다. 출품료는 1점당 5만원이다.

△공예, 서예 · 문인화, 민화 · 사진 분야는 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공예분야의 작품 규격은 가로 세로 50cm 이하, 서예 · 문인화 분야는 전지 이하(가로 70cm×세로 130cm), 민화분야는 100호(150cm) 미만, 전지 이하다. 사진 분야는 JPEG파일(최소 3024×2016픽셀, 최소 60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출품료는 공예부문이 1점당 5만원, 서예 · 문인화 분야와 민화, 사진 분야는 1점당 3만원이다.

대상 1명에는 상금 2000만원과 상장 · 상패, 최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각 500만원과 상장 · 상패, 부문별 우수상(분야별 1명) 7명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원과 상장 · 상패, 가작(분야별 1명) 7명에게는 상금 각 50만원과 상장, 특선에는 상장 · 상품, 입선에는 상장을 수여한다. 대상 작품은 천태종에 귀속된다.

출품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출품원서, 작품설명서) 작성 미비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발표작, 표절작, 사찰 봉안 및 판매된 제품과 타인 명의로는 출품할 수 없다. 기타 공모전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초대작가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 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작품 전시회는 10월 17~23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리며, 시상식은 전시회 기간 내 진행된다. 심사결과는 금강신문 홈페이지에 게재 후, 개별 통보한다. 문의 / 천태종 서울사무소(02-723-1559). 박재완 기자

조계종 불교음악원, 독일 종교음악제 초청 연주

국제종교음악제 5월 18일~22일,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이 독일에서 열리는 제14회 국제종교음악제(Festival Musica Sacra International)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독일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마르크트오버도르프에서 열리는 음악제에서 한국의 불교음악을 연주한다.

독일합창협회가 주최하는 국제종교음악제는 세계 종교의 문화 협력 증진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작된 음악제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세계 5대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총 8개국(독일, 스웨덴, 핀란드, 한국, 인도, 벨라루스, 나이지리아, 알제리)의 음악인들이 초청되어 6일 동안 14회의 공연을 펼친다. 이와 더불어 각 종교음악에 대한 강연도 진행된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이번 국제종교음악제에서 발표할 불교음악으로 선정 스님의 '화청'과 송나영 외 4명의 '보렴' 등 전통불교음악에 바탕을 둔 창작찬불가를 선정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 자료사진

박범훈 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국제종교음악제에 한국의 전통불교음악과 창작찬불가를 최초로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불교음악이 세계에 보다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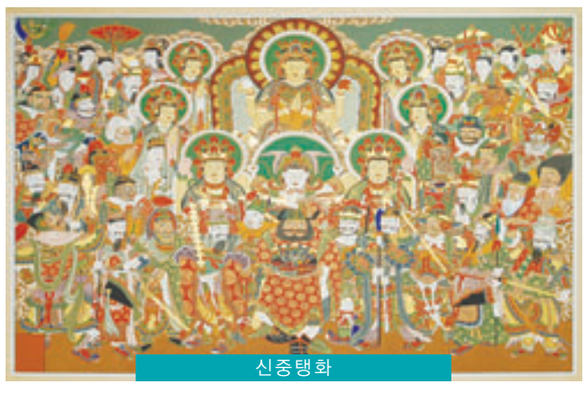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염불선, 불조 경론 올곧게 계승”

청화사상硏, 4월 21일 제10차 학술세미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실상염불선의 진여자성과 불성광명은 대승경전에 근거한다. 대승불교의 정점에 있는 불성사상을 조사선의 본래 성불 사상으로 회통시키고 있다. 이로써 염불선은 불조의 정통정맥을 계승하고 있다.”

금타 스님과 청화 스님이 주창한 염불선이 불조의 경론을 올곧게 계승하고 있는 창조적이고 전통적인 수행법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는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실상염불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청화사상연구회 제10차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청화 스님의 생전 법문을 분석하고 실상염불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한 정통 정맥임을 밝혔다. 과조사들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정통정맥임을 고찰했다.

조 교수는 청화 스님의 법문집인 〈원통불법의 요체〉와 〈정통선의 향훈〉을 재편집한 〈실상염불선〉에 수록된 법문 내 인용된 경론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경전 36종 · 인도찬술 논서 10종 · 중국찬술 조사어록 32종 · 한국찬술 조사어록 3종 · 일본찬술 조사어록 1종 · 조사와 고승 49인 등 총 85종류의 인용을 보여준다.

조 교수에 따르면 성철 스님의 법문집 〈백일법문〉에는 약 80여 종의 경론이 인용되며, 성철 스님 법문이 혜능 이후 조사들의 어록이 많은 것과 달리 청화 스님 법문은 혜능 이전 조사들의 어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는 “짐작컨대 한국불교사에서 양대 선사에 의해 불교전적의 종류와 수가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청화사상연구회는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실상염불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0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청화 스님 생전 법문 분석
대 · 소승 36개 경전 인용해
“본래성불 · 불성광명 회통한
염불선, 창조적 사상의 계승”

그러면서 초기경전 · 대승불교 · 동아시아에서의 염불선의 위치를 분석했다. 조 교수는 “불조의 경론이야말로 실상염불선 법문의 소의경론”이라며 “청화 스님은 특정한 한 경전만을 중심으로 실상염불의 법문을 펼치기보다는 불조의 여러 경전을 실상염불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다. 불교라는 큰 바다에서 선사가 던진 범망은 바로 실상염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상염불선의 법맥이 불조 석가모니 부처님을 시작으로 마명-용수-세친-달마-천태지의-도신-혜능-정중무상-종밀-금타-청화로 이어짐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청화 스님의 염불선은 올곧게 불조의 정통정맥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단순한 전통 계승에만 머물지 않고 창조적인 회통을 보여준다. 대승불교의 보편적 가르침인 불성과 조사선에서 강조한 본래성불사상을 회통시킨 염불선은 한국불교사뿐만 아니라 세계불교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법상 스님은 발표 논문 ‘정토염불과 실상염불선’을 통해 정토종의 정토염불과 금타 · 청화 스님의 염불선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공통점 · 차이점을 분석했으며, 최종적으로 염불과 선은 하나임을 밝혔다.

주목! 학술서

〈원효의 화쟁철학〉

지금 언어 · 논리로 화쟁을 철학하다

원효 사상 전반에 대해 천착하고 있는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가 최근 내놓은 〈원효의 화쟁철학〉은 화쟁을 어떻게 구성됐으며, 논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체계적이면서 총론적인 분석 뒤에는 이 시대에서 화쟁을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과 제언이 이어진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저서를 통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화쟁할 것 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이다.

원효의 화쟁 논법의 구조에 대해 박 교수는 ‘문(門) 구분’과 ‘무(無) 실체 · 무(無)본질 관계의 세계를 드러내는 일심의 지평’, ‘언어에 대한 통찰’로 구성된다고 봤다. 세 축이 서로 힘을 보태면서 상이한 견해들의 충돌을 통섭적 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원효의 화쟁 논법’이라는 것이다.이 같은 분석을 바탕



으로 박 교수는 화쟁이 사회에 구현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견해 주체들 간의 상호신뢰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고려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에 대한 논설은 주목할만 하다. 애초 공정할 수 없고, 유불리가 명확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쟁론은 이뤄지지 어려운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교수는 쟁론 주체들에게 대한 ‘차별’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쟁론적 게임에서 화쟁적 태도를 선택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내하는 선택은 강자가 먼저 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사회가 ‘절대화’가 아닌 ‘다면화’로 사유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한 박 교수는 종교계 역시 이 같은 전환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성민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보조사상’ 50집 발간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이 학술지 〈보조사상〉 50집을 발간했다.

〈보조사상〉50집에는 창립 30년을 맞은 보조사상연구원의 회고와 전망을 분석한 논문들이 특집으로 실렸다.

박보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가 ‘보조사상과 교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향-화엄교학을 중심으로’를, 강호선 성신여대 교수가 ‘역사학에서 보조사상과 수선사 연구 30년’을, 김방룡 충남대 교수가 ‘30년간 보조 지눌의 선사상에 대한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또한 투고본문으로 △원효 〈금광명경소〉 집일의 현황과 그에 따른 비판적 검토(한명숙) △원효 이승인식과 성불론(조은순) △지눌의 원돈신해문과 선교결합의 마음수행(정혜정) △△자력과 타력의 양립문제-청허휴정의 〈선가귀감〉을 중심으로 등이 수록됐다.

김호성 보조사상연구원장은 “원장에 취임하며 지난해 3월부터 ‘학문후속세대 양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서 “앞으로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정도만 노력한다면 불교학계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연구자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성보문화재, 국보 · 보물 지정 잇달아

관촉사 석조미륵입상 국보 지정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보물 예고

불교 성보문화재들이 잇달아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와 보물로 잇달아 지정됐다. 은진미륵으로 알려진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입상은 국보로 지정됐으며, 지난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는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이제 개국공신교서’를 국보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비롯한 매장 · 환수문화재 1건과 전적, 불화 등 4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4월 25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의 사리공(舍利孔)과 기단부에서 발견됐다. 사리장엄구는 639년(백제 무왕 40년)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사리봉영기와 함께 금동사리외호 · 금제사리내호,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은 청동합(靑銅合) 6점으로 이뤄졌다.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사리내호’는 모두 동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이 유려하고 양감과 문양의 생동감이 뛰어나 기형(器形)의 안정성과 함께 세련된 멋이 한껏 드러나 있다.


국보 제323호로 지정된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입상〈사진 왼쪽〉과 4월 25일 보물로 지정예고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사진 오른쪽〉

‘금제사리봉영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 앞 · 뒷면에 각각 11줄 총 193자가 새겨져 있다. 내용은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시주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639년)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 미륵사 창건설화를 넘어 구체적인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히게 된 계기가 돼 사리장엄구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유물이기도 하다.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호림박물관 소장 ‘지장시왕도’는 화기(畵記)에 의해 1580년(선조 13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화다. 주존(主尊)인 ‘지장보살과 무독귀왕, 도명존자’의 지장삼존(地藏三尊)을 중심으로 시왕, 제자들을 한 화폭에 뒀다. 화면은 다소 어두운 감이 있으나 색감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신체와 각종 의장물의 묘사가 매우 세밀하면서도 뛰어난 묘사력을 갖췄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4월 20일 은진미륵으로 잘 알려진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을 국보 제323호로 지정했다. 국보 제323호로 지정된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고려 광종의 명으로 승려 조각장 혜명(慧明)이 주도해 조성됐으며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고 우리나라 불교신앙과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예고된 5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이제 처마에도 연꽃을 달자!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

박재완의 PhotoEssay



4월

달라진 바람이 몇 번

조용히 비가 몇 번

그래서 달라진 아침이 몇 번

빈 하늘에 내가 몇 번

꽃이 핀 자리엔 옛날이 몇 번

검버섯 핀 석탑 위로 풍경소리 몇 번

그리고 부끄러운 날들이 몇 번

그렇게 4월이 간다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① 미세먼지 이겨내려면

"지속적 운동과 보양식 섭취로 면역력 키워야"

어느 틈에 미세먼지가 건강에 관한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큰 문제를 일으키므로 야외 활동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백분의 1밀리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다. 자동차, 공장,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배출된 인위적 오염물질로서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금속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 오염물질의 30~50%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석탄 의존도가 70%나 되는데, 특히 석탄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여 그것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함께 혼합, 축적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질환

숨을 들이쉴 때 코와 입으로 들어와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는데,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기관지염,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비롯하여 폐 세포가 손상되고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폐암 위험이 커진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폐포(폐 속 공기주머니)까지 침투하는데, 폐포의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오면 면역 담당물질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끈적해지게 된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이 생길 수 있다. 심지어 미세먼지는 혈액이 뇌 조직으로 들어갈 때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혈액-뇌 장벽을 뚫고 뇌로 침투해서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혈전이 생겨 중풍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인지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매도 유발하며, 뇌의 부피가 작아져 뇌의 노화도 촉진된다. 아울러 피부와 안구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황사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건조지대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높은 대기로 불어 올라간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이동해 지상으로 떨어지는 자연적 오염물질이다. 감기, 비염, 인두염, 후두염 등은 물론이고 폐렴, 기관지염,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노인은 면역기능과 점액, 섬모의 작용이 떨어져 있어서 쉽게 염증이 생기므로



'미세먼지'는 건강에 관한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폐·뇌에 치명적일 수도

콩·녹두·팥 섭취해야

특히 기력이 약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된다.

황사먼지가 들어오면 목 안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충혈이 된다. 그러면 찐득찐득한 점액이 많이 분비되면서 목에 무엇인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며 목에 붙은 가래를 떼려고 잔기침이 자주 나오게 된다. 아울러 코, 편도선에 염증이 함께 생기기도 한다.

미세먼지·황사먼지 해독

중국 무협영화를 보면 악한들이 독약이나 독 연기를 쓰지만 주인공은 거의 대부분 해독약을 먹고 살아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런 해독약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거나 대변을 소통시켜 설사가 나도록 하거나 혹은 열을 내리고 땀이 나게 하거나 혹은 약물을 조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병독이 몸의 하부에 있으면 설사를 유발시키는 것이 기본이고, 급성중독으로 의식이 혼탁할 때는 우황청심원을 먹이고, 기를 잘 소통시키는 약재를 쓴다. 예로부터 대표적인 해독약으로 검은 콩과 감초를 함께 달인 '감두탕(甘豆湯)'을 활용해 왔다.

해독효과가 있는 음식은?

콩류 식품은 모두 상당한 해독 효능을 가지고 있다.

녹두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장과 위를 조화롭게 하고, 모든 약초, 기생충, 물고기, 육류 그리고 금속과 광물질의 독을 해독한다. 특히 부자와 같은 열성 약물이나 광물성 약물의 독을 풀어주고, 농약과 중금속 중독의 치료에 적합하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좋다.

팥은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성질을 가져 몸속의 물을 잘 유통시키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므로 해독작용이 크다. 나쁜 피를 흩어버리는 효능도 있고, 곪은 것을 배출시켜 주므로 염증에도 좋으며, 특히 연탄가스를 비롯한 유독가스 중독증에 효과가 좋다.

해독음식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한다. 녹두, 팥을 비롯하여 율무, 무, 연근, 배, 미역, 다시마 등은 차가운 성질로서 열성체질에 적합하다. 반면 냉성체질에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마늘, 생강, 인삼, 도라지, 호박, 호두, 밤, 잣, 도토리, 꿀 등이 어울린다. 이런 음식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다.

녹차, 돼지고기의 해독작용

녹차는 찬 성질로서 번열을 풀어주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기름기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는데 그것이 해독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술과 담배의 독을 풀어주는데, 실험적으로도 니코틴 해독효과가 크다고 밝혀졌다. 또 중금속과 결합하여 중금속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돼지고기는 동의보감에 수은에 중독된 경우에 살찐 돼지를 삶아 식혀서 먹거나 돼지기름을 먹으라고 나오는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돼지 발굽도 백약의 독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다.

면역력 강해야 미세먼지 방어

강한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운동과 보양식이 필요하다. 운동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땀을 통해 몸속의 중금속 성분이 어느 정도 배출될 수 있으며, 신장, 비장, 폐의 정기를 보강하는 효능이 있는 음식을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한다. 물론 과로, 과음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는 것이 기본이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서울 제2총무원 개설 예정입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본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